



3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3호

(루계 제 749 호)

## 차 례

수령님과 땅 .....	3
작가들이여, 새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6
우리에게는 이 길이 있다 .....	6
풍지박산이 된 《포위》작전 .....	7
장군님 파원에 오신 날 .....	7
주체문학의 대강 .....	8
위대한 상봉 .....	8
통쾌한 우등불유인매복전 .....	9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주셨네 .....	9
유정한 뻐꾹새소리 외 1 편 .....	10
축복받으라 CNC 공작기계여 .....	11
풍경화가 전하는 이야기 .....	12
조선인사 .....	12
혁명전사의 생활철학을 새롭게 밝혀주시여 .....	13
가독령 .....	14
봉화산기슭에서 .....	14

청봉의 흰눈 .....	15
어머님의 환희 .....	16
길에 대한 생각 .....	26
투사의 백포자락 .....	27
거창한 시대정서가 울려퍼지는 희천의 서정 .....	28
한 너인의 원군일지 .....	32
그해 봄의 눈석이 .....	33
밀림속의 삶 .....	45
선군혁명을 힘있게	
이 나라 너인들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 .....	46
《직포공집》 외 1 편 .....	50
„《전기강》 .....	51
3.8 국제부녀절의 아침에 .....	52
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전진을... ..	53
동봉사람들 .....	58
영원한 어머니대동강 .....	59
동봉, 그 이름은 .....	61
시인의 《눈》은 무엇을 보았는가 .....	62
합격 외 1 편 .....	64
약속 .....	65
의리를 지켜 쓴 인물전기 《폐기전》 .....	73
영원한 보금자리 .....	74
《필요없는것을 왜 글로 썼나이까?》 .....	74
《병불염사》와 고구려문학에 반영된 탐정적형상 .....	75
심한 출혈 때 .....	76
월남의 신화에 대하여 .....	77
조선속담 .....	78
정태제와 심성의인소설 《천군연의》 .....	79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

## 수령님과 땅

김재원

이른봄  
눈석이대지에 봄자욱 찍으시며  
젊으신 경애하는 수령님  
해방된 들에 나오시었어라

이때라 앞내의 버들개지  
뿌야니 살찐 망울 부풀어올리고  
논두렁 깊이 잠자던 개구리들  
입떨어지고...

봄을 호흡하는  
삼라만상이 즐거우신듯  
승용차도 아니 타시고  
우리 수령님 농민들과 함께  
천천히 논밭머리를 걸으시여라

아 춘삼월 이 아침  
농토우에 한자옥한자옥 걸음 옮기시는  
우리 수령님처럼 마음 격앙된이  
또 어데 있었으랴

땅  
땅은 수령님 백두에서 안고오신  
조국  
땅  
땅은 농민들의 목숨  
농민들의 자주

어버이수령님  
몸소 허리굽혀  
흙 한줌 손에 담아 비벼보실 때  
아 그이의 눈가에

번쩍이던것이여

이 땅  
이날을 위해  
대오를 이끌고 백두산야를 주름잡던  
혈전천만리가 떠오르시는듯  
온몸에 거세차게 일어번지시는  
사색의 폭풍이여

왜적을 쳐갈긴 강산에  
해방은 왔어도  
땅이 없이야 농민들 어찌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랴  
땅의 주인은 농민  
토지는 영원히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민족의 향토사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으시듯  
꼭 움켜쥐신 그 한줌 흙에  
오늘의 사회주의대지가 숨쉬고있었으리

오, 땅  
이 땅은  
우리 수령님 피어린 한생  
민족과 력사앞에 헌신하신  
위대한 불멸의 대기념비!

그 땅우에 물결쳐 설레이는 나락들은  
수령님 후손만대에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  
그 땅 그 사랑과 함께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영생하신다!

## 작가들이여, 새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새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넘쳐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사색과 탐구, 열정을 기울여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였다. 이는 전적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새해 주체99(2010)년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질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끝없이 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향도의 당을 위해 가슴마다에 뚫어번지는 충정의 열도를 최대로 분출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 이것이 새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라고 제시하였다.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이 투쟁방향을 잘 알고 문학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당의 령도밑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고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작가들은 오늘의 이 장엄하고 격동적인 현실을

늘 깊이 체험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투쟁과 위훈의 불씨를 심어주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해 힘쓰는 현실속의 인간들의 전형적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더 많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며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관철하고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이다.

작가들은 금속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도 적극 뛰어들어가 시대가 부르는 사람들의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찾아내고 이를 형상으로 생동히 구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의 무궁무진한 경제기술적잠재력을 시위한 CNC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작품,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 복무하는 작품창작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올해의 총공세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비결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것이다.

작가들은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기에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돕고 이끌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모습을 빛나게 보여주기 위해 힘



써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오늘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 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투쟁해나가고있는 일군들의 전형적인 모습도 작품들에 생동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올해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작품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의한 의지와 공격정신에 바탕을 두고있는 불굴의 정신력과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할 우리에게 생명인 민족적자존심을 인상깊게 그려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적극적인 체현자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작가들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작품들에서는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이라는것과 함께 오늘의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작품들마다에서 형상으로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하여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결사대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기질이 차넘치는 군인들로 준비시키고 전군의 혁명화를 다그치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들인 로동계급과 청년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당을 강화하고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것이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해이다.

작가들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도 그 어느때보다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주체99(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작가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실로 올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창작과제들은 방대하면서도 영예롭다.

올해의 작품창작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가들이 그 어느때보다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이 문학부문에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슴깊이 간직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학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21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우리 당의 위대성과 새로운 대고조시대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떠나 명작창작을 기대할수 없다. 지난 시기 창작경험을 놓고보면 누가 얼마나 현실에 깊이 침투하고 진지하게 체험하였는가에 따라 명작창작의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가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그 어느때보다 이 분야들에 많이 뛰어들어가 현실체험을 잘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도록 하여야 한다.

더우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올해 전국문학축전에 모든 작가들이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특색있는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공동사설과업관철에도 이바지하고 우리 문학도 심오한 인간문제의 제기와 성격형상에서 새로운 전진을 안아와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의 문학이며 당의 령도는 우리 문학의 생명선이다. 우리에게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가인 작가들이 있는 한 점령 못할 창작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이 되어 단결하고 또 단결하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번영의 해로 되게 하자.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항일혁명의 1선에서 무장을 잡고 강적 일제를 상대로 하여 고어린 싸움을 벌려온 녀전 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녀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 세울수 있는 녀성영웅들이다.》

《우리 로동당시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녀성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녀성영웅들과 녀성활동가들, 녀성로력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안영애, 조옥희, 리수덕, 리신자, 정춘실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가 낳은 녀성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것은 백두의 녀이었다. 우리의 수백만 녀성들은 오늘도 이 녀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보루를 쌓아가고있다.》

## 우 리 에 겠 이 길 이 있 다

김 덕 선

우리 수령님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그 얼마나 멀고 험난했던가

세월은 흘러 흘렀건만  
그 자옥 너무도 소중한  
그 길엔 바람도 삼가하누나  
세월의 락엽도  
세월의 이끼도 덮이지 못하누나

이 길을 걸으시던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 옷자락에 스며드는  
바람 한점 막아드리지 못하고  
그 길에 갈아신어야 할  
버선 한켠에 지어드리지 못한 인민이건만

우리 수령님 이 길을 걸으시며  
짓밟힌 겨레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고  
조국을 찾자면 배워야 한다신  
아버님 말씀의 참뜻을  
걸음걸음 새기시며 걸으셨나니

그날 우리 수령님의  
너무도 작은 어깨엔  
너무도 무거운 조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지워져있었구나

이 길을 걸으시며 우리 수령님

나라를 찾을 새길을 그려보셨고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한  
불바다 천리길  
피바다 만리길이라 하여도  
기어이 걸어 조국을 찾아야 함을  
자옥자옥 새기며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오, 8도구에서 만경대  
이 길에 찍혀진 자옥들이  
길가의 조약돌보다 더 많았고  
눈물에 젖은 이 길에 닳고닳은  
짚신들은 그 얼마였던가

허나 오로지 나라찾을  
애국의 마음 이 길에 자옥자옥 새기시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라찾을 결심품고 걸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거니

오, 《배움의 천리길》  
이 세상 그 어느 길에도 비길수 없고  
이 길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어제도 오늘도 승리만을 펼쳐온 길

이 길이 오늘은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의 길로 넓어지고  
강성대국 희망찬 길로 다져져  
우리 혁명은 승리의 길로만 간다  
우리 혁명은 영광의 길로만 간다

## 풍지박산이 된 《포위》작전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행하신 무송원정의 나날에는 수령님의 결출한 위인상을 보여주는 경이적인 사실들이 수많이 생겨나 오늘날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양목정자를 떠나 동강으로 가던중 소탕하에서 적의 포위에 들었을 때였다.

적들은 《동기대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회복해보려고 소탕하골안으로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밤이면 《토벌》대놈들이 피우는 우등불이 겹겹이 원을 짓고 불바다를 펼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대도시의 야경을 방불케 하는 불무지들을 바라보며 최후를 각오해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가다듬었다.

한 지휘관이 위대한 수령님께 결사전을 벌릴 자기들의 결심을 말씀 올리었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한 어조로 우리는 죽을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혁명을 계속하여 조국으로 반드시 진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크고작은 우등불로 가득차있는 골안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팎에는 적들이 제아무리 기세를 울리며 발악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소탕하 수십리골안에 펼쳐놓은 우등불의 바다에서 적의 력량이 얼마만큼 되며 어떤 전술로 인민혁명군을 공격하려 하는가를 손금보듯 헤아리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곧 지휘관들에게 큰길을 따라 동강쪽으로 행군할것을 명령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알수 없

었던 지휘관들은 《큰길》이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의 명령에 의아해하는 지휘관들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소탕하 주변과 무송 일대의 적들이 이곳으로 다 쫓린 조건에서 마을과 큰길들은 텅 비어있을것이라고, 밀림속에만 주의를 돌리고있는 적들은 우리가 설마 대도로로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우리는 적들의 빈 공간을 리용하여 동강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경탄이 비끼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피동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는 령활무쌍한 전술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지략이였다.

주력부대는 우등불사이의 공백을 따라 유유히 빠져나와 대도로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대도로와 그 주변마을들은 텅 비어있었다.

의기양양한 대오는 궤도를 질주하는 급행열차처럼 텅 빈 적구를 일행전리전술로 무사히 통과하여 동강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전략에 의하여 《혁혁한 전과》를 꿈꾸던 적들의 기도는 여지없이 풍지박산이 되고말았으며 이 소식은 조국해방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림 정 호

가 사

## 장군님 과원에 오신 날

손 명 화

사과꽃 곱게 핀 봄날을 그려보시며  
서리꽃 하얗게 핀 날 장군님 오시였네  
신비경을 펼친 대동강과원을 보시며  
참으로 희한한 별천지라 하시였네  
아 어버이장군님 과원에 오신 날은  
선군11경이 펼쳐진 날이였네

파일향기 넘쳐나는 가을을 그려보시며  
찬바람 헤치시며 장군님 오시였네  
황홀경을 펼친 대동강과원을 보시며

이제는 평생소원 풀리었다 하시였네  
아 어버이장군님 과원에 오신 날은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날이였네

오곡백과 설레는 무릉도원 그려보시며  
인민들 쉬는 날 장군님 오시였네  
수령님념원 꽃피난 과원을 보시며  
일생에서 제일로 기쁜 날이라 하시였네  
아 어버이장군님 과원에 오신 날은  
강성대국 새봄이 마중오는 날이였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자기의 문체를 가지고 생신한 언어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자질과 기량에 달려있다. 언어구사의 비결은 전적으로 작가의 재능에 달려있다. 풍부한 표현력과 일반화의 가능성을 가진 언어수단의 위력은 작가가 언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에서 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는 형상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 식의 투를 가지게 된다. 작가야말로 가장 많은 어휘의 소유자, 언어구사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 위대한 상봉

김길성

3월은 봄계절이건만  
청봉의 산발은 흰눈에 묻히고  
간밤에 내린 흰눈속에  
숨엄한 고요에 잠긴 청봉속영지  
여기에 우리 수령님 계시다

방금 국내진공작전구상을 마치시였는가  
무릎우에 펼친 작전도에서  
달리시던 연필을 멈추시고  
우리의 장군님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어제는  
어머님의 고향 회령을 찾으시여  
어머님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오늘은 청봉속영지 여기에 계시는  
수령님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쁠 때도 힘겨울 때에도  
그리워 찾고찾으시던 수령님께  
승리만 펼쳐온 만단사연  
크나큰 기쁨을 아뢰이고싶어 찾아오신 장군님

하얀 눈길에 자욱을 새기시며  
수령님 우러러 발걸음 옮기셔라  
조선을 이끄시고

혁명을 이끄시고  
세기를 이끄시고

아 순간이 천년같은 백두의 고요속에  
수령님께 드리는 장군님의 심중의 말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수령님탄생 100돐까지  
조선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고야말겠습니다

수령님께 올리고싶은 심중의 말씀  
해가 다하도록 하신들 끝이 있으랴  
달이 다하도록 하신들 끝이 있으랴  
수령님을 찾아오신 이날 이 길까지  
우리 혁명의 만단사연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이 땅우에 불멸의 위업 쌓으신  
수령님의 한평생력사는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력사였기에  
수령님께 드리는 장군님의 결심  
그것은 수령님의 념원 최상의 기쁨이었거니

아 회세위인들의 상봉이여  
그 말씀 비껴간 저 멀리 백두에서  
은은한 봄우뢰가 울려왔다  
**김일성, 김정일**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 통쾌한 우등불유인매복전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많은 격전장마다에서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용감성으로 빛나는 위훈을 떨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주체25(1936)년 겨울 내도산방어전투때에 있는 일이다.

엄청나게 많은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속에 하루해가 저물무렵이었다.

마을사람들이 추운 날 고지에서 싸우는 유격대원들을 위해 나무단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우등불을 피워 그들의 몸을 덥혀주려는것이였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의 지성을 고맙게 여기었으나 밤에 우등불을 피우수 없었다. 위치가 적들에게 노출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지휘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을 피우자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에 우등불을 피우면 우리의 력량이 많은것처럼 보여 적들에게 위압을 줄수 있으며 적들은 우등불이 있는 곳을 아군의 위치로 알고 덤벼들것이라고, 그때 우리는 미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가 적들을 담새기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묘한 전술방안이었다.

그이께서는 만약 놈들이 습격해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손해될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야간습격이 두려워 불을 못 피우고 떨고있는 적들이 우등불을 보면 자연히 사기가 똑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유격대원모두를 대번에 흥

가 사

분시켰다.

그로부터 얼마후 내도산의 여기저기에서 우등불이 타올랐다.

곧 부대는 김정숙동지께서 내놓으신 유인전술방안에 따라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우등불을 본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이 증강된것으로 알고 짙은 어둠을 리용하여 불무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모든것이 김정숙동지께서 예견하신 그대로였다.

흰 위장포까지 쓰고 부나비처럼 우등불가로 다가들던 적들은 일정한 지점까지 기여올라 불의에 돌격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 유리한 위치에 나뉘어 매복하고있던 유격대원들과 마을청년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우등불빛이 적들의 물결을 환히 드러내주는것으로 하여 유격대원들은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길수 있었다.

기세등등하여 돌격으로 이전하려던 적들은 헛총질만 하다가 썩은 통나무 넘어지듯 그 자리에 푹 푹 꼬꾸라졌다. 얼마 안되는 사이에 적들은 몽땅 녹아났다.

우등불유인매복전으로 적들을 통쾌하게 소멸한 유격대원들과 마을청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기발하고 대담무쌍한 전법으로 싸워 내도산방어전투에서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많은 무기와 전투기재를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강 철 남

##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주셨네

김 성 옥

오랜 세월 몰랐던 나의 아버지  
항일의 광야에서 그 자욱 찾아주셨네  
혁명가의 지조키쳐 끝까지 싸웠다고  
이 가슴에 렬사증을 안겨주셨네  
아 장군님은 세월의 락엽을 헤치시고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주셨네

적후에서 홀로 숨진 나의 아버지  
참다운 혁명가로 세상에 내세워주셨네  
최후의 순간에도 한별만세 웨쳤다고

이 가슴에 렬사증을 안겨주셨네  
아 장군님은 세월의 락엽을 헤치시고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주셨네

수령님만 길이 따른 나의 아버지  
충성의 그 삶을 붉은기에 새겨주셨네  
천만년 대를 이어 그 넋을 빛내라고  
이 가슴에 렬사증을 안겨주셨네  
아 장군님은 세월의 락엽을 헤치시고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주셨네

# 유정환 빼꼭새소리 외 1편

리 덕 진

봄향기 그윽한  
새벽도 전선길의 이른새벽  
병사들을 찾아 장군님 가신다  
싸 푸른 숲도 감격에 넘쳐 설레이는가

굽이굽이 첩령을 오르고내리신  
겹쌓인 피곤이 일시에 다 풀리신듯  
그윽히 안겨오는  
청신하고 달디단 숲의 향기  
한쪽의 선군명화를 부감하시여라

수림화 원림화를 잘했다고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병사들에게 치하를 안겨주실 때  
아, 병사들은 가슴에 넘치는 격정으로  
어깨를 들먹이며 눈굽을 축축히 적셔라

몇해전 식수절 그날에는  
몸소 첫삽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물도 주시며  
수림화 원림화의 본보기를 펼쳐주셨는데  
오늘은 그 수고를 병사들의 가슴에 안겨주신  
아버이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뜨거운 그 마음이런가  
어대선가 빼꼭새소리  
빼꼭 빼꼭 뽀뽀꼭...

청신한 숲의 대기를 가르며 울려오는  
유정한 그 소리를 정답게 들으시던  
최고사령관동지!  
누구에게라없이 하시는 말씀  
—빼꼭새가 우는구만  
빼꼭새소리가 유정합니다!

아, 우리 장군님!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빼꼭새소리에 심취되신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한껏 어릴 때  
빼꼭새소리 더욱 구성지게 울려라  
빼꼭, 빼꼭, 뽀뽀꼭...

한동안 그 소리 들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회억의 미소를 함뱉 뿌리시며  
산림이 울창하니 온갖 새들이 날아온다고

감동깊으신 어조로 하시는 말씀이여  
—나는 빼꼭새소리를 《고난의 행군》 이후  
여기에 와서 듣습니다!

아, 순간  
가슴이 뭉클  
못 잊을 간고한 추억의 밑물이  
가슴깊이 뜨겁게 흘러들어라

우리 얼마나 험난한 길 헤쳐왔던가  
미래에 대한 신념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을수 없었던  
고난과 시련의 그 길을

그 길우에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강성대국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으시고  
푸른 숲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아버이장군님!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조국땅 곳곳에  
가없이 펼쳐진 푸른 숲의 설레이이여

봄날의 유정한 빼꼭새소리를  
풍년징조를 알리는 노래로 들으시고  
다감한 인민의 정서를  
선군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아, 한그루의 애솔나무를 보시고도  
산새의 지저귀음을 들으시면서도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애국심  
부강번영할 태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아버지!

빼꼭, 빼꼭, 뽀뽀꼭...  
선군정서에 휩싸인 다감한 사람들이여  
귀기울여 정다운 빼꼭새소리를 들으시라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듯  
환희롭게 울려퍼지는 빼꼭새의 정다운 노래를

## 개울물소리 ...

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여 오셨다가  
병사들이 그리워 가시는  
사랑의 그 끝은 어디...  
또다시 린접구분대를 찾으신 장군님!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록화를 잘하니  
경치가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만족한 웃음 하늘 땅 가득 퍼우시며  
푸른 숲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돌아가셔야 할 저녁무렵이건만

이윽토록 숲을 부감하시던  
아버이 우리 장군님!  
순간! 걸으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무엇엔가 귀를 기울이시여라

숲속 저 멀리 어디에서  
유정한 개울물소리 들려온다고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조용히 하시는 말씀  
—얼마나 좋소  
오늘은 정말 대단히 만족하오

아, 멀지 않은 곳에서  
맑고 시원한 개울물소리  
돌돌돌... 소리내며 흐르는 물소리  
정든 고향집 소백수의 물소리로 들으시는듯

유정한 개울물소리에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의 그윽한 정서뿐이던가  
이 땅에 넘치는 향기를 안으시며  
장군님께서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여라

장군님의 뜻으로  
심은 나무들이 푸르싱싱 숲으로 설레이니  
흐르는 물소리도  
조국애로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어라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에 담긴  
군인들의 자그마한 지성도  
조국에 바치는 병사들의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

아, 보다 무성한 푸른 산  
보다 부강한 조국의 패일을 지키는  
병사들의 가슴에 넘치는 긍지여 행복이여

## 축복받으라 CNC공작기계여

최 명 길

내 어제날  
공상속에 그려보던 공작기계  
세월의 먼먼 언덕너머  
네가 있는줄 알았건만

너와 나  
벌써 한지점에서 만났구나  
공상속에 그려보던  
CNC공작기계여

그렇게도 빨리  
너와 나 상봉할줄을 몰랐구나  
내 재여보던 제품의 수치와 시간을  
너는 세기를 앞당겨 달려와  
너의 주인 나를 힘껏 포옹해주는구나

마음속 생각이  
제품이 되어 쏟아져  
로동에는 창조자의 기쁨을  
생활에는 향유자의 행복을 주는  
CNC공작기계 주체공업의 산아여!

정녕 너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수수한 학생복차림으로  
로동자들과 함께 선반을 돌리시던 나날  
그날에 벌써 그려보신 공작기계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  
절삭날끝에서 번쩍이는 한점 불꽃에서  
수자조종공작기계를 그려보셨고  
CNC공작기계를 그려보셨나니

조종은 흥겨워도  
마음속엔 눈물이 난다  
《고난의 행군》 그 엄혹한 나날에  
우리 장군님 인민을 자신처럼 믿으시고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일떠세운  
주체공업의 위력 CNC공작기계여

오 공작기계여 축복을 받으라  
나는 오늘 CNC공작기계의 당당한 주인  
나는 CNC공작기계조종대 화면에서 보고있다  
2012년 누리에 빛날  
강성대국 모습속에 나의 모습도!

## 풍경화가 전하는 이야기

애국의 숭고한 뜻 안으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은 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무한대한 정신력을 분출하게 하는 위대한 헌신의 길이다.

몇해전 삼복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을 지켜선 기업소로동계급의 심장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인 령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것으로 하여 뜨겁게 높뛰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건된 소결1직장 종합지령실을 돌아보고 나오실 때였다.

그이께서 지령실의 전실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벽에 걸려있는 한쪽의 그림을 바라보시는 것이였다.

《김철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소박한 풍경화였다.

그림을 한동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음성으로 누가 그렸는가고 물으시였다.

기업소의 일군이 노동자들이 자체로 그렸다는데 대하여서와 소결1직장을 중심으로 기업소지구를 형상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노동자들이 자체로 그린 풍경화라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림을 그린 노동자들이 대견하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잘 그렸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하여주시였다.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노동자들이 작업의 여가시간에 짬짬이 그린 풍경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앞을 지나다녔어도 거기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림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그림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소박하고 평범한 그 그림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며 못내 대견해하시느것이다.

기업소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 올랐다.

그이의 평가를 어찌 풍경화에 대한 평가라고만 하랴.

비록 서툰 그림이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일터를 끝없이 사랑하는 기업소로동계급의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무엇이나 체손으로 해놓고싶어하는 자존심을 먼저 읽으신것이였다.

노동자들이 그린 소박한 풍경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명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도의 자욱과 더불어 꽃피난 이 이야기는 오늘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절세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쟁과 위훈의 길로 줄달음치게 하고있다.

### 소 개

## 조선인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람들속에서 악수하는 버릇을 없애고 조선식례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례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였을뿐아니라 례의를 어기는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였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인사례법이 바르고 례절을 잘 지키는것을 풍습으로 삼아왔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가지 형식이 있지만 조선절이 제일 좋다고 지적하시였다.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인사는 허리굽혀 절하는것과 머리숙여 절하는것이 있었으며 이러한 절과 함께 지켜야 할 여러가지 례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고

길을 양보하였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에게 길을 비켜주거나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가 먼저 지나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지켜오는 례의이다.

로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이다. 길거리에서라도 로인을 만나면 가까이 찾아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건강을 문의하며 로인의 길을 바래주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지켜온 인사례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것이다.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웃어른에게 하는것, 같은 또래의 친구에게 하는것, 아래사람에게 하는것 등 례절을 지켜야 할 대상에 알맞게 되어있다. 즉 보다 정중성을 표시해야 할 대상에게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하고 친구들사이에는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며 아래사람의 인사에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 답례하는것은 인사로써 아래우를 잘 가리는 단정한 례절이였다.

우리는 조선절의 우월성을 잘 알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사법만을 계속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다.

## 혁명전사의 생활철학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순직하는 바로 여기에 혁명가의 값높은 삶과 영예가 있습니다.》

한 작가는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과 영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사를 창작하게 되었다.

사실 이는 어느 한 영화의 주제가로 들어갈 가사였다.

작가는 가사를 창작하면서 특히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의 구절에서 자기가 주장하려는 문제, 철학성을 부여해보려고 애썼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면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혁명가의 고귀한 삶과 영예를 지닐수 있고 후회가 없게 된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 혁명가들이 뒤돌아봐도 후회가 없게 그렇게 살았으며 3세, 4세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작가는 혁명전사의 고귀한 삶은 좋은 추억만 있고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데로부터 전사가 가는 길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게 사는 그 앞길에 있다고 가사에서 주장하려 하였고 이 대목에 철학성을 담아보려 하였던것이다.

하여 작가는 오랜 기간 고심어린 탐구끝에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라는 구절이 있는 가사를 창작하여 내놓게 되었다.

그러던 주체75(1986)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창작된 가사 《전사의 길》을 보여주시였다.

가사와 선물을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사의 마지막대목에 이르시여 눈길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라고 씌여져있었다.

이 대목을 다시금 주의깊게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필을 드시고 가사의 마지막대목에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라고 고쳐 써넣어주시였다.

하여 가사는

길이어 길이어 너의 끝은 그 어디  
한생을 걸어도 못다 걸을 길이어  
먼길을 왔다고 돌아보지 말라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

라고 되게 되었다.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

이 구절이 종전보다 얼마나 입에 인차 오르코 읽기에도 편안하며 또 생활리치에도 맞고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것인가.

처음 작가는 새롭게 창작되는 가사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여기에 혁명전사의 생활철학을 새롭게 담아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가 창작한 가사의 부족점을 대번에 발견하시고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네》를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로 고쳐 써주시으로써 가사는 명가사로 완성되게 되었다.

전사가 가는 길 앞에만 있다는것. 이것보다 혁명전사는 오직 혁명의 한길을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보다 값높게, 위훈을 빛내이며 후회없이 살아야 한다는것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는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가사의 철학성을 더 깊이 보장하는것으로 되는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정해주신 가사를 받아안고 작가는 다시금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새로 고쳐주신 가사의 대목에는 혁명전사의 생활철학이 명백하게, 더 뜻깊게 담겨져있다. 그렇다, 전사가 가는 길은 앞보다 뒤돌아봐도 후회가 없이 참되게 사는데 있다는 자각을 안겨주는데 있다. 그래야 전사의 길이 값이 있게 더 빛나는것이다.)

그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사를 고쳐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가사를 그렇게 고치니 철학성이 한결 깊어졌다고, 한생을 후회없이 걸어가는것, 바로 이것이 혁명가의 생활의 철학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편의 가사를 통하여 혁명전사의 생활철학을 뚜렷이 밝혀주시으로써 혁명가의 생활철학은 더 뚜렷해지고 뜻이 깊어지게 되었다.



# 봉 화 산 기 습 에 서

허 수 산

3월의 봄빛이 흘러내리는  
봉화산기슭에 섰노라니  
더욱 숭엄히 안겨오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여

오늘도 해빛밝은 맥전벌 바라보며  
온 강산을 향해 울리시는 그 목소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단결의 힘으로!

내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  
독립의 큰 경륜 펼치시던 선생님!  
찬눈 찬서리 다 밝으시며  
지원의 뜻으로  
푸른 소나무의 기상 펼쳐온  
장장 간난신교의 길

그 길우에  
선생님의 념원대로  
양춘가절 펼쳐졌도다  
우리 수령님 조국을 해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  
용용히 일떠세웠나니

자주자립으로 빛나는 조국땅에  
선군의 보검높이  
새롭게 일어서는 내 조국이어  
우리 장군님 《지원》의 길 걸으시며  
이 땅에 강성대국의 그날을 당겨오는  
오늘의 우리 민족의 총진군길이어!

온 강산에 일떠선  
무적의 총대숲이 말해준다  
시각마다 변이 나는  
부강하는 조국의 오늘이 말해준다  
날로 밝아지는 인민의 웃음이 말해준다

선생님의 그 높은 뜻  
그 념원  
얼마나 정의로웠던가를  
존엄높은 조국, 강성하는 조국의 오늘이  
누리를 향해 힘있게 말해준다

우리는 가고가리라  
언제나 민족자주의 대하에  
온몸을 싣고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인민들이 잘사는  
선생님 리상으로 그려보던 그날에로!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안고 가리라  
선생님 우리에게 준  
민족자주, 단결의 정신으로  
**김일성**민족의 위력과 존엄  
만대에 이어 펼쳐가리라

오늘의 내가 마음에 새겨안고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물려안고 갈  
선생님의 자주의 정신  
3월의 봄빛에 더욱 눈부시구나  
봉화산기슭에 내 힘있게 섰노라

## 가 득 정

서 봉 제

쿠궁 싸—  
푸릿한 얼음절벽에서  
눈사태 쏟아지는  
북방의 산아

너의 산 그 어디에  
발자국은 찍혀졌더냐  
너의 눈천지 어디에  
조질은 쌓여졌더냐

일제경찰의 가증한 포승을 끊고  
연포리 뽕죽봉을 넘어선 몸  
여기 얼음길 조질난가리속에  
긴긴 겨울밤 새우셔야 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전조등불빛 누비던 국경엔  
살륙의 총칼이 진을 치고  
추격의 총소리 자지러지던 밤

눈보라는 왜서 울고 울었더냐  
밤별은 왜서 떨고 떨었더냐

산전막 파끈한 아래목도  
조발머리 지척에 있었건만  
엄한에 지친 몸 잠시 녹이고싶은  
모닥불 하나 지필수 없었어라  
가독령의 이 기슭

뼈 어이는 동상의 아픔보다  
길 잃고 나라 잃고 지붕도 없이  
차디찬 설한풍에 헤매이는  
겨레의 곡성에 피가 끓어  
설산을 태우던 마음의 불기둥이어

만단시련을 이겨넘는 의지를 안으시고  
3천리강산에 새겨오신 그 자욱  
천번 죽음을 딛고 서는  
불굴의 신념을 버리시고  
살얼음끼 암록강을 건너시어  
동북만주에 찍어가신 길 몇몇만리던가

아 칭칭 휘감긴 철쇄를 부시고  
독립의 해돋이를 불러 타오른  
김형직선생님의 위대한 심장의 불은  
아버이장군님 부르심따라  
강성대국 그날 향해 노도치는  
조선의 힘찬 걸음에 열풍을 더해주고있구나

## 청 봉 의 흰 눈

최 영 희

언제면 오실가 우리 장군님  
꽃이 피는 봄철엔 꽃이 피여 기다리고  
언제면 오실가 우리 장군님  
단풍든 가을이면 단풍 고와 기다리며  
강사들 마음속엔 장군님 생각

그리움이 눈이 되어 내렸는가  
간밤에 청봉밀영에 눈이 내렸네  
아버이수령님 동상주변에  
초병인양 솟아있는 잣나무 분비나무에  
햇숨같이 내려앉은 하얀 흰눈

장군님 즐겨하시는 하얀 흰눈  
이해의 마지막눈일수도 있으리  
이제라도 장군님 밀영에 오시였으면  
청봉의 흰눈세계 보시였으면

강사들 서둘러 눈을 치러 나서는데  
청봉밀영에 아버지장군님 오시였네  
백두산축지법을 쓰신듯  
마음속에 그리던 아버지장군님  
수령님 우리러 걸음 옮기셨네

장군님 우리러 목메인 강사들  
장군님 가시는 길에 눈을 쓸려 하는데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네  
—눈을 쓸지 마시오  
백두산에 와선 흰눈을 밟아보아야  
백두산의 진맛 흰눈의 진맛을 알수 있소

아 눈이야 우리 장군님처럼  
그리도 많이 맞으신분 있으랴  
눈덮인 2월 백두밀영에서 탄생하시어  
흰눈과 인연을 많이 맺으신분  
첫 자욱을 흰눈우에 새기신분

깊은 밤 귀틀집 피창가에 울리는  
백두의 눈보라소리 들으시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 가슴에 새기시며  
주체위업의 큰뜻을 키우신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장군님은 눈과 류다른 인연을 맺으신분  
장구한 혁명의 나날  
막아서는 난관도 백두의 눈보라로 쳐물리치고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강성대국의 새봄을 무르익히신분

오 장군님 즐겨하시는  
백두산의 진맛 흰눈의 진맛은  
혁명의 초행길을 락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애국의 맛 헌신의 맛

강사들 장군님 우리러 보았네  
흰눈우에 새겨진 자욱자욱  
천만년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을  
이 땅에 남기신 사랑의 서사시였네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혁명의 맛이었네



## 최 상 순

중국동북지방의 한 도시를 떠난 열차가 별판을 달리고있었다. 가을이 다 지난 아득한 들은 황량하였다.

차안에는 부모를 잃고 떠돌던 항일혁명자유자녀들을 찾아서 데리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림춘추와 그 일행이 올라있었다.

림춘추는 깊은 마음을 안고 차창밑에 묵묵히 앉아있었다.

홀려가는 별판을 바라보며 숲속의 새때들처럼 쉬임없이 속삭이던 아이들이 어느새 슬며시 림춘추의 주위에 다가들었다.

《선생님,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가 동북땅을 떠날걸 알고계세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릴 기다리고계세요?》

번연히 알고있으면서도 너무 좋아 벌써 몇번째 들 물어보는 소리였다.

그리움에 넘친 아이들의 응석섞인 말이 림춘추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아이들의 모습너머로 이 아이들을 찾으러 떠난 때의 일이 뇌리에 한동안이나 떠돌았다.

...그가 유자녀들을 찾기 위해 동북으로 떠나기 전 어느 저녁이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를 저택으로 부르시었다. 림춘추가 도착하자 그이께서는 쓰시던 글을 밀어놓으시고 동북으로 떠날 준비가 어떻게 되였는가 알고싶어 불렀다고 곁에 앉으라 하시었다.

림춘추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찾아야 할 아이들에 대해 아직 아는것이 너무 적어 걱정 하던 중이였었다. 부끄러웠으나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잠시 말없이 앉아계시던 장군님께서 항일빨찌산 전우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뇌이시었다. ...

오중성, 박수영... 럽포수, 강억세...

가슴 깊은 곳에서 떠내는 그 음성은 마치도 곁에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시는것 같았다.

림춘추는 마음을 흠칫하기까지 하였다. 죄스러움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어느덧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자서전적인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때 부엌에서 일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 방으로 들어오시었다. 장군님께서와 녀사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남긴 자녀들에 대하여 추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두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있노라니 그것은 다 이제 림춘추가 유자녀들을 찾는데 필요한 자료들이었다.

림춘추는 저도 모르게 수첩에 따라적었다.

그때 그에게는 김정숙동지의 오빠가 남기고간 조카아이에 대한 생각이 났다.

그는 이야기틈에 녀사께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아이에 대해 묻곤 했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못 들으신듯 인차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곤 하셨다.

밤이 깊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녀사의 혈육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천으로 표지를 씌운 수첩 하나를 주시었다. 수첩은 손때가 묻고 가위가 닳아지었다. 어쩐지 거기서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만 말할수 있는 화염의 냄새가 풍기는것 같았다.

림춘추는 조심히 그 수첩을 펼치었다.

거기에는 연필로 혹은 만년필로 희생된 빨찌산

전우들과 그 자녀들의 주소성명이 또박또박 적혀져 있었다.

림춘추는 그 수첩을 무겁게 받쳐들고 잠시 엄숙하게 앉아있었다.

눈앞에는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과 눈보라치는 이국의 산야, 우등불이 타오르는 밀영의 저녁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수첩에 적힌 글자들은 바로 이런 속에서 씌여진 것이었다.

림춘추는 수첩을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볼수록 빨찌산의 피어린 역사를 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사신 녀사의 마음이 맥맥히 어려왔다.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잊어서는 안될 이름들을 한자한자 새겨넣으실 때 그리고 그것을 품고 혈전만리를 헤쳐가실 때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으며 오늘을 위한 맹세는 얼마나 피땀한것이였겠는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녀사께서는 십년이 넘도록 그것을 싸움속에서 지켜오셨다.

림춘추는 왈각 울음이 솟구쳐오를것 같아 그것을 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녀사께 뜨적뜨적 더듬는 말로 혁명동지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었다.

지금 림춘추는 그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과 녀사께서 유격근거지시절부터 적어두셨던 자료들에 기초해서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

그는 아이들을 향하여 그제야 갈린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

《아시고말고.

너희들이 손끝 하나 다친데없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어머님께서는 지금 창문 열고 내다보실게다!》

어린것들은 서로 손뼉을 치기도 하고 어깨를 일싸안기도 하면서 춤을 추듯 좋아했다.

렬차는 지심을 울리며 달리였다. 쉬임없는 차소리가 김정숙동지에 대한 생각을 가슴속에 더욱 가득히 불러왔다.

차츰 심연에 젖어드는 그의 얼굴에 한없는 그리움과 짙은 그늘이 지였다.

...빨찌산시절, 험난한 혈전속에서 어려해. 녀사께서는 싸움에서는 녀장군이였으나 보통때에는 늘 다심하고 정깊은 어머니이시고 친누이이시였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고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내대시였다. 그래서 억센 빨찌산사나이들도 녀사앞에서는 웅석을 부리고 어린애가 되였다. 빨찌산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시며 언제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으셨다.

그러느라고 어려운 산생활에서 그이께서는 중병

에 드셨다.

오랜 빨찌산군의인 림춘추는 그것을 의사로서 잘 알았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녀사께서는 좀처럼 휴식을 못하시고 더욱 바빠 지내신다.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늘 밝은 모습으로 계시니 사람들은 그이의 건강에 대해 모르고있다.

빨찌산의 옛 군의는 녀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에 가슴이 졸아들었다.

동북으로 떠나면서 경위대장 신영준에게 녀사께서 꼭 온천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라고 열번, 스무번 당부하고 갔었는데 떠나셨는지...

×

울퉁불퉁하고 먼지끼 촌달구지길은 한적하였다.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30대의 녀인이 이 길을 걸어오고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평양교외의 자그마한 농가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다.

지칠대로 지치였으나 쉬지 않고 걸으시였다. 아득한 허공에서 날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였다. 녀사께서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젓히며 새를 찾으시였다. 앞에서 한마리가 날고 뒤에서 두마리의 새가 날았다.

(깃을 찾아가는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쩐지 가슴이 그러죄이는 것을 느끼시였다.

해가 저물어갔다.

녀사의 마음이 서둘러 지쳤다. 눈앞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가 해방된지 여러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자녀들을 다 찾지 못했다고, 그 애들이 지금 어데 가서 입을건 제대로 입고 먹을건 변변히 먹고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혁명자유자녀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신문에도 내고 방송으로도 내보냈건만 아직도 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다.

잊지않아도 장군님께서 박수영의 아들 인성이는 어디에 가서 없혔길래 아직 소식이 없을가고 혼자말씀을 하시였다.

어제가 바로 박수영이 공작지에서 희생된 날이였다.

아침에 녀사께서는 만경대에 있는 혁명학원건설장에 가시였다가 그 걸음으로 끝추 간리에 있는 학원림시교사에 가시였다.

교원들이 기다렸던듯 그이를 반겨맞았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쓰고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원장이 무거운 얼굴로 따라들어왔다. 그는 김정숙동지께 그동안 찾아들인 아이들중에 독립군출신의 아이가 있는데 일없겠는가 물었다.

녀사께서는 독립군도 자기 민족을 위해 피흘리고 생명을 바쳤는데 왜 그러는가고 되물으시었다.

《어떤 간부들은 그런 아이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지시까지 있었습시다.》

원장이 눈길을 떨구었다.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형언할수 없는 피곤이 실려었다.

《그전 편협한 개별적간부의 지시이지 조직적인 의사는 아닐거예요. ...》

깨우쳐주시는 녀사의 마음속에 어느덧 초조가 깃들었다. 이미부터 걱정해오던것이지만 인성이가 아버지일로 하여 생활의 풍파를 겪을수 있다는 생각이 한층 커지신것이였다. 한시바삐 인성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시며 새로 찾은 원아들의 명단을 보자고 서둘러 말씀하시였다.

원장은 김정숙동지께 보고드린 후에 더 찾은 유자녀가 없다면서 한가지 이야기를 자신없이 하였다.

《저, 금시 들은 말인데 강동군에 중국에서 살던 늙은이내외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고향에 와 살겠다면서 나온 집이 있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혼자생각을 해보가시면서 물으시였다.

《중국에서 살았대요?... 동북 어디에서 살았대요?... 늙은이내외가요?... 손주 하나를 데리고 나왔대요?... 혹시...》

녀사의 온몸이 차츰 불빛처럼 밝아지였다.

그 애가 박수영의 아들 인성이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가슴이 가법게 떨리기까지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획한 일들을 미루시고 지체없이 그곳으로 길을 떠나셨다. 애써 찾아갔건만 그 아이는 박수영의 아들이 아니였다.

(인성아, 너 어데 있느냐. 장군님께서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지 알고나 있느냐.)

바라시는 마음이 컸던탓에 녀사의 가슴은 저으기 허전하시였다. ...

녀사께서는 걸음을 다그치시였다. 어데라없이 황혼이 깃들고있었다.

길 저쪽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कु며 자동차 한대가 마주왔다. 숨가쁘게 질풍처럼 달려오던 구식의 낡은 차가 녀사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차문이 벌럭 열리며 군복입은 젊은이가 길에 내려섰다. 경위대장 신영준이였다.

녀사께서 그를 향해 미소를 보내시였다.

신영준은 슬쩍 변죽만 건드려도 울어버릴듯 얼굴색이 퍽검해져서 선뜻 말을 못하였다. 그의 얼굴에 마음을 태운 흔적이 력력했다.

녀사께서는 그가 말을 못해도 그의 마음을 아시였다. 잠시 다녀오겠다 하였는데 해가 기울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온갖 걱정을 다하다가 예까지 뒤뚱아오며 불안해했을것이다.

《김정숙동지, 어쩌자구 이렇게...》

억이 막힌 신영준은 무척 지쳤으면서도 웃으시는 어머님모습을 차마 바라볼수가 없어 외면하였다.

《영준동무, 뭘 자꾸 그러세요.

우린 산에서 싸울 때 조국을 해방하고 돌아가면 마음껏 이 땅을 걸어보자고 언약들 했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였지요.》

김정숙동지의 음성이 어느덧 물기에 젖어들었다. 얼마나 다시 밝아보고싶던 그리운 땅이였던가.

이 땅을 찾자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였던가. 그 절절함이 지금도 뼈속까지 스며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뇌이시였다.

《영준동무,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할 주인들이 아직 못다 돌아왔어요.

우린 아직도 많이 걸어야 하지요.》

김정숙동지의 깊고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며 신영준은 할말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불만이였다.

《이쪽으로 오시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는 무작정 녀사를 차안으로 안내하였다.

그이를 모신 차는 되돌아서서 다시금 질풍처럼 달리였다.

신영준이 돌아보니 녀사께서는 어느덧 살며시 눈을 감고계시였다.

(잠이 드셨구나. 얼마나 지치셨으면...)

림춘추동지는 녀사께서 벌써 이러실줄을 알고 그이의 건강을 잘 돌봐드리라고 부디 당부하고 떠난것이 아닐가고 신영준은 생각하였다.

그는 제 할일을 못다한것때문에 괴로와하며 차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몰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잠드신것이 아니였다. 걸을 떠나간 동지들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셨다. 조국을 찾으려고 부모형제들과 친근한 사람들의 품을 떠나 싸움길에 나섰던 장한 그들, 떨어지지 않겠다고 우는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뒤에 남기고 혁명의 길에 나섰던 녀전사들...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동지들인 그들은 자기들의 혈육들이 귀해서, 바로 그 자식들의 웃음을 지켜 죽음도 서슴지 않았다.

한해, 두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그 목소리들이 녀사의 심중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녀사께서는 지금 그들이 누워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태일을 바라보고있는것 같으셨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다 찾으시여 돌보며 우리 혁명의 골간으로 키우려고 애쓰신다. 산지사방에 흩어진 아이들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아직은 청소한 우리 조국에 유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청사 한채 건설하기도 힘들다. ...

농촌길이여서 자동차는 몹시 들추었다. 신영준은 안타까운 눈길로 돌아보았다. 순간 가슴이

저릿해왔다. 뜻밖에도 그이께서 차창밖을 보고계셨던것이다.

신영준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정숙동지,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제 다 찾게 되겠지요.》

김정숙동지께서 생각에 잠기신채 말씀하셨다.

《영준동무, 내가 찾아갔던 집이 인성이네는 아니었지만 난 그들로부터 그들의 처지와 비슷한 일행이 평안도사투리를 진하게 쓰면서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대와 기쁨을 안으신 녀사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다.

신영준은 귀가 번쩍 트이고 가슴이 뜨끈하였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속히 평안도 관내에 그런 아이가 있는가를 수소문해야겠어요.》

그러는 사이 차는 퍼그나 멀리 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저택에 돌아오시니 항일혁명투사 홍선화가 찾아와 기다리다가 편지 한장을 써 놓고 간것이 있었다.

《...김정숙동지.

전 장군님께서 혼자라도 떠나라고 너무 간곡히 말씀하셔서 하는수없이 먼저 떠나요.

김정숙동지, 온천치료를 받아야 할분이야말로 김정숙동지예요.

먼저 가 자리잡고있을테니 꼭 빨리 뒤따라오세요. 만사 잊고 떠나오세요. 홍선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선화동무, 치료를 잘 받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 마음속에는 늘 인성이 있었다.

마침내 평양교외의 대동산골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녀사께서는 이번에는 인성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가슴을 설레이며 곧 알아보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그 애는 이름도 인성이 아니고 빨찌산투사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그 애가 꼭 인성이 같으셨고 그곳으로 마음이 쏠리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영준을 다시 보내시었다. 그가 알아온것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신영준은 그 집 로인이 아이를 숨겨두고는 찾아온 사연을 들을 생각도 않고 무작정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녀사께서는 마음이 초조해지셨다. ...우리가 지금 유자녀들을 찾는것은 선렬들과 한 약속을 도덕적으로 지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혁명의 대를 잇

는가, 못 잇는가 하는, 우리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일이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이 일을 중시하신다. ...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해야 할 일들을 앞당겨끝내고 자신께서 직접 다녀오실 결심을 하시었다.

...어느날 마침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모시고 대동군에 가시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시간을 내어 손주아이를 데리고 로인내외가 산다는 그 골안에 다녀오시기로 하셨다.

곁에서 일꾼들이 날이 어두워오는데 그 산중에 못 가신다고들 만류하였지만 녀사께서는 혼연히 길을 떠나시었다.

×

가까운 곳에 인가 하나 없는 철쭉골은 골짜기가 깊었다. 겨우 알릴가말가 하는 오솔길이 나있을뿐길도 없었다. 새초췌이며 아무렇게나 뒤엀킨 잡관목을 헤치며 김정숙동지께서 골안을 향해 들어가 고계시었다.

그뒤에 녀맹에서 일하는 젊은 녀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힘들어도 떨어지지 말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지.》

녀사께서는 나직나직 노래를 부르시었다. 마치도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것 같았다.

...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 돌아올 때까지 무산자정권인 우리 나라 새로 설 그때면 어머니품속을 떠난 이몸 돌아오렵니다

박수영이와 함께 녀대원들이 부르군 하던 노래였다.

그들은 자기자신들의 수많은 추억을 불러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었다.

전투가 끝나고 마을 한복판에서 연예공연을 할 때 박수영이 중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을사람들이 주먹을 부르쥐고 눈물을 씻으며 투쟁에 떨쳐나서기도 하였다.

박수영은 단두대에 오르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

녀사께서는 열렬하고 섬세하고 굳세인 감정으로 이미 지나가버린 준엄했던 시절의 잊을수 없는 많은것을 어제일처럼 되살려보시었다.

녀사의 모습에는 가슴속에 사무쳐오는 그리움과 엄숙한 기색이 어리었다. 기어이 살아남아 아들을 만났어야 할 박수영은 없고 그가 남기고 간 피줄을 찾아 지금 녀사만이 그가 사랑하던 노래를 부르며 가시는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



그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었다. 혈전장에서 찢기 우먼서도 나뭇기딘 붉은기였고 혁명선렬들에 대한 끝없는 레찬이었으며 장군님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려는 뜨거운 맹세였다.

벌써 끝안에 어둠이 덮이었다. 사위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걸으시었다.

작은 짐승들과 풀벌레들이 풍요한 가을이 지난 간 숲속을 걱정스레 헤매이는 소리가 이따금 알릴 듯말듯 들려올뿐 어데나 정적이었다.

문득 어둠속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다가 사라졌다. 녀사께서는 길 잃었던 사람이 먼 숲속에서 타오르며 손짓하는 우등불을 보신듯 마음이 밝아지셨다.

《불빛이 보였어요! 봤어요?》

녀사께서 녀인의 손을 잡아주시며 즐거우신듯 말씀하시었다.

(박수영동무, 저 불빛이 보이는 곳에 있는 아이가 동무의 아들이었으면! 장군님께서 인성이를 안타까이 찾고계세요.)

상념속의 그 음성은 녀인에게도 들리는듯싶었다.

《김정숙동지, 누구와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나누시지요?》

녀사께서는 어둠에 잠긴 숲을 바라보시며 싱그레 미소를 지으실뿐이었다.

물목이 터진듯 가슴속으로는 박수영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 기관총 잘 쏘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이 환한 박수영이! 어깨춤은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추었던가. 박수장단만 잘 쳐주면 온종일이라도 어깨를 흔들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 장단은 늘 김정숙동지께서 쳐주시었다.

박수영은 뭐니뭐니해도 경찰의 능수였다. 큰 전투를 앞두고 경찰이 필요하면 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불러 직접 파견하곤 하시었다. 그는 틀림없이 상세한 정보를 안고 날새처럼 돌아오곤 하였다.

...

어둠속에서 산길의 방향을 잡느라고 하시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수영에 대한 추억을 버리지 못하시었다.

녀사께서는 박수영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 잘 알고계시었다.

《정숙동무, 내 아들 인성인 잘생겼어.

그 앤 낱자마자 네키로반은 되였다우. 얼마나 환하고 잘생겼던지. ... 목뒤엔 풍알같은 쌍김이 있잖아. ...》

《정숙동무, 오늘은 우리 인성이가 왜 이렇게 보고싶을가. 아마도 지금 그 애가 날 보고싶어 소리치는가봐.》

언젠가 박수영이 얼굴이 새까매서 김정숙동지의 손을 짹 잡았다.

《정숙동무, 인성의 아버지가 공작지에서 체포되었어요. 놈들은 애아버지를 저들의 앞잡이로 꾸미느라고 책동하고있대요.》

간악하고 교활한 왜놈들이 뒤에서 무슨 엄청난 일을 꾸며냈을런지 알수가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성이가 지금 혹시 친일분자의 자식으로 몰리어 고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가 하는 생각에 추억에서 분연히 깨어나시었다.

걸음이 빨라지셨다.

어둠속 먼 앞에서 다시금 불빛이 보이었다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함께 온 녀인도 보았다고 했다.

녀사의 얼굴에 타오르는듯 한 기쁨이 어리었다.

후둑후둑 비꽃이 떨어졌다. 비를 굶느라고 골안이 그토록 캄캄했던 모양이었다. 신영준동무도 비를 맞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때아닌 초겨울 날씨에 비는 또 무슨 비란 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찬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시었으나 곧 아이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시었다.

그 생각은 그 아이가 정녕 박수영의 아들일가, 아닐가 하는 불안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드디어 집앞에 이르시었다. 방안과 부엌에서 불빛이 비치나왔는데 부엌쪽에서 아궁에 나무를 켜어넣는 소리가 들리었다.

《계십니까?》

어쩐지 녀사께서는 그 말씀을 힘들게 하시었다. 부엌안은 갑자기 쥐죽은듯 조용해지었다.

아무리 기다리셔도 다시는 인기척이 들려오지 않았다. 녀인은 안타까와 녀사의 모습을 보았다.

녀사께서는 찬비에 몸을 떠시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을 부르시었다.

《거 누구요?》

좀 있다가 로인의 특한 응답소리가 울려나왔다. 녀사의 모습이 밝아지셨다.

《아버님을 만나뵈우러 왔습니다.》

《...》

안에서는 또다시 한동안이나 응답이 없었다. 함께 온 녀인은 어쩔줄 몰라했다.

녀사께서는 비에 젖은 옷을 토방에서 쥐어짜시었다.

《로인님, 제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로인의 추상같은 소리가 토방으로 울려나왔다.

《원래 난 밤에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수다. 어둠속에 이런 산속으로 웬 녀인이 다닌단 말이요, 무슨 일로?》

함께 온 녀인이 부엌을 향하여 무슨 말인가 하

려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로인의 마음이 이해되어 녀인을 말리며 평양에서 아버님을 만나뵈우러 왔다고 하시었다.

안에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며칠전에 평양에서 손님이 왔다갔지요? 아무래도 제가 아버님을 만나뵈워야 할것 같아 왔습니다.》

녀사께서는 척척하게 비에 젖은 옷자락을 탁탁 손으로 터시었다.

로인이 광술가치에 불을 붙여 화불처럼 추켜들고 밖으로 나왔다. 온몸에 분기가 가득히 실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로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었다.

《아버님, 오늘 꼭 아버님을 만나야했기에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로인님을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로인은 일행들의 모습을 살펴보고나서야 볼부는 소리를 했다.

《내 곳은밤에 찬비를 맞으며 오신 손님을 문전에서 돌려세웠다가 천벌을 받을것 같아 문을 열어드립니다.》

로인은 방안으로 손짓을 했다. 녀사께서 녀인을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방안은 뜨뜻했다.

집에는 할머니도 아이도 없었다.

로인이 화대에서 할머니의것인듯 한 흰 옷들을 내려놓아주었다.

녀사께서는 방이 더워 곧 마를것이라고 사양하시고는 품에 깊이 건사하였던 자그마한 보파리를 따뜻한 곳에 정히 떼어놓으시었다.

로인이 푸접없이 성냈다. 《그때 왔던 어른이 우리 아이 이름이 인성이이고 박수영의 아들이 아닌가고 물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왜 사람의 말을 믿지들 않소?》

로인은 범접하기 어렵게 엄했다. 마음은 뒤틀려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열백번을 또 찾아온대도 속속 쫓아버릴것이 뻔했다.

《로인님, 전 누구에게서 인성이라는 아이를 빼앗으러 오지 않았습시다. 우리 동지의 아들 인성을 꼭 찾아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다니기는 왜 찾아다니오. 어서 몸을 말리우고 돌아서시오.》

로인은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앞에 앉더니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아이는 어데 갔을가. ... 정녕 오늘도 장군님께 기쁨을 안고 돌아갈수 없단 말인가. ...)

녀사께서는 몸이 추운것을 느끼시었다. 부엌에서 가마타는 냄새가 났으나 로인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아버님, 빈 가마에 불을 때시지 않습니까?》

녀사께서 사이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시었다. 당황한 로인이 급히 일어섰다.

《제가 물을 붓겠습니다.》

녀사께서는 가마우에 얹어놓았던 바가지로 물독의 물을 떠 가마안에 부으시었다.

로인은 태연해지려고 애쓰며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았다.

《아버님, 제가 불을 때지요. 옆에 앉으셔서 말씀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로인은 아무말없이 아궁앞에서 물러나 바람벽밑의 한쪽 턱에 걸터앉았다.

녀사께서는 아궁에 나무를 넣으면서 마음을 기울여 말씀하시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새 조선을 건설하시면서 희생된 항일투사들의 자녀들을 찾게십니다. 유자녀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찾아내어 그 애들이 제 부모들의 뜻을 잇도록 키우려고 하십니다.》

로인의 얼굴에서 분명 경련이 일었다. 눈빛이 번쩍거리고 손이 알릴듯말듯 떨렸다.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아이들을 다 찾지 못해 마음쓰십니다. 장군님께서 문득문득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거나 한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곤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녀사의 음성이 저으기 갈리시었다.

헛기침을 낚은 로인이 일어나 부엌 한구석에서 감자를 꺼내어 큰바가지에 담았다. 그것을 경황없이 물에 씻었다.

녀사께서는 감자를 가마에 넣고 알맞추 불을 조절하시었다.

아궁에서 나무타는 소리가 류별나게 들리었다. 불이 좋아서인지 인차 감자 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녀사께서 로인에게 한식술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셨다.

《아버님, 감자 익는 냄새가 참 좋군요.

산에서 싸울 때는 감자도 참 귀했답니다.》

녀사의 감회어린 모습을 지꼈게 바라보던 로인이 그럼 직접 산에서 왜놈과 싸운분인가고 물었다. 녀사의 모습을 살펴보는 로인의 눈길에는 끈지게 파고드는데가 있었다. 아니, 어찌보면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도 없는듯 돌처럼 덤덤해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속내를 함부로 내비치지 않는다.

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추억에 잠겨 말씀하시었다.

《아버님, 우리 빨찌산에 박수영이라고 얼굴이 잘나고 체격이 그췌한 녀투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무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총 잘 쏘

고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녀사의 가슴속에 박수영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랐다.

《수영동무는 늘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정찰을 나갔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장에 나가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인은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이때 로인의 심장의 모지름이 내는 신음소리를 감각하시였다.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녀사의 가슴속에는 질정할길 없는 기대와 불안이 차올랐다.

《박수영동무는 빨찌산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정찰에 나갔답니다.》

그는 사형부에 마지막보고를 올리고 놈들에게 체포되어 그 마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로인이 덤덤히 물었다. 《그곳이 어느 마을이었소?》

《림강현 왕가촌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앞뒤로 산이 막혀있고 골안의 한복판으로 작은 내물이 흐릅니다. 인가가 한 80여호 되지요. 오른쪽 입구엔 왜놈들의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녀사께서는 로인이 숨쉬기 힘들어하는것을 다시금 느끼셨다.

하지만 로인은 여전히 무표정하였다.

《그 마을을 어떻게 그토록 잘 아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후날 장군님을 모신 부대가 비밀리에 박수영이 희생된 그곳에 일부러 들린적이 있다고 하시였다.

로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녀사께서는 로인의 마음의 미세한 파동들을 깨달으시며 손안에 진땀을 쥐시였다.

《박수영동무의 남편도 빨찌산지하공작원이었는데 그만 공작지에서 왜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적들은 그들부부가 남긴 피줄을 없애려고 그 애의 아버지가 변절했다고 헛소문을 돌리였습니다. 인성이가 보호를 못 받도록 꾀한것입니다. ...》

빨찌산투쟁을 하던 그때에도, 해방된 지금도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아들이 걱정되어 찾으셨으나 아직도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로인이 드디어 자기도 해방전에 왜놈에게 사형당하는 그런 녀자를 보았다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궁의 불을 헤쳐놓으면서 이번에는 박수영의 아들 인성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다.

《아버님, 전 박수영동무가 늘 살뜰히 속삭이던 말을 통해서 인성이에 대해 퍼그나 알고 있습니다. ...》

그 앤 낱자마자 네키로가 넘었습니다. 제 부모를 닮았을테니 눈이 맑고 살이 희어서 복스러울것

입니다. ...》

박수영동무는 그 애의 목뒤에 콩알만 한 쌍김이 있다고 했습니다. ...》

로인이 지그시 눈을 감으며 몸을 가누느라고 모지름을 썼다.

녀사께서는 한결 더 밝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아버님, 이런것도 유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 엄마는 걸을 때 오른팔의 활개짓을 약간 더 크게 하군 했습니다. ...》

로인은 언제부터인가 녀사의 옆에 가까이 다가앉아 듣고있었다. 알것을 다 알았은즉 안심한다는 듯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표정이 안온하고 부드러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로인의 눈이 축축히 물기에 젖어올랐다.

녀사께서는 세상 쓰고단 풍상을 다 헤치며 살아왔을 로인의 주름 많은 얼굴에 맺히는 눈물을 닦아드리고싶으셨다.

그이의 가슴속에서도 쿵쿵 먼 우뢰가 울려오는 것 같으셨다.

로인은 그릇에 삶은 감자를 담더니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방에 마주앉자 로인은 주섬주섬, 그러면서도 격하게 말했다. 《내 그럴것 같아 아이이름을 바꾸고 조국에 나와 이 산골에 들어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왜놈들이 아버지를 변절자라 해놓았으니 나라가 해방되었으나 근본을 밝혀줄 도리가 없었은즉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친일파라면 들구패는 판인데.》

녀사의 눈에서도 형언할수 없는 빛발이 넘쳐났다. 놀라움이랄지 따뜻함이랄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꼭 그럴것만 같아 찾아왔건만 정작 그런 소리를 듣고나니 너무도 놀라왔고 심장은 높이 뛰기 시작하였다.

《로인님, 박수영의 아들을 키우는 사람은 고생이 무척 많으셨을것입니다. 왜놈세상에서는 인성이가 희생된 박수영의 아들이 아닌것으로 감추어져야 하니까 얼마나 고충이 컸겠습니까. 그러자니 오랜 세월 정붙이고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기도 하며 별의별 고생을 다 하셨을것입니다. 때로는 왜놈이나 앞잡이의 의심을 받아 붙들려가 매를 맞았을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입힐것이 없어 로인님들의 옷을 잘라 입혔을것이고 로인님들은 굶으면서 아이만을 먹여 잠재웠을것입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마음고생 끝날 날이 없었을것입니다. ...》

녀사께서는 목이 메여 자주 말씀을 끊으셨다.

로인의 얼굴에서 뿌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을

취여짜는 소리로 터쳐놓았다.

《어떻게… 뉘시길래… 이 세상이 모르는 일을… 이토록 잘 아십니까!》

녀사께서도 눈앞이 흐려지셨다.

로인이 내쳐 말했다. 《내 이제는 마음놓고 세상에 소리쳐 말합니다. 우리 인성이는 리인성이고 어머니는 박수영, 아버지는 리성하입니다. 인성이는 자랑스런 빨찌산투사의 아들입니다.》

로인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줄기지어 흘러내렸다.

녀사께서는 조용히 일어서시었다. 이런 날을 기다려 굶은 길, 마른 길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신 녀사께서는 더워진 마음을 달랠길 없으시여 고개를 숙이시었다.

로인이 격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도 그 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것이 인간이라는데를 알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애를 어떻게 함부로 내놓을 수 있었겠소. 그리구 우린 이젠 이 아이에게 내 피줄처럼 정이 깊어졌습니다.》

진통을 이겨내듯 잠시 잠자코 있던 로인이 점차 현현해지었다.

《내 이제는 마음놓고 죽을수 있습니다. 험난한 왜놈세상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었던것은 인성이를 맡길만 한 품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로인이 일어나 녀사앞에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말리어 앉게 하고 단정히 앉으시었다.

《아버님, 인성이는 어느때나 할아버지의 손자로 남아있을것입니다. 도시에 나가 학교를 다니다 해도 방학이면 할아버지를 찾아올것이고 크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것입니다. …

이 애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며 나라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 인성이를 맡아키워주신 할아버지는 애국자이고 그 마음이 일본놈을 반대해 싸운 혁명가나 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인앞에 허리를 굽히시었다.

《아버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악착한 왜놈세상에서 인성이를 지켜주신 아버님께 빨찌산녀인들의 이름으로, 혁명하는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심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로인은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그리고 귀인앞에 불손한 자기를 사죄했다.

《녀인의 몸으로 나라를 찾자고 손에 총을 잡고 싸움터에 나섰던분에게 제 백성으로서 도리어 감사를 드립니다.》

로인은 무릎을 꿇으려고 하였다. 녀사께서 또 말리셨다. 그리고 누가 다칠세라 씨암닭처럼 아이를 품고 지켜온 로인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

려는듯 존경의 눈길로 보시었다. 그 눈에 물기가 가득했다.

로인은 《여기에 인성이 어머니가 온것 같구만요!》하고 눈을 습벽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속에서도 젖지 않게 고이 간직해 가지고온 보파리를 푸시었다. 그안에서 잘 지은 연회색의 로인바지저고리 한벌이 나왔다. 그것은 은은한 빛을 뿜었다.

녀사께서 옷을 펼쳐 기장을 보이며 인성이 할 아버지에게 이 옷이 맞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었다.

뜻밖의 일에 눈이 흐렸던 로인은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이런 옷은 인성이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정녕 지을수 없습니다. 맞고말고요, 신통히… 꼭…)

녀사께서 하많은 생각을 물어두신채 미소를 지으시었다.

잠시후 로인이 서운해했다. 지금 여기에 인성이 없다는것이였다. 신영준이 왔다간 후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웃군에 사는 동생네 집에 로친과 인성이를 데려다주고 들어온 길이라고 하였다. 이 골안을 누구도 모르게 아주 떠나려던것이였다.

녀사께서는 심장에 기쁨이 가득차오르는것을 느끼시었다.

(장군님, 오늘에야 박수영의 아들을 장군님앞에 세워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새벽녘에 녀인을 데리고 로인과 함께 인성이를 찾아떠나시었다. 몇시간이 지나 자그마한 초가집에 들어서시었다.

녀사께서는 할머니가 인성이를 찾아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계셨다. 먼곳으로부터 차츰 쿵쿵 땅을 울리며 달려오는 발걸음소리가 들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높뛰는것을 달래기 힘들었다.

《할아버지!》 높이 소리치며 세차게 들어서는 아이의 뚱뚱한 목소리가 온 마당에 들리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그 목소리가 녀사께는 무척 귀익은듯 하시었다.

어느덧 문이 벌컥 열리었다.

자그마한 사내아이가 문을 반쯤 열어잡고 놀란 모습으로 서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놀란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시었다. 그 눈매, 그 입모습, 그 귀바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도 녀사께서는 박수영의 눈섭 한오리, 숨결까지도 그대로 기억하고계셨다.

아이의 모든것은 박수영의것이였다! 아이의 목뒤에는 보나마나 콩알같은 쌍검이 있을것이다.

《박수영동무!》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내어 불러보셨다. 그리고 더는 그 애를 바라보기 힘드신듯 어깨를 떨며 한 순간 눈을 짙 감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성의 손목을 잡으시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시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인성을 오래오래 살펴보시다가 기쁨을 참을수 없으신 듯 크게 웃으시었다.

《원 이런, 어디서 뚝 떨어진 보배냐! 달덩이처럼 환하구나.》

장군님께서 인성을 품에 짊 안으시고 목메여 혼자말씀을 하시었다.

《그렇게 찾았는데… 어데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이윽해서야 그이께서는 먼길을 다녀오신느라고 피로에 젖으시고 수척해진 녀사의 모습을 새겨보시더니 수고했다고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녀사께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라면 이제 천리길을 다시 가야 한대도 또다시 흔연히 떠날듯싶은 모습이시었다.

《정숙동무는 어머니여서 인성을 찾을수 있었을가. …》

장군님께서 생각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어머니!…) 녀사께서는 그 말씀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것을 느끼시었다.

(장군님, 저는 아직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과 사랑의 세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아이들을 찾으려간 림춘추가 동북땅을 떠났다는 전보가 왔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 방에 돌아오시니 책상에는 홍선화가 료양소에서 온천이 매우 좋다는 편지와 온천치료권 한장을 보내온것이 있었다.

×

렬차는 평양입구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장쾌한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었다. 그 힘찬 소리는 강산을 뒤흔드는것 같았다. 이 렬차에 다름아닌 조국으로 돌아오는 림춘추일행이 앉아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차를 평양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키라는 국의 지시가 있어 각 철도역 일꾼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 구역을 통과시켜주곤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부산히 들레었다.

림춘추도 아이들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욱 안정되지 못하는것을 느끼며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낮익은 평양의 거리가 눈에 띄었다. 그는 어떤

지 자기가 이곳으로 몇십년만에 돌아오는것 같아 뜨거운 눈길로 차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온몸으로 조국땅을 감수하고있었다. 이 땅은 이제 비우고 바람불면 젖을세라 아이들의 몸을 감싸안아주고 철따라 봄내, 여름내 대지에 익힌 향기로운 열매들을 식탁우에 놓아줄것이다.

즐거움과 평온과 존엄을 다 지켜주려고 어머니 조국이 품을 놓아 이 애들을 찾아들었다.

그의 눈앞에 어쩐지 찬바람 부는 저택의 대문가에 나와서서 아이들을 기다리고계시는 김정숙녀사의 모습이 어려와 가슴속이 뜨겁게 굽이치었다.

렬차가 서서히 역구내에 들어서고있었다. 밖에는 별로 바람이 세쳤다.

홈에 몇사람이 마중나와있었는데 그들의 한쪽앞에 옷자락을 찬바람에 날리며 서서 초조히 렬차쪽을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유묘하게 보이였다.

(녀사께서 나오셨구나! 이 추운 날!)

그러자 대뜸 그토록 부탁하고 떠났건만 아직도 료양소에 떠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가슴을 에이였다.

자신의 건강은 돌볼새도 없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신들메를 조이고 어려운 행군에 또 행군을 이어가시는 녀사의 강의한 모습이 림춘추의 눈앞을 짙 메웠다.

그는 김정숙동지를 부르며 승강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내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얼굴에 정을 함뿍 담고 다가와 먼길을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다고 아이들을 한명 한명 받아안으시었다.

림춘추는 반가운 중에도 어찌하여 아직 온천에 떠나지 않으셨는가 묻고싶었으나 차라리 묻기를 그만두는편이 마음 편할것 같아 그만두었다.

아이들이 김정숙동지와 림춘추의 주위를 둘러섰다.

녀사께서 그 애들의 모습을 한시선에 둘러보시었다. 부모없이 동북땅을 헤매이느라고 여윈 가냘픈 몸이며 색이 바랜대로 바래고 해진 옷자락들이며 발가락이 비죽이 나오고 운두가 꺼진 신발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무슨 말씀보다 먼저 아이들을 끌어안으시었다.

결에서 림춘추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동북에서 너희들을 찾는 광고를 내도록 해주신 김정숙어머님이시다!》

그는 많은 말을 하고싶었으나 목이 메여 더 할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녀사께서 올면 몸이 언다고 댁에서 가지고 나오신  
목수건을 씌우고 덧옷들을 입히시며 달래시었다.

한 아이, 한 아이 감싸안은 녀사의 모습을 보면서  
서 림춘추는 뜨거운 음성으로 알려드렸다.

《이 큰 아이가 〈림포수〉의 아들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무척 놀라며 기뻐하시었다.

《〈림포수〉라구요? 그럼 이 애가 근거지에서  
서 〈림포수〉가 업고다니던 영민이예요?》

그이께서는 잊을수 없는 《림포수》의 부드러운  
목소리며 말을 할 때 버릇처럼 두손을 맞잡던 모  
습을 한꺼번에 생각하시며 영민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시었다. 찾으면 이제라도 《림포수》가 두  
손을 맞잡고 병긋 웃으며 앞에 나타날것 같아 가  
슴이 아프셨다.

림춘추가 뒤이어 저 애는 강억세의 아들 강일이  
고 저 애는 금순동무의 조카아이이고… 하면서 일  
일이 알려드렸다.

녀사께서는 《너는 강억세의 아들 강일이.》,  
《너는 금순동무의 조카.》하고 되받아외우시며  
기쁨을 참지 못해하시었다.

림춘추는 그만 녀사앞에 《김정숙동지께서 자나  
깨나 못 잊어하시던 조카입니다.》하고 그이의 조  
카를 세워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멍멍해  
지었다.

의아한듯 림춘추의 표정을 보신 녀사께서 부드  
럽게 웃으시며 큰아이에게 소리치셨다.

《어서 집으로들 가자! 장군님께서 기다리신다!》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목을 쥐고 또 서로 같은  
또래끼리 손을 쥐며 떠들썩하였다.

갑자기 김정숙동지의 맑은 웃음소리가 높이 떠  
올랐다. 그이께서 사내아이를 등에 업으셨는데 그  
애가 등에서 마부인것처럼 들썩거려 어머니는 그  
토록 유쾌하게 웃으시는것이였다.

림춘추는 슬며시 눈을 감고 귀기울이였다. 높이  
떠오른 랑랑한 그 웃음소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  
았고 푸른 들로 올라가며 커지는것 같았다.

(녀사의 행복은 이런것이구나. 언제면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실가, 언제면…)

×

우리 조국 력사의 드바쁜 날과 달이 흘러갔다.  
1947년 10월 12일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개  
원식이 진행되였다.

학원마당에는 새 제복을 입은 전체 원아들이 모  
여섰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주석단성원들이 올라갔다.

일꾼들은 김정숙동지를 주석단에 모시려고 하였  
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굳이 만류하시고 주석단  
옆 객석에 서시여 원아들의 끝끝한 모습을 하염없

이 바라보시었다. 이제는 여기에 장군님의 미더운  
전사들— 새로운 박수영, 새로운 림포수, 강억  
세… 들이 많이도 생겨났다.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엄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리였다.

개원식장은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었다.

그날 저녁, 림춘추는 김일성장군님 댁으로 찾  
아갔다. 댁에는 벌써 안길이며 김책동지들이 와  
있었다.

벽찬 마음으로 즐거운 이야기들을 끝내고 다들  
돌아갔을적에 한사람 림춘추가 남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발이 날리는 창가에 서서  
밖에 눈길을 주고계셨다. 림춘추도 그이의 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에 잠긴 정원에는 하늘중천에서 내려오  
는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마치도 정원의  
숲은 나직나직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있는것  
같았다.

청청한 허공에서는 이 땅과 속삭이듯 무수한 흰  
별들이 내려다보았다.

림춘추는 어쩐지 녀사의 마음이 어느 먼곳에 있  
닿아있는것 같아 선뜻 말을 하지 못하였다.

녀사께서는 등뒤에 림춘추가 서있는것을 감촉하  
고계시었다.

《림춘추동지, 저녁이 참 아름답습니다! 별들이  
별로 더 반짝이는것 같아요!》

심중깊이에서 북받쳐오르는 그이의 목소리는 이  
저녁의 아름다움과 하나로 어울려 가슴에 스며들  
었다.

그 아름다움을 깨뜨릴가 저어하듯 림춘추는 아  
무런 웅대도 못하였다.

녀사께서 여전히 창밖의 밤하늘을 보시며 누군  
가와 마음을 나누시었다.

《저 별빛은 장군님을 따라 조국 찾는 길에 나  
섰던 우리 동지들의 뉘티랍니다.

별들이 이밤엔 시름놓고 잠들수 있을거예요.》

이윽고 창가에서 돌아서신 녀사의 깊은 내면에  
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불길처럼 내비치고있  
었다.

(환희에 넘치셨구나!)

림춘추는 가슴이 저려들었다.

(이런 날 그이의 조카애마저 찾아드렸으면 얼마  
나 더 기쁘실가.

…녀사께서는 어쩌면 이런 날에도 단 한번  
자신의 아픈 마음을 헤쳐놓지 않고 참을수 있  
으실가. …)

후일 림춘추는 녀사의 조카를 찾는 광고를 동북  
각지에 뱃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전에 그리운 혈육을 만나지 못하였다.



## 길에 대한 생각

김 준 구

취재길을 떠나면서 나는 내가 써야 할 기사  
제목의 미리부터 생각해보았다. 얼핏 머리속에 떠오른 제목이 나를 흥분시켰다.

《하늘길을 열어놓은 녀성설계가》.

모험을 즐기는 몇몇 등산객을 내놓고는 누구도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묘향산 하비로에로의 길을 설계하여 지난해 그 길우에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도로설계가들 중의 한사람인 녀성설계가, 그 옛날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서야 내렸다는 그 상상봉으로 땅우에 발붙인 사람들이 오를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설계가에게 맞춤형 기사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산악등산도로를 설계하여 이제는 묘향산을 찾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하비로까지 오를수 있게 한, 묘향산 제일봉에로의 등산길을 설계한 그 녀성은 강선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진 변이 나는 해에 태어난 수많은 영웅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나의 머리속에는 써야 할 기사의 글줄들이 연줄 연줄 떠올랐다. 젓먹이어린애가 달린 가정부인의 몸으로 집을 떠나있으면서 그가 겪은 크고작은 애로와 고충...

묘향산의 일만경치에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갈세라 돌 하나, 나무 한그루 다치지 않고 몇십리구간의 가파로운 산길을 에돌아 뚫으며 헤쳐간 나날들과 고심어린 탐구의 밤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묘향산에 흔하디흔한게 기암괴석인데 바위 하나를 위해 설계를 수정한다는것이 말이 되느냐며 막아나서는 젊은 돌격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상처를 입은 몸으로 험한 벼랑길을 몇십번이나 헤쳐올 강인하고 담찬 녀성의 모습을 영화의 장면처럼 떠올리며 나는 이번 기사의 성공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녀인을 직접 만나는 순간 머리속에 굴러온 모든 상상이 빛나갠음을 깨달았다.

이제 30대를 금방 넘긴듯 한 얼굴에 수집음을 담고 손에 천 비례자를 만지작거리는 아련해보이는 그에게서는 내가 생각했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다운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수 없었다.

이 녀성을 지금처럼 설계실의 제도판앞에서가 아니라 길가나 혹은 상점에서, 주룩지구의 어느 현판아래서 어졌더라면 두번 다시 상기해보았을가.

《전 지금도 꿈을 꾸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아안을줄은...》

눈길을 내리칸채 조용히 속삭이는 그의 말속에는 해놓은 일에 대한 긍지보다도 오히려 송구스러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울림폭포 주변에서 새 폭포를 찾아냈지만 길이 없어 장군님을 모실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 나라의 명산과 절경이 천이면 뭇하고 만인들 뭇하겠습니까.

정말 종이우에 선을 그은것밖에 없는 제가 이런 영광을 받아안으리라고는...》

길을 설계하는 녀인은 내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었다.

소박하고 고지식한 우리 시대의 모든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이 녀성에게서 그 어떤 자기 자랑을 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긍지, 받아안은 행복과 영광에 대해 녀성특유의 다정다감한 심정이 담긴 어떤 눈물나는 사연을 들으리라 기대했었다.

나는 미리전에 머리속에 써두었던 글줄들이 너무도 무색해지는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날 하비로에 오르시여 이제는 인민들이 차를 타고도 올라올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자신께서는 젊으신 시절에 여기에 한번 오르신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험치 않았다고, 수령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건설한 등산도로에 와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답니다.》

가슴에 금별을 빚내이는 나의 주인공은 말끝을 맺기 전에 눈물을 흘리었다.

하비로등산길.

과연 우리 장군님께 것처럼 크나큰 기쁨을 드린 그 길이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이 닦아놓은 길이었던가.

나에게는 눈보라 사나운 굽이 험한 철령과 가파로운 오가산령을 넘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차가 못 가면 밀고서라도 갑시다. ...

이 나라에 뻗어있는 모든 길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그 자욱을 따라 열려진것이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초행길을 걸으시고 그뒤를 따라 천만군민이 나선 그 길이 강성대국으로 향한 길이 아니던가.

《종이우에 선을 그은것밖에 없는 저에게...》

이 녀성이 도면우에 그린 길을 강성대국의 큰 길에 이어주신 우리 장군님.

우리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걷고있는 길은 자신의 운명과 련결된 그리고 자신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길이며 그 길은 곧 강성대국의 길과 잇닿은 길이다. 그 길에 영광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것을 나는 오늘의 취재길에서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의 넓고넓은 길은 이렇게 열리는것이 아니던가.

나는 《하늘길을 열어놓은 녀성설계가》라는 기사제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녕 그 《하늘길》은 몇몇 사람의 손끝에서 설계된 길이 아니었다. 이 나라 인민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땅우의 선남선녀로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의지와 손길에 따라, 그이의 끊임없는 로고와 사색에 의해 하늘길이 열린것이다.

사랑하는 이 나라 인민의 애국과 헌신의 땀방울들을 강성대국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에 보석처럼

빛내주고계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계시기에 머나먼 이역땅에서 달린 마라손녀왕의 105리주로도 대통로로 잇닿아진것이며 구봉령일가의 남모르는 수고도 별무리마냥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강성대국으로 향한 그 넓은 길에는 지하막장의 수직갱도도 있고 풍랑세찬 바다길도 있으며 감탕이 발등을 적시는 포전길도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공민들이 걷고있는 그 길을 모두 합쳐 하나의 큰길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종이우에 선을 그은것밖에 없는》나의 주인공도 묘향산 상상봉에 금별을 빛내이며 시대의 영웅으로 설수 있는것이 아니던가.

취재길에서 돌아오는 나의 머리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걸어 강성대국의 창창한 대문으로 가는, 장군님께로, 장군님께로만 향해진 이 나라 천만군민의 수많은 길들이 합쳐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길이 떠오른다.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 투사의 백포자락

박 상 철

백두의 흰눈을  
그대로 담았는가  
삼지연못가의 푸른 물결우에  
은빛으로 비낀 투사의 백포자락

넓은 한점으로야  
훈풍이나 막을수 있으련만  
장백의 엄혹한 설한풍속을  
총대와 함께 노도쳐온 저 펄럭임  
소리없이 더운 가슴 흔들어라

우등불조차 피울수 없었던  
피어린 싸움의 나날  
투사들의 언땀을 감싸준  
빨찌산 숙영의 천막이었던 너  
왜놈들에게 불벼락을 터친  
위장포였던 너

한흙의 미시가루를 받아안고  
언불을 적시던 걱정의 흐느낌이  
너 자락에 스며들어  
사령부를 결사옹위한  
철의 갑옷된것 아니냐  
철의 방패가 된것 아니냐

모든 시련을 웃음으로 휘여잡은  
너 자락밑에서 심장이 불타지 않았다면  
어찌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헤쳐올수 있었으랴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온 오늘에도  
어찌 이 하늘아래 저렇듯  
소리치며 휘날릴수 있으랴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조국애로 뚫음치던 투사들의 숨결인듯  
세월의 모진 비바람에 씻길수록  
간고한 혁명의 먼길을 걸을수록  
하얀 빛 고이 간직한  
투사들의 한마음 순결의 세계여!

오, 티 한점에 덮을수 없고  
흰빛 한점 내린적 없이  
선군태양 빛나는 이 땅에서  
한여름 피약별에서도 녹지 않는 너  
백두의 흰눈 영원히 없고 날리는  
투사의 백포자락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감사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희천발전소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

평론

## 저창한 시대정서가 울려 퍼지는 희천의 서정

—시초 《희천땅의 메아리》를 두고—

김봉민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활짝 열리고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의 거세찬 폭풍이 온 조국땅에 태동하는 오늘의 선군시대에는 우리 시인들에게 들끓는 현실을 감동적으로 노래할수 있는 풍부한 서정의 샘물을 끝없이 퍼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

시대를 노래하고 시대를 보여주며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시문학의 자랑스런 성과,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바라며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 그들의 가슴속에서 뿜어내는 애국의 열의와 불타는 기백, 고난속에서도 웃을줄 아는 혁명적량만을 힘있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노래한 시초 《희천땅의 메아리》의 성과도 함께 깃들여있다.

무한히 격동적인 주정토로와 강렬한 체험의 서정으로 우리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위대한 모습을 통감한 시인들의 강렬한 정신세계를 밝히고 희천의 변천되는 면모를 통하여 강성대국으로 휘황찬란해질 조국의 래일을 시적으로 절감하는 시인들의 아름다운 서정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한 시초는 작품에 반영된 높은 시대성과 풍만한 형상력으로 하여 명실공히 시대의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1

세상에 믿음보다 더 크고 귀중한것은 없다.  
우리 인민은 력사상 그 어느 인민도 받아보지 못했고 지너보지 못했던 커다란 긍지를 지니고있다. 그것은 바로 수령은 인민을 자신처럼 믿고 인

민은 수령을 하늘처럼 따르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세계로 발현되는 믿음의 마음이다.

시초안의 시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한광춘 작)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있는 믿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이 감수하는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철학적으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희천의 면모, 나아가 우리 조국이 펼칠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믿음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먼저 미더운 병사들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10년 또 10년  
녕원의 언제를 쌓아올린  
미더운 군위부대—  
장군님은 수고많은 부대장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

너무도 할 말이 많으시였지만 그이께서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한마디! 하다면 어찌서 시인은 이 말씀을 빌어 자기의 주정을 그토록 격렬하게 터뜨리고있으며 그 말씀 한마디로 시형상전반을 이끌고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 짧은 한마디 말씀속에 그이께서 우리 병사들에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의 세계가 그대로 집대성되어있고 그 말씀속에 거창한 시대의 진리가 강렬하게 굽어치고있기때문이다.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무슨 말을 더하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애국자, 가장 위대한 령장의

가슴속에 이 지구가 열쪼각난대도 경에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확신으로 온 가슴을 불태우는 전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을진대... 하여, 그이의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삶을 둔 매 인간들은 새로운 값 높은 인생의 좌표를 똑똑히 새겨넣었다.

《희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정녕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병사들의 가슴에 거대하게 치솟은 산같은 믿음의 무게였다. 그것은 틀어진 주먹에 피줄이 일어서는 그이께서 주신 힘의 용솟음이었다. 그것은 미더운 병사들의 심장속에 래일의 승리를 벌써 안아볼수 있게 한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이었다.

하기에 시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인간들,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진 우리의 미더운 근위병들의 앞길은 그 어떤 천연암벽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그 억센 손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그 어떤 사나운 강줄기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승화된 서정으로 밝히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계속하여 강성대국의 돌파구가 열리는 이 땅에 병사들이 불붙는 가슴에, 피끓는 가슴에 심장처럼 지니고온것은 오직 희천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장군님의 믿음어린 말씀 한마디였다고 걱정애 넘쳐 토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인건설자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거대한 믿음의 세계였고 시대의 기본정서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믿고 따르는 길에서 사랑도 희망도 행복도 찾는 선군시대의 강렬한 시대정서—믿음!

령도자와 인민간에 오가는 믿음의 세계, 이것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끄떡없이 받쳐주는 억센 기둥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한길로 굴함없이 나가게 하는 신념의 량식이며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서싸울수 있게 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또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 우리가 살고 후손만대의 미래와 행복이 담보되며 우리의 혁명위업의 승리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의 서정세계를 통하여 받아안은 믿음의 철학이다.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변화발전해가는 내 조국의 면모, 정녕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서—믿음에 대한 뜻깊은 철학적해명을 통하여 밝힌 시대의 모습이었고 이것으로 하여 시초는 자기의 훌륭한 예술적감화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다.

## 2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를 희천으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를 믿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에 보답해야 하지 않는가.

믿음에 대한 보답! 그것은 바로 기어이 우리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다지는 철의 의지이며 맹세의 일념으로 발휘되어야 할 일본새이다.

하기에 시초안의 시 《여기로!》(차영도 작), 시 《격전장의 웨침》(문용철 작), 시 《에돌아갈수 없는 땅》(장명길 작)의 작품들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보답해가는 시대의 모습을 정서적체험으로 충만된 서정적형상의 메아리로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우선 시 《여기로!》에서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믿음을 받아안고 그 믿음에 보답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동된 심리를 감동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작품의 품위를 한결 높이고 있다.

이것은 시에서 노래된 여러가지 다각적이면서도 생활적인 형상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이러한것이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적라렬과 추상적인 웨침, 딱딱한 수식사의 람용으로가 아니라 서정적으로 다듬어지고 시대적으로 가장 적중한 느낌을 주는 정서적표현속에서 감동적으로 노래됨으로써 믿음과 보답으로 빛나는 시대의 기본정서를 뜻깊게 밝히고있는것이다.

다음시 《격전장의 웨침》에서는 믿음에 대한 보답의 일념으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는 건설장에 대한 서정적화폭을 펼쳐보이면서 건설장에 울려퍼지는 《당원들 앞으로!》의 힘찬 구호속에서 메아리치는 시대의 기본정서를 의미심장하게, 뜨겁게 밝혀주고있다.

시 《에돌아갈수 없는 땅》에서도 역시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시대의 기본정서를 서정적으로 파헤치는데 서정의 초점을 맞추고있다.

시에서는 어머니조국의 부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장군님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병사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을 노래하고있다. 하여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리고 시대의 숨결이 약동하는 이 땅에서 시대의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시대의 흐름을 절감한 조국의 참된 아들들, 이런 병사들은 이 땅을 그냥 에돌아갈수 없었다는것을 상징적의미로 부각시키고있는것이다.

복무의 기나긴 나날 심장속에 조국을 안고살아온 병사, 하기에 그는 힘겨운 건설장마다에서 너무도 진한 땀으로 맺어온 조국과의 인연을 여기 희천땅에서 외면할수 없었으며 희천으로 부르는 시대의 부름에 도리질할 권리가 없었다. 그래서 병사는 이 땅을 에돌지 않았고 여기서 조국이 준 새로운 믿음에 기꺼이 보답해갈 불타는 맹세속에 배낭을 무겁게 풀었으리라.

이렇게 한 제대군인병사의 절절한 체험세계를 독자들에게 의미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시에서는 계속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주정세계를 《여기 희천땅

에 새기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거룩한 자옥을/ 병사는 에돌아가지 않았다!/ 에돌아갈수 없었다!》는 양양된 서정으로 더욱 상승시키고있다. 하여 이런 조국의 참된 아들들이 건설해가는 이 땅의 기적, 조국의 아들들이 펼쳐가는 위훈과 혁신의 불씨들이 승리의 보고가 될 그날을 앞당기게 되리라라는 시대의 진리를 감동깊게 천명하고있다.

이렇게 시초에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해갈 일념으로 불태우는 전체 조선인민의 시대적정서를 그토록 훌륭히 일반화함으로써 믿음속에 높아가는 선군시대의 메아리, 맹세의 메아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었다.

### 3

지구를 휩쓴 사회주의붕괴라는 역풍도 이겨냈고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언덕도 넘어왔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도 헤쳐왔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총포성없는 치열한 전쟁도 이겨내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이 바라보이는 오늘에 이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절감한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이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는 간고한 투쟁과정에 얻은 산 체험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영원불멸할 승리의 근본뿌리이고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가 몰아오는 미증유의 암살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립질식의 《목조르기》에도 끄떡없이 그 어떤 제국주의 《독소》에도 병들지 않고 언제나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 그것은 바로 혁명승리에 대한 절대적신념에 뿌리를 둔 혁명적락관주의의 위대한 발현이 아닌가.

우리는 랑만을 사랑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붉은기를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붉게 물들이며 혁명적락관주의를 바탕으로 꽃피나는 우리 시대의 랑만, 아름답고 순결한 우리 생활의 랑만을 사랑한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땅에 환희로운 생의 랑만, 거창한 시대의 랑만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시초에서는 힘있고 아름다우며 성스럽기까지 한 선군시대의 랑만을 작품세계에 훌륭히 구현하여 랑만으로 개척하고 전진해가는 우리의 강성대국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시대정서를 의의있게 밝히고있다.

우선 시 《병사의 이야기》(문용철 작)에서 청춘의 랑만과 희열로 넘쳐나며 선군시대에 와서 커만가는 우리 병사들의 담대한 배짱, 웃음속에서 시대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기상

을 밝은 색조로 채색되는 서정적형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저길 보라고...

아득한 산정에 나뭇기는

붉은 기발을 가리키며

저것이 쌓아야 할 언제의 높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병사

...

쌓아야 할 언제가 까마득하였지만 그것을 가리키면서도 웃으며 말하는 병사, 과연 그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가득차있어 그토록 방대한 파제를 놓고도 태연히 웃음지을수 있었던가.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였고 이런 신심은 병사에게 방대한 파제를 놓고도 청춘의 랑만을 자랑할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되고있는 것이다.

이런 랑만을 지닌 병사들은 벌써 몇개의 산악을 단숨에 허물고 푸른 산맥을 꺾질러 물길굴을 뚫어 놓았으며 수천년 흐르던 태고의 물줄기도 《암전》하게 길들여놓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병사들이 지닌 랑만을 우리는 오늘의 선군시대가 낳은 위대한 랑만이라고 자랑스럽게 찬양한다.

시의 마지막부분에서 병사들의 랑만적정서가 더 강렬하게 드러나고있다.

...

산도 강도

흐르는 세월도

장알박힌 두손에 들어쥔듯

2012년의 첫 설을

준공의 언제를 타고앉아 쇠리라

주먹을 흔들어보이는 병사—

착암기를 닮은 돌러메고

그는 활개쳐 걸어간다

그의 가슴속엔

눈뿌리 아득히 치솟을 그 언제가

개선의 병사마냥 딛고 넘을

강성대국의 문턱인듯—

청춘의 랑만, 시대의 랑만이 세차게 굽이치는 시적형상이다.

산같은 언제도 개선의 병사가 딛고 넘을 문턱으로 생각하는 병사는 시대의 랑만속에서 큰 심장을 지닌 시대의 《거인》으로 부상하고있다.

썩 벌어진 구리빛가슴으로 물도 불도 암벽도 뚫

고 헤쳐왔고 온 조국땅을 트랙처럼 밟으며 땅우에도 땅밑에도 무수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랑만의 주인공—병사, 그는 조국의 미더운 근위병이었다. 이 희천의 《거인》은 이미 강성대국의 승리가 펼쳐진 조국의 래일을 기쁘게 바라본다.

이렇게 시에서는 우리 병사들의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미래에 대한 확신, 래일에 대한 랑만적형상을 한 병사의 정서적체험속에서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이런 랑만속에서 시대의 《거인》들로 자라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강의한 의지, 배짱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그리고있다.

다음시 《건설장소묘》(리창식 작) 역시 아름다운 시적랑만으로 우리 시대에 굽이치는 시대의 기본정서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있는 작품이다.

시는 세계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있는바 매 단락마다 각이한 시적대상에 대한 랑만적인 형상을 펼침으로써 단순히 건설장의 《소묘》뿐만인 선군시대의 자랑찬 면모, 희천의 들끓는 현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직관화하고있다.

시의 첫번째 단락에서는 물길굴을 마주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두 려단장의 모습을 통하여 승벽심이 강하고 전투성이 높은 우리 인민군대의 강의한 기질을 랑만적으로 형상하고있고 두번째 단락에서는 비록 나이가 많은 《발과공아바이》였지만 젊은 사람도 감히 따를수 없는 일숨씨로 건설의 로병으로서의 긍지를 펼치고있는 형상을 통하여 나이가 많아도 언제나 청춘의 랑만과 열정으로 사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고있으며 세번째 단락에서는 돌격대의 애어린 막내이에 대한 랑만적형상을 통하여 부풀어오르는 꿈과 희망과 열정을 모두 언제나 쌓아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깨끗한 애국심을 보여주고있다.

시는 이렇게 직급도 서로 다르고 나이도 다르며 꿈도 열정도 힘도 서로 각이한 인간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랑만, 특히 오늘 희천땅에 타번지는 랑만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의미심장하게 가르쳐주고있다. 즉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관철에서는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한마음한뜻으로 헤쳐나가는 결사관철의 랑만이며 조국을 제일선에서 받들어가는 애국의 랑만, 기적과 위훈의 창조속에서 발휘되는 혁명적랑만이라는것이다.

건설장의 여러가지 생활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랑만적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시대적으로 감수하고 시적일반화로 승화시키는 시의 체험세계에서 우리는 류다른 시의 매력을 느낀다. 이런 희천의 랑만, 시대의 랑만은 오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해내었으니 우리는 시들에서 노래된 랑만을 무심히 보지 않으며 무심히 듣지 않는다.

희천에 약동하는 시대의 랑만은 내 조국의 랑만으로 넘쳐흐르고 이 랑만의 열풍이 온 나라 방방곡

곡에 새로운 열기와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랑만, 그것은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래일을 위해 웃을 줄 알게 하고 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과 노래로 고난을 헤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시대의 거창한 정서가 아니던가. 이러한 정서를 지닌 인간들이 어제날 전후복구건설의 《평양속도》를 창조해냈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해내고있다.

시에서는 이처럼 시대에 굽이치는 시대의 랑만, 희천땅에 차넘치는 희천의 랑만을 현실에서 무르익히고 시인의 사색속에서 정화시킨 서정적형상으로 감미롭게 펼쳐놓은것으로 하여 시초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 4

승리와 번영으로 폭풍쳐달리는 조국의 모습이 어디에서 제일 잘 보이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천만군민의 심장이 내는 대합창으로 대답한다. 《희천이라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줄달음치고있는 선군시대의 숨결이 어디서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도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여기 희천이라고—》.

여기 희천에서 애국으로 불타는 천만의 마음이 분화구를 찾은 용암마냥 거침없이 터져오른다. 내 조국의 하루하루가, 미래를 향해 내달리는 이 땅의 날과 달이 화산의 용암인듯 세월이라는 《산악》에 굽이쳐흐른다.

하기에 시 《희천의 150일!》(리창식 작)과 시 《2012년을 향하여 앞으로!》(차영도 작)에서 시인들은 희천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화산의 용암처럼 터져오르는 신념과 의지의 대하를 총정과 맹세의 강렬한 서정으로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특히 시 《2012년을 향하여 앞으로!》에서 매우 격조높은 토로로 희천뿐만아니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주체101(2012)년으로 달릴것을 불같이 호소하는 격동과 격정의 서정으로 일관시키고있다. 하여 우리는 시인이 《아, 우리 수령님/ 이 땅에 세워주신 내 조국이/ 기어이 가닿아야 할 이 길/ 걸음이 모자라면/ 날아서라도 가야 할 길/ 바치는 땀이 모자라면/ 피를 뿌려서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토로한 서정적주인공의 피타는 호소에 기꺼이 화답하며 시인의 강렬한 서정에 심장의 박동을 높뛰운다.

시에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



# 한 여인의 원군일지

김 용 엽

한장한장 번질수록  
가슴뭉클 뜨거워라  
내 사는 항구도시  
한 너인의 보풀진 원군일지

글줄에 아롱진 이 흔적들은  
구슬같은 땀방울인가  
장군님의 선군길 따라 새벽길 걷던  
그날들의 맑은 이슬방울인가

글줄들은 희미해도  
자자구구 떠오르누나  
수십년세월  
많은 짐승들을 키워내느라 터갈린 손  
눈비에 젖고 땀별에 탄 구리빛얼굴

산엔들 어느 늪엔들 안 새겨졌으랴  
먹이를 찾아 하루에도 수십리길  
무거운 짐 이고지고 달린 그 자욱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한치 또 한치  
가득나뭇마 쓰렁바위며 기어이 툭아오르던  
이악한 그 모습

그러나 남들처럼 편히 쉴수 있었으랴  
쉬는 날이라고 명절날이라고  
비온다고 바람분다고  
벗을새 있었으랴  
수수한 작업복 풀물오른 로동화

아, 그대는 녀성이고 어머니였으니  
왜 누리고싶지 않았으랴 가정의 행복을  
왜 싸주고싶지 않았으랴  
자식들의 압박에 푸짐한 식찬을

허나 그럴수 없었구나  
아글타글 애써 받은 그 닭알 한알한알  
늘어가는 짐승 한마리한마리엔  
조국대문 지켜선 병사들의 달같은 모습  
래일의 만복이 비껴있었으니

아, 글줄마다 인생의 참된 자욱  
빛을 뿌리는 한 너인의 원군일지여  
그대는 한생 고여가며 살았구나  
우리 장군님 선군길 그 자욱자욱에  
애국의 마음을 원군의 마음을



이 나라 공민들이여  
애국의 더운 피 한껏 끓이라  
지금 여기 희천에선 결사전이 벌어지고있다  
2012년앞에  
산악같이 쌓아야 할 언제  
기어이 뚫어야 할 수십리물길...  
잠을 잊은 두눈에 피발이 일어서고  
착암기를 틀어쥔 손엔 피가 흐르고있다!  
...

피를 뿌려서라도 가야 할 길! 강성대국으로 내  
달리는 우리의 진군길!

정녕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모두에게 돌  
려주신 믿음과 사랑에 맹세와 의리로 보답하는 길  
이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락  
원으로 가는 길이다. 하기에 시에서는 이 나라 사  
람이라면 그가 당원이든, 청년이든, 병사들간에 사  
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우리의 2012년을 앞당  
기자고 그토록 열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격조가 높으면서도 선동성과 호소성이  
그 어느 다른 시들보다 강한 정서적체험속에서 충

정과 맹세의 서정으로 시대의 요구를 노래한 시는  
들끓는 희천, 변모되는 조국강산의 위용을 가장  
힘있고 폭넓고 뜨겁게 노래할수 있었다.

×

이상에서 우리는 시초 《희천땅의 메아리》의  
시편들에서 울려나오는 시대적정서를 예술적특  
성과 결부시켜 분석해보았다.

멈춤없이, 자만함이 없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시대의 한복판에서 구보로, 습보로 달려가는 우리  
의 시문학, 정녕 그것은 위대한 평도자의 사상과  
의도, 그이의 감정정서, 사색의 세계에 자신들의  
체험과 사색을 부단히 따라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 시인들의 높은 창작적자세에 의하  
여 더욱 시대의 전투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  
가고있다.

시대의 복판에서 시대를 느끼고 시대와 호흡과  
숨결을 같이하는 시인들에 의하여 우리 시문학의  
성파는 다가올 주체101(2012)년과 더불어 더  
욱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한다.



# 2해 봄의 눈석이

김 홍 군

1

해방된 이 땅에 새봄이 왔다.

3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지만 아직도 판북오지의 석내라 부르는 산골마을을 성벽처럼 둘러싼 주변산의 음지들엔 빨래감으로 무저놓은 뒹어진 당목같은 눈무지가 여기저기 남아있어 해지기 바쁘게 선기가 떠돌았다.

그래도 새삶의 희열에 가슴이 부푼 사람들은 제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흥분으로 마음이 급해 여느해없이 파종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열흘전 가슴이 터질듯 했던 감격과 흥분이 그대로 살아있다.

3월 5일,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해준다는 역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여름 해방소식에 동구길에까지 밀려나와 울고웃으며 만세를 불렀던 석내농민들이 또다시 리인민위원회 넓지 않은 마당에 모여들어 서로가 부동켜안고 《성님,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게 정녕 거짓말은 아닐테지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대대로 내려오며 하늘도 못 준 땅을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같은 농군들에게 주시다니... 사람들은 눈물속에 울고웃으며 장군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며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토지개혁을 위한 농촌위원회가 조직되고 토지조사 등 토지분여를 위한 준비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석내사람들은 누구나 토지개혁사업을 주관하는 농촌위원회사무실을 매일같이 기웃거렸다.

농민들의 드높은 열기에 보조를 맞추어 토지분여사업을 하루빨리 끝내야 했던 농촌위원회성원들은 언제 한번 편히 앉아 쉬어볼새가 없었다.

종일 해토로 부푼 땅을 메주끓듯 하고 해가 설

핏해진 뒤에야 뻗뻗해진 다리를 끌며 돌아온 농촌위원회위원장 정세협은 나른해진 몸이 잦아드는듯 하여 한참동안이나 앉아있었다.

그러다 무심히 창가에 시선을 보낸 그는 농촌위원회마당을 지나 저만치로 보이는 야장간바람벽앞에 등을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띄여보았다. 슬깃슬깃 발을 찌는 땅거미때문에 자태가 흐릿했으나 그가 큰꼴 신명률로인임을 대뜸 알아볼수 있었다. 이따금 담배불빛이 저녁어스름속에서 빨강게 살아오르곤 했다. 이즈음 매일같이 한자리에 오금을 꺾고앉아 해지도록 이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돌아가곤 하는 로인을 정세협은 벌써 며칠째 보아온다.

후유—

정세협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금방 들어선 마을자위대장 태준하가 정세협의 눈길을 따라 옆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이쪽을 흘끔했다. 위원장의 눈길이 신로인한테 박혀있다는것을 확신한 그는 대뜸 《모셔올가요? 벌써 며칠째네.》 했다.

정세협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설레설레 저었다. 신로인을 데려다 앉혀놔야 더 딱한 일만 있을 것이기때문이었다.

태준하는 오늘까지 벌써 여러차례나 신로인의 이름을 꺼들며 그에게 땅을 주는 문제를 놓고 정세협의 의향을 물어본다.

정세협은 준하네가 로인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니 그럴수 있겠다고 보면서도 자기를 딱하게 만드는게 언짢아 저도 모르게 눈을 흘겼다. 이윽해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둔 그는 공연히 헛기침을 짓으며 자리에 가앉았다.

《제발 딱하게 그러지 마오. 동무도 다 알면서 그러오? 파견원동지의 말을 벌써 잊었소?》

태준하도 정세협과 함께 군에 올라가서 토지분여사업과 관련한 강습을 받았었다.

그때 강습뒤에 군복차림의 일군이 나와 군내형편을 알아보다 강사에게 뭔가 물었다. 읍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리가 어텐가 알아본것 같았다. 이어 장내를 둘러보며 석내에서 누가 왔느냐 물었다.

정세협과 태준하가 일어섰다. 그들에게 강습을 받고 모르게 없느냐 묻고나서 편향이 없도록 하라며 그들이 돌아갈 길까지 넘려해주었다.

그 군복차림의 사람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빨찌산과전원이라는것을 그들은 돌아갈 때가 되어서야 알았다. ...

하긴 지금의 태준하가 억지를 못 부리는것도 강습때를 생각해서일것이었다.

자작농인 신명률로인네 가정에 땅을 주는 문제야말로 위원장이나 어느 한두사람의 결심으로 해결할 문제가 못된다고 정세협은 생각했다. 그것은 신로인네가 돌이 많고 척박한, 농사짓기 힘든 몫 쓸 땅일망정 그만하면 《넉넉히》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태준하가 한숨을 내그었다. 그 무거운 한숨소리가 정세협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으로 실리었다.

《말이 자작농이지 우리네만 못한 신아바이네 생활을 보기가 정말 딱합니다. 이젠 큰꼴에 가지 조차 겁이 납니다.》

자위대장의 푸념이 아니래도 정세협이 그 집 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신로인네는 해방전부터 자작농이라고는 하나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나무하러 큰꼴에 갔다 신로인네 집에 들렀던 태준하가 보고와서 하는 소리에 정세협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석내에서 몇손 꼽기 힘든 자작농이 해방된 이해 겨울에조차 죽을 먹는다는것이였다.

그날 신로인네 형편을 제집살림보듯 잘 안다고 생각해온 태준하로서도 3.7제실현으로 입에 거미줄 칠 정도로 쪼들렸던 자기네조차 밥술을 뜰때 죽을 먹는 그들을 보니 새삼스러운 생각뿐이었다.

말이 없는 태준하의 언짢은 속을 넘겨짚은듯 신로인이 말했다.

《우리도 명년엔 소작을 부칠 의논을 해보았네. 지금처럼 7할을 가진다면 돌밭을 허비기보담 나을것 같구먼.》

해방된 오늘에 와서 자작농이 소작을 부친다?! 태준하는 무어라 다른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저도 일이 제기되면 돕겠어요.》

《고마우이, 리위원에 자위대장인 준하가 나서면 누구두 원새끼를 꼬지는 않을거네.》

로인이 준하에게 도움을 바랄만도 했다.

나이가 다 되여가지고도 가난탓에 장가들 궁리조차 못하던 더꺼머리가 한시절 어깨너머로 깨친 굴덕에 농촌위원으로까지 되고 거기에 자위대장까지 겸해 《민주방망이》(태준하네는 무기가 없어 곤봉을 차고다녔다.)까지 쥐게 되었으니 누군들 쳐다보지 않겠는가.

하긴 해방덕에 팔자를 고친게 태준하뿐이었던가.

해방은 석내의 땅없는 사람들모두에게 꿈같은 생활을 마련해주었다.

집집의 굴뚝들에선 청높은 웃음소리를 타고 흰 연기가 곧추 피어올랐고 아침저녁 동네에 떠도는 냄새가 달라졌다. 누구네 집에서 통강냉이죽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올 때 또 누구네 집에선 복둥이 자식의 생일음식을 만드느라 떡을 치는 소리까지 철떡철떡 울려왔다. 해방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것이었다.

유독 신로인네만은 생활이 예나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오죽했으면 로인네가 소작부칠 생각까지 하였겠는가.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로 소작지가 영영 없어지게 된 오늘 신로인네가 토지를 분여받지 못한다면 영영 죽신세를 면할수 없을것이다. ...

도움을 장담하고 나섰던 자기가 이제 와서 로인을 피해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노라며 태준하는 괴로운 모양을 지었다.

일흔이 다 된 신로인은 이제는 좀해 자기가 사는 큰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로인이 땅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매일처럼 10리 가까운 예까지 다녀갈가 하는 생각에 정세협의 마음도 무거웠다.

마침 몇사람이 떠들썩 쓸어들어와서 따분하고 지겨운 공기를 날려버렸다. ...

밤이 깊어 집으로 가는 정세협의 뒤를 태준하가 말없이 따라섰다. 골목길에서 헤어져가려는 정세협의 팔을 무작정 잡아끌었다.

《아저씨, 집에 술 한잔 있으니 잠깐 앉았다 가시라요.》

《내가 술을 못한다는걸 알면서두 그러나?》

《원 아저씨두, 그래두 좀 들렀다 가시라요.》

정세협은 태준하가 무엇때문에 자기를 집으로 이끄는지를 짐작은 했다. 하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번거로운데다 빈속이 쿵쿵하기도 해서 끄는대로 따라섰다.

태준하를 따라 어둡시그레한 집에 들어서니 거름등아래 밥상을 펴놓고 앉아 콩종자를 고르던 그의 어머니가 《좀 빨리 들어올 노릇이지.》 하고 지청구를 했다. 몹시 기다린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꼴집 어른이 왔다가셨다. 널 만나보겠다고 몇시간 잘 기다리다 가셨구나.》

그러다 뒤에 달린 정세협을 알아보고 반색했다.

가마목에 덮어두었던것을 개다리소반에 올려놔 주며 녀인은 또 아들을 일깨웠다.

《일이 바쁘더라도 더러 찾아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몇년을 한가마밥을 먹으며 산 정을 그렇게 칼로 벤듯이 해서 밭길을 끊을수야 있느냐 구 몹시 섭섭해하시리라.》

로인이 돌아가던 길에 태준하의 집에 들렀을것이였다. 10리를 멀다않고 큰골에 뻗질나게 나들던 준하가 설인사를 갔다온 후로는 가보지 못했다니 로인이 노여워할만도 했다.

녀인이 하는 말이 그르데가 없어 정세협도 준하를 나무랐다.

《가봐야지. 그제 사람의 도린데.》

죽해 앉았던 태준하가 갑자기 대들듯 격한 소리를 내뿜었다.

《가서 내가 뭘 말해요. 우리네만 땅을 받는다는 자랑을 하세요? 가서 남의 아픈 속을 허비는게 도리라든 그런 도리는 해서 뭘해요.》

정세협은 말문이 막혔다. 입을 꼭 다물고 부릅 뜬 눈으로 술잔을 뚫어지게 쏘아보다가 술을 맹물처럼 단숨에 입에 부어넣고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다. 얼굴이 붉어진 그에게 태준하가 정색해서 물었다.

《위원장아저씨, 솔직히 얘기해줘요. 큰골집 문제가 꼭 세척때문만이 아니겠지요?》

정세협은 태준하가 무엇을 묻고있는가를 알았다. 신로인네 토지분여문제에 시행세척보다는 자기가 품고있는 감정이 걸려서 그러는것이 아니냐는것이였다. 쇠꼬챙이로 활귀는듯 한 예리한 아픔이 가슴에 마쳐왔다. 그것은 바로 오래되어 덕지가 두렵게 앉은 옛 상처를 허뼛기때문이였다.

정세협은 어느해 흉년에 12살난 아들을 잃었다.

…그해 초여름 어느날 큰골더기죽에 나물 뜯으러 어머니를 따라나섰던 아들은 신로인네 감자밭을 지나게 되였다.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는 눈길을 잡는 감자밭의 유혹을 뿌리칠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가만히 감자밭에 숨어든 아들은 정신없이 땅을 허뼛다. 그러다…

밭을 돌아보던 신로인의 눈이 뒤집혔다.

《어허, 이런 변이라구야. 알도 들지 않은 밭을 이렇게 탕쳐놓다니… 이, 이, 고현놈!…》

로인은 여기저기 허연 뿌리가 드러나 엉망이 된 밭을 보고 너무 노여워 턱을 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기는 어찌 그렇지 않으랴. 자기들도 온 겨울 얼굴이 비치는 멀건 죽으로 연명해오면서 소중한 보판해온 종자로 심은 감자밭이었던것이다.

투덕투덕— 아이의 불기에 몇대 안기는 시늉을 했는데 멀리서 띄여본 어머니가 놀라 허겁지겁 달려왔다. 한번만 용서해주소고 사정을 했다.

그렇게 데려간 아이가 산을 해마다 무슨 풀인가

잘못 먹고 그만에야 사정에 빠졌다.

정세협의 앞에 업혀왔을 때 아들은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시각을 다투는 상태였다. 이웃마을의 돌팔이의원이 와보고 가망이 없노라 했지만 정세협은 아버지 심정에 가는 자식에게 난알을 먹여보겠다고 미친듯이 돌아쳤다. 그달음으로 밭을 돌아보러 읍에서 내려온 부채지주를 만났다.

그러지 않아도 어데 터칠데없어 놀려두고만 있던 정세협의 울분이 쓴외보듯 하는 그놈의 뺨대에 드디어 폭발했다.

《사는 놈 인심이란 다 이런가. 아, 짐승만도 못한 놈들! 벼락이나 내려라.》

정세협은 리성을 잃었다. 화려한 인력거에 앉아 제견에서 노엽다 앙앙불락인 지주놈을 끌어내린 그는 미친듯이 악을 쓰며 길섶 논고에 처박고 지르뵈었다.

《법도 모르는 무지한 놈!》

《법?! 사는 놈을 위한 법 없는 놈한테도 하네 비냐? 생때같은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법은 해서 뭘해. 돼지같은 놈, 죽어라, 죽어!》

정세협은 그 걸음으로 감옥에 끌려갔고 아들은 동자가 풀린 멀건 눈으로 아버지를 찾다 이틀을 못 넘겨 그대로 숨졌다. …

그때 맺힌 한이 정세협의 가슴에 그대로 엉켜있다고 생각하는 준하였다.

정세협은 자기를 보는 준하의 꾀꾀한 눈길을 마주보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전엔 그렇게도 생각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세상을 잘못 만나 그렇게 된걸 아직까지 속에 썩쳐두고있으면 내가 사내가 아니지.》

태준하가 정세협의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떨구고있다 중얼거렸다.

《난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큰골집에서 보내온 감자는 왜 들지 않았는지?》

…며칠전 늦은 저녁 준하의 어머니가 필지별 등급을 가르느라 떠들썩한 농촌위원회에 삶은 감자를 한소랭이 안고나왔다. 아들에게 가만히 신로인네가 농촌위원들이 늦도록 수고한다며 가져온거라고 알려주었다.

로인이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당한 인사나 자기 이름만은 꺼들지 말라고 했었지만 결들인 토장까지 발라 맛있게 먹으며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데는 준하의 얼굴이 저절로 붉어져 생색을 낼수 없었다. 하느수없이 사실대로 신로인네가 가져온것임을 밝혔다.

《거참, 감자맛 좋다!》

읍에서 겨울을 내운 감자여서 맛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신로인네 마음이 고마와 맛나게들 들었다.

하지만 정세협이만은 손에 쥔 감자를 들수 없었다. 불쑥 숨져가던 아들에의 불쌍한 모습이 눈앞

에 떠올랐기때문이었다. 그는 목이 꺾 메여 눈을 반쯤 감고 손에 들린것을 뚫어져라 보기만 했다. 그러는 그의 눈귀가 가늘게 푸들거렸다. 그만에야 손에 쥐인 감자를 줄안에 짜악 움켜잡았는데 손가락짊으로 허연 감자살이 빠져져나왔다.

정세협은 감자를 종내 한개도 들지 못했다. …

정세협의 가슴으로 또다시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었다. 격해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뇌였다.

《새끼 생각을 했더랬네. … 어찌겠나,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구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구 하지 않나.》

태준하네 집을 나서 휘청휘청 걸음을 옮기는 정세협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 2

군에서 토지개혁실패를 료해하러 일군이 내려왔다. 급한 길을 다우쳐온 모양 진정 못하고 푸룩거리는 말잔등에 땀발이 뽀얗게 서렸다.

군을 다 돌보는 사람이니 사무실의자에도 앉아 볼새가 없는 모양이었다. 농촌위원회마당에 선 채로 리에서 작성한 문건을 뒤적거리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몇가지를 강조한 뒤에 그대로 돌파서려는 기미였다.

정세협은 기회를 봐 신로인네 문제를 조심히 떠올렸다. 아무리 해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는 문제였다.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신로인의 말이 더욱 가슴에 걸려서 손발을 포개고 나앉아 남의 일이라 할수 없었다.

…오늘 아침 석내천징검다리를 건너 행길에 들어선 정세협은 마주오는 신로인을 띄여보고 걸음을 무춌했다.

신로인쪽에서도 주춤거렸다. 무관심한듯 얼굴빛이 덤덤했다. 정세협의 인사를 받는등마는등 했다. 허공중에서 부딪친 눈길을 슬며시 돌려버렸다. 뭔가 말을 건네려고 바재이다 단념한듯 그대로 지나쳤다.

정세협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별안간 등뒤에서 짓눌린듯 한 소리가 맥없이 울려왔다.

《위원장!》

정세협은 천천히 돌아서서 착잡하게 변한 로인의 얼굴을 보았다. 우명한 눈확속에 고뇌의 빛이 짙게 고여있었다.

《?! …》

《언제부터 … 언제부터 만나고싶으면서두 아들을 때우구 땃힌 한이 어찌 풀리랴 해서 … 위원장앞에 마주서기가 쉽지 않구먼, 용서해주.》

로인의 모습이 하도 측은해 정세협이 헉헉히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이야 감자발을 두

저놓은 내 자식 잘못인데.》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러고도 로인은 불려세운 기본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주뭇거렸다. 한동안 그런 뒤에야 용기를 모아 물었다.

《우리같은 사람들한텐 땅을 준다는 소리가 없나?》 …

정세협은 군에서 내려온 일군에게 말했다.

《신로인넌 자작농이지만 땅이…》

떠나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 그런지 말꼬리를 잡아채는 소리가 별로 통명스러웠다.

《그래, 땅이 모자란다는거요?》

《아니, 모자라는건 아닌데…》

정세협은 말고삐를 잡은채 돌아보는 눈길에 그만 어깨가 졸아들었다. 바쁜 걸음을 지체시키는데 대한 불만이 서린 모난 눈길에 은연중 괜한 소리를 꺼냈다는 후회를 했다. 하지만 이왕 꼭지를 뺏으니 쏟아놓을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묻는다는거요?》

녀자처럼 희고 동글납작한 얼굴에 입술까지 얹어 성정이 온후해보이는 사람이 생김과는 다르게 성미가 여간 칼칼하지 않은듯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더 들어볼념을 앓고 또 말허리를 분질렀다.

《경우는 무슨 말라빠진 경우요. 나라에서 공연히 시행세칙을 내려보낼줄 아오? 시행세칙대로 하오.》

《그래도 편향이 아니겠는지?…》

끈끈히 물고늘어지는 정세협을 보는 눈이 먹이를 노리는 매눈처럼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편향이 어쨌다는거요. 위원장동무, 세칙대로 하지 않는게 바로 편향이란 말이요. … 신명률이라면 고용농까지 두었다는 그 집이 아니요?》

리의 농민구성을 얼추 알아보는듯 하더니 구체적으로 새겨두었다.

《그만큼 원칙, 원칙하는데 그런 문제성있는 세대에 땅을 주지 못해 몸살을 앓는건 뭐요. 사돈이라도 되는게 아니요?》

홀췌 몸을 날려 말잔등에 오른 그는 고삐를 당겨 대문쪽으로 말을 몰아세우며 말했다.

《그렇다구 해두 원칙이야 지켜야지. 내가 사타구니에 떡살이 배기게 돌아다니는것두 이런 편향을 바로잡자고 해서가 아니겠소.》

《그래도 현지에 한번 직접 가보시구…》

일군의 눈길이 대번에 쏘뻛해졌다.

《여보 위원장동무, 한개 군을 다 말아보는 내가 어느 하가에 그런 뺨기발까지 가본다구 그러오. 그리구 가보나마나요. 아무리 돌이 많아두 땅이야 땅이겠지. 그래서 이때껏 농사를 지어온거구. 긴말할것 없소. 규정대로 하시오.》

말을 더 붙여볼새가 없었다. 말은 벌써 진창을 차며 내달렸다.

정세협은 달고치는 도리끼에 주어맞은 꼴이 되어 멍청히 서있었다.

가까이서 들은 모양 준하가 다가와 나무랐다.

《아, 사돈이 아니라구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사돈같은게 중요한게 아니지.》

정세협이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밖으로 향하는데 준하가 그냥 물어들어왔다.

《난 신로인네를 고용농을 두었던 세대라고 하는것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한번 제 애길 들어보겠습니까?》

태준하는 차고다니는 곤봉까지 벗어놓고 제먼저 빼격거리는 의자를 끄당겨앉았다. 잡도리가 달랐다.

정세협은 발로 나가려던 생각을 고쳐먹고 준하가 들려주는 긴 이야기를 들었다.

…태준하가 9살나던 해 초여름 어느날이었다.

신명률로인이 읍에 장보러 갔다오던 길에 준하의 집에 들렀다.

망국년에 준하의 할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의성 고향마을을 떠나 걷고걸다 이곳에 물앉은 신명률로인이었다.

조상대대로 태를 묻으며 산 고향을 하직할 때 꿈처럼 바란것이 락이였건만 준하의 할아버지는 그 락을 보지 못하고 비명에 가고말았다. 그때 다섯자식이 할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는데 병과 굶주림에 비명횡사한 선친의 뒤를 네 자식이 줄줄이 잇다보니 준하의 아버지만이 외롭게 남았다.

신명률로인은 생전에 형님, 동생하던 우의를 지켜 홀로 남은 친구의 자식을 장가까지 보내주었고 혈불이처럼 이모저모로 마음써주었다.

태준하의 아버지가 장가는 그해에 시난고난하며 앓던 할머니가 돌아갔다. 그 할머니의 《팔자》를 어머니가 그대로 닮은듯 했다. 아버지 역시 험한 세상에 자식만 잔뜩 남겨놓고 맥없이 가버렸던 것이다.

태준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로인은 변함없이 관심을 돌려주었다. 신로인네 생활도 남을 위해 먹어라 써라 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관심이라야 손이 마른 문안정도였지만 험한 세월엔 그마저도 눈물을 냈다.

태준하네는 며칠째 난알구경을 못해 얼굴이 텅텅 부어 누워있었는데 로인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무거운 한숨만 내그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리고개밀기가 너무 힘들어 어른들은 무릎을 깔며 발을 굽었고 아이들은 산과 들을 헤매며 먹울만 한것이면 모조리 안아오던 때이니 가장이 없는 준하네 살림은 더욱 비참했다.

아무래도 그대로는 못 가겠는지 떠난 걸음을 되짚어 돌아온 로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내 준하 하나라도 데려가겠네. 아마 정근이도 있으니 동무가 될거네. 큰것들은 에미손을 도와야 하니 할수 없는거고… 이러탄 보리고개밀에서 온 가족이 다 죽겠네.》

로인의 손자 정근이는 준하와 동갑이었다.

태준하는 정근의 할아버지가 데려가겠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다.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다는 서글픔보다 배고픔을 면할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어머니는 미안해 어쩔줄 몰라했다.

《에미라는게 눈을 편히 뜨구두 제구실을 못하니… 댁에서도 식량때문에 고생이 여간 아닌데.》

어머니는 사기나서 제먼저 신로인의 앞에 서는 철없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정근이네 살림도 마찬가지니 가서 불민하게 놀지 말고 앞뒤를 보가며 있도록 하라고 가만히 아들을 일깨웠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는것을 준하는 알수 없었다. 배불리 먹여만 준다면 세상끝에라도 갈 철없는 나이였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정근이넌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뿐이었다.

철없는 마음에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야 괜한 짓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지난해 농사도 그만하면 괜찮았는데 인정머리 하나없는 지주가 갖가지 명색으로 다 끌어가다보니 준하네는 벌써 초봄에 식량이 말짱 떨어졌다.

그는 정근이네도 식량이 넉넉치 않아 어른들이 겨우내 멀리 채벌장이나 시내로 계절로동과 품팔이를 나갔다는걸 모르고있었다. 기대했던것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네보다는 선생이었다.

며칠동안 얼굴이 비칠것만 같은 멀건 죽이나마 난알즙이 들어간걸 먹으니 눈이 쑥 나울것 같았다. 정근이와 뛰노는 재미와 난알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맛에 며칠은 좋기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미도 혈육의 정을 대신하지 못했다. 그는 점차 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생각났다. 역시 혈육은 혈육이었고 남은 남이었다. 큰골에서 10리 못되는 집까지 천리처럼 느껴졌다.

어느날 석양무렵 태준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가만히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쑥이며 고사리, 씩순 등 입에 넣어 삭일수 있는 것이면 닥치는대로 뜯어 한보파리 채워 이고 방금 집에 들어서는 걸음이었던 어머니가 반색했다.

《네가 눈치밥에도 좋아졌구나.》

형님, 누나들도 반가와 미처 대답할새없이 물어냈다.

《뭘 먹언?》

《어떻던?》  
 《어떻게 왔니?》  
 《오구파 왔지 뭐.》  
 어머니가 물었다.  
 《넋째야, 너 가지 않으련?》  
 아들은 아주 왔노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나물을 가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태준하는 노전우에 주런이 앉은 형제들 틈에 끼여 들었다.

그러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입에서 그만에야 꺼지는듯 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 철없는것아, 무럭 오면 어떡하나. 집이라구 와야 굶는 일밖에 더 있냐?》

떠날 땐 사정봐가며 오라고 이르시던 어머니였다. 턱을 고이고 말끄러미 쳐다보는 아들의 눈길 앞에 본의아닌 요구를 해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어쩔수없이 붉어졌다. 아들을 외면하는 어머니의 눈가에 맑은것이 넘쳐났다.

《이 에미 생각두 해야지. 다 굶어죽는걸 보자구 왔느냐?》

태준하는 그때에야 자기가 당장 그 저녁부터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고 그때문에 어머니의 섬약한 어깨는 더 무거워지리라는것을 어렵웃이나마 깨달았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불쌍했다.

밝은 벌써 어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밤으로 돌아갈 독한 마음을 먹었다. 어머니는 자고 가라고 만류했지만 괜찮다고 고집했다.

《어머니랑 보구싶을 때 또 와요. 제 걱정은 마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안하느라 천연스레 웃어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지 못했다. 두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가지 말아. 우리 굶어두 같이 굶자꾸나.》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어린 아들은 남의 처마밑으로 다시 갔다. 어머니와 혼연스레 헤어졌지만 칠혹같은 어둠속을 헤치며 속이 한줌만 하여 큰골더기를 혼자서 걸을 때엔 그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무서워 울었고 서러워 울었다. 엄마가 보고싶을 때 오마고 했지만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년을 살았다. 아마 정근이와 그의 4촌누이동생 정복이가 장질부사로 한낱한시에 잘못되는 일만 아니었다면 언제까지고 그 집에서 살았을 것이었다. 아예 그 집 식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연고로 준하에겐 정근이네 식구가 남이 아니었다.

정근이네 식구가 많았다. 갈수록 더해가는 기아와 궁핍을 입을 줄이는 분가의 방법으로 해결하던 그 세월 석내치고 손자대까지 한울타리안에서 모여사는것은 신씨일가뿐이었다.

신명물로인이 구태의연한 가부장적권위를 고

집해서도 아니었고 대가정이라는 속궁근 허상으로 외부적인 압박을 이겨내려 해서도 아니었다.

가만히 놓고보면 그것도 참담한 생존과정이 남은 어쩔수 없는 귀결이었다. 큰골 구렁에 짐을 푼 신씨네는 지금껏 일가가 힘을 모아 그 땅을 개간하고 살아오다니 오늘에 와서도 어차피 농사를 함께 지을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살아도 역시 가난에서 벗어날수는 없었다.

문자그대로 돌이 많아 석내라 부르는 이곳은 사방 돌산에 둘러막힌 긴 자루모양의 분지로서 짐승의 뱀에 매달린 충수처럼 이 세상의 한구석에 버림받은듯이 간신히 매달려있었다.

태고적의 다난했던 지각변동의 조화로 맑은 골짜기물이 흘러내리는 분지바닥을 따라서만 부침팡으로 쓸만 한 약간한 땅이 있고 더기와 우묵우묵한 골마다에는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다만듯 한 크고작은 돌들이 널려있었다. 멀리서 보면 평퍼짐한 구릉지대가 다 농사군의 눈에 욕심나게 안겨들지만 진작 가까이 가보면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돌밭이었다.

그중에서도 큰골은 더욱 유별나게 돌이 많아 신씨일가가 간신히 밭을 붙인 뒤로는 아직까지 누구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지주마저도 읍거리에 거처를 정했는지 모른다.

저마다 기막힌 사연을 안고 흘러와 사람 못살 돌밭에 눈물겹게 뿌리를 내린 이들이니 석내사람들의 운명이야말로 버림받은 수난자들의 인생이었다.

그때문에 각박한 땅에서 남보다 조금도 나을데가 없는 신로인네가 준하를 데려다 몇년을 먹여주고 키워준 후더운 인정을 남들은 쉬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태준하는 정세협에게 신로인네 문건에 고용농으로 오른 다른 두 식구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다.

...해방되기 두해전 파종무렵이었다. 황해도 배천에서 별이를 떠났다는 남편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던 모녀가 석내에 흘러왔다. 주림과 추위(밤은 아직도 쌀쌀했다.)에 여윌대로 여윌 모녀는 서로 부축하며 이집저집 동냥을 구걸했다. 누구라없이 그들을 동정했으나 집에 들여놓을 엄두를 못냈다. 한두손가락씩 놓아주는 동냥으로 끼니를 에우며 한지를 돌던 모녀가 며칠뒤 큰골 신로인네 집에 나타났다.

석내의 마감집이었다.

삼작을 밀어제낄 맥도 없어 질편한 땅에 물엿아 피기없이 강마른 얼굴에 눈물을 짓고 녀인이 웅얼거렸다.

《애만이래두 좀 살려주세요.》

보매 녀인은 자기를 포기한듯 했다. 10살가

량 되는 팔에만 맡길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가볍게 눈을 감을것 같았다.

저녁어스름이 큰골 주변을 감쌌다.

삼작을 지켜선 여위고 비루먹은 검둥이가 반갑지 않다는듯 왈왈 짖어댔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바지까지 왔다.

그날 아침 종자바꿈때문에 심부름을 갔다가 너무 늦어 한밤 잘셈이었던 준하가 이 모든걸 그대로 목격하였다.

개짖는 소리에 준하가 달려나갔다. 모녀의 정상에 런던의 정이 옥 치밀었다. 집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도 동정만 했던 그였는데 지금은 더욱 어쩔수 없는 손님이였다. 신로인에게 알렸다.

로인이 나와보고 몹시 난감해했다. 하염없이 중얼거리는 녀인을 오래동안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하늘도 무심하군!》

로인이 개탄했다. 부축해들이라고 분부했다.

정근의 아버지가 걱정스레 여쭙었다.

《정작 이 마당에 들여놓은 다음엔?...》

《그렇다구 내 집앞에서 사람이 숨이 지게 할텐가?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신로인은 돌아서서 어두운 저녁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듯 뇌이였다.

《예로부터 인명은 천명이라 했는데... 후- 몹쓸 놈의 세상.》

그때 난알가루를 줌으로 세여 멀건 풀죽에 뿌리는 정근의 어머니의 입에서는 한숨이 잦을줄 몰랐다.

신로인이 그들모녀를 못 본척 했더라면?...

모름지기 한지에서 굶어죽었을것이였다.

해방이 되어 그들모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지 않겠다고 울며 떼질하는 모녀를 신로인이 떠밀어보냈다.

《가야 해. 우리도 정이 들어 보내기가 아쉽지만 어떡하겠나. 남정이 돌아와 처자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할텐가?》

신씨일가의 따뜻한 인정을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며 로인의 발치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고 모녀는 떠났다. ...

태준하는 오늘에 와서 신로인네를 그렇게 평가하는건 인간의 진정에 대한 외곡이고 모욕이 아니냐 했다.

《그렇다구 해두... 아까 군에서 내려온 그 량반 눈찌를 자네도 봤지.》

《그래두 신로인네 일을 강건너 볼보듯 할수가 없잖아요. 다들 해방을 맞구 제땅을 가지구 잘살게 됐다구 기뻐들 하는데 신로인네만은...》

《됐네, 됐어. 자네 마음을 내 모르는건 아닐세. 하여튼...》

정세협은 불미한 과거사때문에 발길을 끊고 산신로인네지만 같은 농사군으로서 그 심정이 리

해되어 승산이 보이지 않는대로 다시 한번 재기해볼 생각이였다.

### 3

군에서 내려온 일군이 토지분여사업준비정형을 료해했고 자위대장이 누구를 두둔하다 《방망이》를 때우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그날로 좌악 퍼졌다.

그래도 당자인 태준하쪽에서는 무관했다. 분여받은 땅을 맘껏 다루게 되었으니 차라리 잘되었다는 식이였다.

정세협이 마음에 걸려 들러보니 준하가 하루품을 넣어야 할 거름을 한껏새에 다 번쳐놓았다. 성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찧는다는 격이였다.

정세협은 시펄뚱해 거름만 번지는 그에게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퇴지에 주저앉아 담배를 말았다.

준하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신로인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자기까지 화를 입어 끈 떨어진 조롱박신세가 되었으니 괴여오르는 울화를 삭일수 없을것이였다.

문득 바둑강아지가 삼작문을 허비며 끽끔거리고개를 드니 뜻밖에도 울바자너머에 우두머니 산신로인이 보였다. 내용을 다 알고 왔을터이지만 아직도 행어나 하는 일루의 기대가 이쪽을 보는 뿌연 눈빛에 실려있었다. 제논, 제귀로 확인하고 싶었을것이였다.

새삼스레 소문이 빠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할것도 없었다. 소문도 소문이지만 요즘 신씨일가가 눈귀를 다 모으고 가고오는 소리에 신경을 쏜때문이였다.

로인이 삼작을 잡고 서서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위원장. 우리 일때문에 옥을 봤다면서... 준한 대장자리까지 내놓고...》

그런들 로인의 처지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인사가 가당치 않았다.

정세협은 불시에 목이 메여왔다. 태준하는 한쪽으로 비튼 고개를 쳐들며 하늘만 보고 섰다.

《어허!...》

별안간 마지막숨을 뿜는 황소의 영각같은 소리가 가슴을 굶었다.

정세협은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난 가겠네.》

예감이 이상해 고개를 드니 로인의 고랑팬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위원장, 내 군에서 내려온 그 어른을 만나볼가 하네.》

가지 말라고 말릴수도 없었다. 흙이 덕지덕지게발린 짚신을 무겁게 끌며 골목길을 되짚어가는



로인을 눈으로 바래는 정세협에게 한가닥 미련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 준하를 죄인몰듯 하던 신랄한 어조가 되살아나 미련을 털어버렸다.

…신로인네 문제를 놓고 원칙이니, 편향이니 오금을 박고 간 일군이 석내에 다시 와 회의가 열렸다. 정세협이 그 문제를 다시 상정시킨때문이었다.

군에서 온 일군이 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입을 다시더니 농촌위원들을 다 모이도록 하라고 했다.

《시간이 급해도 오늘은 말 좀 해야겠소.》

역시 《원칙》이 대쪽같은 사람이라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에도 말이 회의이지 군에서 온 일군이 정세협이를 일방적으로 두들겨패는판이었다.

농촌위원들이나 토지개혁사업에 인입된 사람들은 다 국문을 깨친 정도에 가감승제나 겨우 아는 어질고 순박한 농사군들이어서 주의주장이나 특별한 리론이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에서 내려보낸 지시나 규정 같은것이 곧 법이었다. 더러 정세협과 의견을 같이하는 측들도 없지는 않았으나 일군이 운운하는 《시행세칙》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원칙을 따른다는 어정쩡한 립장이었다.

정세협은 준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다. 조리없는 이야기였다.

일군이 이내 짜증을 냈다.

《위원장동무, 이게 회의요, 한담시간이요?》

정세협이쪽에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시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장거리에서 강아지값 흥정하는 아낙들의 입씨름이 아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무원칙하면 되겠는가, 계급적각성과 원칙을 버리고 인정에 포로되면 나중에 누구를 위한 위원장이 되겠는지 걱정된다. …

드문히 계급투쟁이니 프로레타리아니 하는 귀선소리를 해서 정세협은 멍청하니 듣기만 했다.

그래도 마음먹고 나선 일이니 물러설수 없었다. 자기 견해를 납득시켜보려 애썼으나 설득력이 없어 억지스럽기만 했다.

일군이 기막힌듯 혀를 찼다.

《동무도 나처럼 왜놈감옥의 짠맛을 보고도 그러면 어떻게 하오?》

그리고는 정세협을 동정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짐짓 누그러져 말했다.

《위원장동무야 남보다 뼈아픈 체험을 더 많이 한 사람인데… 동무같은 사람이 그들을 싸고돌다니.》

《싸고도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세협은 고집스레 진실을 말했다.

대뜸 일군의 어조가 높아졌다.

《위원장동무!》

안타까운듯 짚은 장단으로 책상을 두드려댔다.

《주막집에 둘러앉아 녹거리막걸리에 얼근히 취해보지. 개개풀린 몽롱한 눈에는 만사가 다 곱게만 보이는 법이요.》

《난 술을 마시지 않수다.》

야유가 언짢아 통명스레 대꾸했다.

일군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또 앞탁을 갖게 두드렸다.

《제 먹을게 없이 그래 남의 식구 셋을 끌어다 공밥을 먹여줄 천사가 어데 있소, 어데?》

맹랑하게도 한층 거세어진 불티가 태준하에게로 옮겨갔다. 영치를 들썹거리던 그가 더 참지 못하고 일어섰던것이다.

…자작농?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그것도 땅이라고 해야 하는가?

고용농? 그것도 틀렸다. 신로인이 땅이 남아돌아가고 먹는게 푼푼해서 나를 데려간것이 아니다. …

《저 동문 누구요?》

정세협이 준하와 신로인네 연고관계를 얘기해주었다. 일군이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꺼덕이더니 별안간 턱을 제끼고 양천대소했다. 준하에게 야릇한 눈길을 박은채 반박했다.

…백번 양보해서 동무말대로 고용농이 아니라고 하자. 하지만 내가 알아보았는데 동무 말고도 남의 식구를 둘씩이나 두었다는데 그것도 인정때문인가? 면적도 그렇다, 돌이 아무리 많아도 밭은 밭이다. …

태준하는 말문이 막혔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었다.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배친 모녀를 이제 와서 어떻게 불러온단 말인가.

갑자르는 준하를 넘겨다보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이게 바로 몽매한 우리 농촌의 현실이요. 동무들, 보시오. 착취자가 자기를 먹여살렸다고 고집하는 저게 바로 무지의 반영이요.》

지주, 자본가가 자기들의 피를 짜고 뼈를 깎은 건 생각지 않고 수탈을 목적으로 마소처럼 부리기 위해 먹여준걸 고맙게 생각하다니… 어리석단 말이야.》

준하의 학력을 물었다. 준하의 대답을 들어보고는 다소 리해가 간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렸다. 가벼운 탄식끝에 혼자소리로 말했다.

《이러니 힘들지 않을수가 없지. 눈뜨지 못한 무산계급을 민구 력사적인 대업을 실현하자니 참!…

동무, 빠리콤폴이 왜 실패했는지 아오?》

병긋 열린 준하의 입은 아예 굳어지고 눈만 허둥거렸다. 죽으라는 소린지 살라는 소린지 알수 없는 말로 자기를 마구 주물러대는것이 기분나빠속으로 두덜거렸다. 파리면 어떻고 모기면 어쨌다는거야? 땅을 나누는데 허바닥도 돌지 않는 그런

소리나 알아선 뿔한단 말인가! 아무리 해도 자기네와 다른 점을 찾을수 없는 그들을 놓고 동력이니 대상이니 하며 백로 까마귀 가르듯 하는게 리해되지 않았던것이다.

정세협이도 같은 심정이었다. 일군의 말대로 자기나 준하가 무식한건 사실이지만 살아온 과정을 통하여 신로인 같은 사람들도 멸시와 천대속에 무권리하게 살아온 수난자들이라는것쯤은 잘 알고있었다.

준하는 붉어진 얼굴로 한마디한마디 씹듯이 내뱉었다.

《아무리 자작농이라든 신로인네는 우리들과 똑같이 왜놈의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가난뱅이들이우다. 그들도 해방된 내 나라 땅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를 받으며 잘 사는게 뭐가 나쁘단 말이우?》

일군의 넘적한 손바닥이 책상을 탕 내리쳤다.

《동무, 자위대장이라는게 그렇게 떨떨하니... 이건 혁명의 계급원칙에 관한 문제란 말이요. 아무리 죽을 먹었대두 제땅을 가지고있었으면 유산자구 유산자는 우리 혁명의 대상으로 된단 말이요. 알겠소?!》

준하는 씹씹거리며 그 사람을 지그시 쏘아보기만 했다.

군에서 내려온 일군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는듯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위원장동무, 초보적인 사유도 못하는 저런 머리에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계급혁명의 심원한 원리가 먹어들수 있겠소? 이건 비극이요! 안되겠소. 자격이 없소. 계급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을 믿구 토지개혁과 같은 사회적혁명을 할수 없소.》

태준하쪽을 향해 허공중을 뽀족한 손가락끝으로 날카롭게 찌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독재의 무기가 동무가 고집하는 그런 늑거리인정에 통락되게 할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동문 나가도 되겠소.

위원장동무, 혁명실천의 격류가 노도치는 이 시각에 아까운 시간을 입씨름에 허비해서야 되겠소?》

태준하가 턱근육이 살아나도록 이를 사려물고 섰다가 그만 밖으로 뛰쳐나갔다. ...

일은 우려했대로였다.

일군의 타협을 모르는 무자비와 랭대가 로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겨놓았다.

집에 고용농을 두었다! 토지면적이 기준보다 넘는다!

로인은 너무 억울하여 말도 못하고 턱을 덜덜 떨었다. 들으니 기막힌 소리뿐이다.

돌발썰썰에 손바닥이나 띠오리같은 팽뽕기들이 널려있어 봄에 씨숙을할 때조차 돌에 가리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땅을 실지 경작면적이 아니라

건평으로 재다니.

그러지 않아도 어수선하던 신로인네 집이 초상난 집처럼 되고말았다.

정세협은 준하와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서 일어나지 못하는 로인을 찾아 문안했다.

며칠새 몸이 반은 준것 같은 로인이 흐리멍덩한 눈으로 그들을 맞았다. 험한 왜놈세상에서도 천대와 수모를 이겨내며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자리에 누울줄 모르던 강직한 로인이었다. 로인이 앙상한 손으로 머리맡에 꿰어앉은 준하의 손을 자꾸만 쓰다듬었다.

《고맙네. 정근이를 보는것만 같구만.》

정세협은 가슴이 뭉클했다. 로인이 《우리 정근이도 살아있었으면...》 하고 무심히 뇌일 때 그의 가슴도 아팠다. 사실 두 집사이에 불미한 일로 발길을 끊고 살긴 했어도 서로가 사람 못살 세상이 남긴 아물수 없는 상처를 새겨안고있었다.

어느해 동리를 휩쓴 전염병으로 정근이와 그의 4촌누이동생이 하루새 맥없이 죽어버렸다.

그때 태준하도 같이 앓았는데 고열에 신음하는 그를 돌보느라 신로인과 정근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울어볼새없이 밤낮없이 그에게 붙어살았다.

아마 신로인일가의 극진한 간호와 정성이 없었더라면 그도 정근이의 운명을 따랐을것이고 꿈같은 새세상도 보지 못했을것이었다.

그뒤 정근이를 생각하며 때없이 우는 그의 부모들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죽은 자식생각이 덜 날것이라 생각되어 집으로 돌아오고만 준하였다.

태준하는 때없이 가지 말고 함께 살자며 붙잡던 신씨일가를 죽어서도 잊을수 없노라 외우곤 했다. ...

《해방을 맞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왔다고 좋아했더니. ...》

수염에 가리워진 신로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절망적인 소리였다.

《... 왜놈세상에서 지지리 놀려살 땐 나라가 없기때문이니 할수없다 해서 참구 살았지만 지금은 억한 생각만 드는구려. 내 나이 두셋만 젊었어두 한번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가볼텐데. ...》

정세협의 가슴에 야릇한 충격이 마쳐왔다. 로인에 대한 편민이 어쩔수없이 무뎠던 자신에 대한 불만을 몰아왔다. 땅을 분여받지 못한다면 이제 신로인네가 어떻게 될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납덩이에 지질린듯 무거워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내천징검다리를 건느다 울적한 기분을 털썩으로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찡한 기운이 얼굴을 파고들며 무겁던 마음이 금시 맑아지는듯 했다. 순간이나마 시름겹게 매달린 신로인 생각을 잊고 서서 소연한 물흐름을 점도록

내려다보았다.

이해 봄의 눈석이는 여느해보다 일찍 했다. 겨우내 두텁게 보쿠졌던 골개수가 다 녹아 음달의 얼음덩이와 묶은 락엽을 걷어안고 골아래로 쓸어내리고 기슭에 널린 물벼들가지엔 살진 벼들개지가 노오랗게 물이 올랐다. 농민도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해준 경이적인 사변때문인것만 같았다.

땅을 받은 기쁨이 배가되어 더욱 높아진 웃음소리로 봄바람도 훈훈해져 매일씩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그런데... 정세협은 또다시 신로인네 문제로 번거로운 생각에 빠져들었다.

#### 4

정세협은 농촌위원들이 밭으로 나간 뒤에도 늦도록 빈방을 지키고 앉아 도소재지대로 떠나보낸 준하 생각을 했다. 나이 20살이 넘도록 석내에만 불박혀 산 촌뜨기를 혼자 떠나보내게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원래는 정세협자신이 갈 생각이었으나 위원장이라는게 끝나지 않은 토지분여사업을 두고 훌쩍 몸을 뺄수 없었다. 그래 온밤 뒤척거리며 생각한게 태준하였다.

아침에 준하를 불러 의향을 물으니 신타트 응해나섰다. 먼길에 혼자 내놓는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렇게저렇게 타산해보고 일러주고 주의도 주었다.

지금쯤 도에 가는 열차를 탔는지 아니면 아직도 관가에 가져다놓은 촌닭처럼 얼뜬해 읍거리에서 돌고있는지... 정세협은 아이를 강가에 내놓은 심정이였다. 그가 돌아오려면 며칠은 잘 걸릴 것이다.

만일 도에 가셔도 일이 잘 안된다면 그러면 신로인네 문제는 어찌한단 말인가. ... 정세협은 이래저래 번거로운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자리에서 궁싹거리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

창밖에서 빠꾸기가 울었다. 때아닌 때 울리는 빠꾸기소리라 신기해하는데 벌칙 문이 열리더니 태준하가 병글거리며 들어섰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정세협은 뜻밖에도 근심하던 준하가 되돌아온게 놀라와 벌떡 몸을 솟구었다.

《아, 때아닌 빠꾸기소리가 울렸으니 좋은 소식이라 생각해야지요.》

태준하가 으쓱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준하는 운이 좋았다. 늦은 점심을 먹느라 들어간 국수집에서 우연히 마주한 철공소로동자가 빨찌산파견원이 우리 군에 있다고 알려주었던것이

다. 오전에 자기네 철공소에 찾아와 뛰니뛰니해도 당장은 농쟁기를 많이 버려야 한다고 연설까지 했다니 확실한 소리였다.

부랴부랴 군공산당청사를 찾아갔다.

촌무지렁이가 이런데 나타난게 아무리해도 풍수에 닿지 않는 짓같아 불별이 자글자글한 담장아래에 앉아 근심을 하는데 누군가 찾았다.

《동무, 왜 거기 앉아있소? 누굴 기다리요?》

방금 정문을 나서던 사람이 멈춰서서 준하를 보고있었다. 키쫄이 후리후리한데다 짙은 떡갈나무빛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눈썹이 짙고 관쫄이 예리한데다 옷차림까지 군복이어서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풍겼으나 준하를 보는 눈만은 숙부드럽게 웃고있어 친근감이 느껴졌다.

전날 강습때 본 그 빨찌산파견원이였다.

준하는 반가운김에 자리에서 솟구치듯 일어나 굽석 허리를 굽혔다.

《가만, 동무 누구더라? 면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엉거주춤한 준하를 보고 물었다.

준하는 별썬 웃었다. 파견원이 자기를 알아보는게 반가와서였다.

《석내에서 왔다? 혹 석내자위대장이 아니요. ... 글썽 지난 강습때 만났으니 낮이 익은거지. 마침 이구만.》

태준하는 파견원이 자기를 자위대장이라 부르는 소리에 저절로 얼굴이 뜨끈해나 얼마전에 《민주방망이》를 내놓았노라 솔직히 말했다.

《아, 알고있소.》

파견원이 그에게서 찾아온 목적을 알아보고나서 거리를 걸으며 얘기하는게 어떠냐 물었다.

《이름이 뭐요?》

《태준하라고 합니다.》

《석내자위대장이니 동무가 신명물아바이네 집에서 고용살이를 했다는 동무겠소?》

신로인의 이름까지 외우는걸 보니 이미 석내형편을 잘 알고있는 모양이였다.

《고용살이가 아닙니다.》

태준하가 부정했다.

《그래그래, 고용살이가 아니라고 하기로. 동무 말을 믿어야지. ... 내 여기 와서 얘기를 다 들었소. 그래서 한번 가볼 생각이었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준하는 신씨일가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놓고 생각한바를 털어놓았다. 신로인에 대해 말하자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신로인네는 생활이 힘들어 정근이 하나만 공부시켰다. 그것도 소학교과정만 간신히 대고는 중학은 종내 포기하고말았다.

태준하는 정근이가 아침마다 송내에 있는 소학교로 갈 때면 그제 부러워 멀리까지 따라갔다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내내 그의 책보를 빼앗아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웠다. 정근

이 없는 반나절은 내내 심드렁해서 발에 나가 로인의 일손을 거들었다.

신로인은 그러는 준하를 보고 《정근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만 일을 하겠냐? 어서 가서 놀아라. 그리구 오후엔 너도 정근이한테서 글을 배우거라.》 하군 했다.

그게 고마와 오전만이라도 일손을 돕겠다고 하면 로인이 성을 냈다.

《걱정말아. 어른들이 있는데 뼈도 채 굳지 않는것이 일은 무슨 일, 둘을 함께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것두 가슴이 아픈데.

준하야, 그렇게라도 꼭 글을 익혀라.》

그러니 준하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미안했다. 자연 정근이네 살림형편에 주의가 갔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준하는 식사때마다 차려진 죽그릇을 힘들게 일하는 어른들에게 덜어준다고 싱갱이질했다.

신로인이 나무랐다.

《그러면 못써. 아이야 아이다워야지. 벌써부터 눈치가 멀쩡해서 밥그릇을 덜어 제 배를 뚫으면 언제 뼈가 크겠냐. ... 너 아무래도 안되겠다. 남의 집살이처럼 생각하니.》

식구들이 모여앉은 어느 기회에 말했다.

《내 언제부터 생각해온건데... 이제 크거든 준하를 우리 정복이와 짝을 무어주자는거네. 어떻겠냐? 준하를 아예 우리 집 식구로 만들자는거네.》

제 얼마 무릎에 앉아있던 정복이 멋모르고 《나 준하오빠와 함께 산다.》 하고 깔깔거렸다.

그때 정복의 나이가 5살밖에 안되었으니 로인의 말은 너무 엉터리없는 웃음거리라 할수 있었다.

하지만 로인은 괜히 그런 소리를 한게 아니었다. 눈치밥을 먹는 준하를 한식술로 인식시키려 우정 철없는 아이들을 놓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아마 정복이 장질부사로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로인의 헛기침까지도 법으로 생각하는 일가가 꼭 그들의 혼사를 성사시켰을것이였다. ...

태준하는 배천모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문제의 돌발에서 로인의 세살잡이 손녀가 뱀에게 물려죽은 참사에 대해서도 다 말해주었다.

말 한마디없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파견원이 그 집에서 뭘 먹고 살았느냐 물었다.

《죽을 먹었습니다.》

《죽이라? 그 집 식구들은?...》

《나와 정근인 언제나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한가마에서 익혀낸걸 말입니다. 밥을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으음...》

태준하는 파견원과 장거리주변에서 헤어졌다. 그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은 값이라며 강엿 한덩이까지 사서 들려주었다.

《음에 왔다 빈손으로 가면 안되지.》

불원간 시간을 내어 꼭 석내에 찾아가겠노라며 빨리 가서 신로인을 위로하라고 당부했다.

《허, 내가 자기 소개를 못했군. 내 이름은 허철훈이요. 또 단납시다.》

헤어질 때 준하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게 말보다 더 큰 믿음을 주었다. ...

두 사람은 매일 아침에 신로인네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으나 일은 다르게 번져갔다.

이튿날 아침 파견원이 불쑥 마차를 타고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것은 얼마전에 석내를 다녀간 군의 일군도 함께 왔는데 기고만장하던 그 위세는 어데로 갔는지 파견원이 겸양을 하는데도 그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것이였다.

정세협도 준하도 약속한 《불원간》이 이렇게 빠르게 놀라와 찾아온 손님을 뵈히 쳐다보기만 했다.

《자위대장동무, 마을을 돌아보자면 동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소?》

《저야 이젠...》

《아니, 오늘부터 동무에게 자위대장사업을 다시 맡기기로 했소.》

파견원은 자기 말을 확인시키듯 뒤에 선 일군을 돌아보았다.

《우리 함께 신로인네 발을 좀 돌아봅시다.》

일행은 얼마후 큰골 구릉에 올라섰다.

《여기가 신아바이네 밭입니다.》

크고작은 돌들을 징검돌 밟듯 하며 따라서던 파견원이 우뚝 멈춰섰다. 놀라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밭이란 말이요? 음.》

정세협이 설명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신아바이네 집입니다. 저 집을 지나 벼랑이 선데까지 모두 신아바이네 차지입니다.》

《거기까지 다 이 모양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밭면적을 어떻게 잴습니까?》

《자대를 들이델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잴니까. 그저 변두리를 밟아 어림잡은 면적입니다.》

태준하가 불만스런 소리를 여쭙었다.

《이거야 말그대로 돌밭이지 땅이요? 이런걸 밟이라구 하다니...》

파견원이 못내 락심한 표정으로 뒤에 따라서 온 일군을 돌아보았다.

《동문 여기에 와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주뒹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시간이 바빠... 와보지 못했습니다. 또 와보아야 뵈할것 같기에...》

《그럴줄 알았습니다. 와봤어야 할걸 그랬습니다. 이런 문쩔 바로잡자고 우리가 아래에 내려가보라고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에는 와

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죽이나 겨우 먹는 자작농을 놓고 기준을 논하다니. …》

파견원의 목소리는 더욱 준절해졌다.

《우리가 수행하는 제반 민주개혁들이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로인네같은 사람들까지 엉터리없이 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신로인네 한집에 땅을 주는가 마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토지개혁은 그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농민들 모두를 끌고루 잘 살게 하시려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 사업이며 장군님의 두리에 모든 농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사업이며 하나의 혁명입니다.

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시 말을 끊었던 파견원은 정세협이를 바라보며 타이르듯 말했다.

《슬픔을 당한 위원장동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리를 책임진 일군이 편협해서야 안되지요.》

정세협은 심심히 자기를 누우쳤다. 모든것이 큰 골짜기에 발길을 끊고 살면서 무관심해온 자기탓이었다.

《제 잘못이 큼니다. 속통이 좁아 그 집 사정을 들여다볼려고도 안했으니. 거기에 시작부터 원칙문제가 강조되기에…》

정세협이 흘끔 군에서 나온 일군쪽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눈길을 피해 지지벌개진 얼굴을 슬그머니 돌려버렸다.

신로인네 집을 가까이해서 파견원이 물었다.

《준하동무, 아무리해도 리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요. 어떻게 신로인네가 이 험한데 터를 잡았는지 말이요?》

《우리 할아버지와 신아바이가 석내에 왔을 때가 초여름이었는데 여기 돌밭이 온통 칙년출을 뒤집어써서 무연한 벌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후에야 이 땅이 어떤것인지를 안 우리 할아버진 마에 내려가 소작을 부치자고 설복했지만 신아바이네 그래도 제땅을 만들어보겠다고 그대로 이 등판에 집을 풀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인 파견원은 신로인네 집으로 가보자고 하면서 앞장서 걸었다.

신로인네는 ㄷ자모양으로 키낮은 초가를 길게 지어놓고 살았다.

마당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웅크리고 앉았는데 그우에서 신로인의 증손들 여럿이 깨진 질그릇이며 사기쪼박들에 진흙으로 빚은 《음식》들을 담아놓고 소꿉놀이를 하고있었다.

신로인은 병상에 누운대로였다. 태준하가 군에서 왔노라 이르니 머리를 질끈 동인 로인이 귀찮다는듯 뺨 돌아누웠다. 벌써 사람들 어깨너머로 군에서 온 일군을 보았던것이다.

파견원이 로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로인님.》

대척이 없었다. 노여움을 쉬이 풀수 없는 로인이었다.

《로인님, 빨리 병을 털고 땅을 받으러 가셔야지요.》

로인이 제 귀를 의심한듯 몸을 흠칫 했다.

《이자 뭐라구 했수?》

《로인님, 우린 사죄하러 왔습니다.》

로인은 앓던 사람같지 않게 자리를 일었다.

《어른은 뉘시오?》

《허철훈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토지개혁을 도와주라고 저를 도에 파견해주시였습니다.》

《그으럼 김장군빨찌산?!》

로인은 황황히 깔고앉은 자리를 한옆에 밀어놓고 앉음새를 바로했다.

파견원이 정중히 말했다.

《로인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현지로 떠나보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로인은 두눈을 슬벅거렸다. 눈에는 벌써 맑은것이 그렁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잘살게 하자는것이니 현지에서 실정을 깊이 료해하여 편향을 바로잡아 줄데 대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전에도 장거리전화를 걸어오신 장군님께서는 북부지대 토지개혁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농민들을 위한 일인것만큼 현실을 외면하여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금 당부하셨습니다.》

불쑥 로인의 몸이 노전바닥에 어푸러졌다. 껍껍 흐느끼는 로인의 어깨가 후들후들 떨렸다.

《장군님!》

세상의 버림을 받은듯 누구나의 관심밖에 외롭고 한적하던 집에 여러사람이 찾아드는데 놀라 몰려왔던 신로인의 아들 셋(원래는 일곱이었는데 병으로 죽고 징용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해서 겨우 셋만 남았다.)도 머리를 숙이고 흐느껴울었다.

로인이 불쑥 몸을 솟구고 아들들쪽을 돌아보며 목이 메여 부르짖었다.

《너희들 듣느냐. …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두 땅을 주라고 하셨다누나! 어흠!…》

로인의 어깨가 마구 떨었다.

《로인님, 고정하십시오.》

옆에서 그냥 진정할줄 모르는 로인을 부축했다.

《로인님, 앞으론 부락에 내려가도록 하십시다.

# 밀 립 속 의 삶

한 승 길

평생토록 숲을 가꿔  
흰서리가 내려앉은 아바이의 머리지만  
한생의 정이 담긴 이 푸른 숲이야  
그 어이 푸른빛을 잃으오리까

펼 펼 피가 끊는 청춘시절에  
나어린 애기모를 잔등에 지고  
한적한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일매지게 한줄두줄 간격을 지어  
포기포기 이 땅에 심었다지요

혈벗은 땅에도 생명을 주어  
쓰다듬어 쓰다듬어 흙을 모아 덮어주며  
나무야 잘 자라라 어서 크거라  
바람이 들세라 흙을 다져 다독일 때  
땅을 위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던가요  
어린모야 한잠자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이불귀를 덮어주는 마음이었던가요

척박한 돌서덜에 어린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린답니까  
아바이는 이 푸른 숲의 뿌리였나니  
향토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나무들이 즐기며 무성한게 아닐가요

한뼘 푸른 숲에 자신의 숨결을 이어놓고  
바쳐온 애국의 뜨거운 그 마음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아바이여

무성한 밀립은 제 사랑을 안해도  
온갖 새 날아와 노래하듯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인들과 기자들  
아바이는 이렇게 말씀하신다지요

실한 이갈처럼 곧은 허리가  
이제는 휘어들어 늙은이가 되었어도  
나라를 받드는 마음의 기둥만은  
심어놓은 나무처럼 대바르다고

아, 머리에 백발이 없지였어도  
이런 사람은 늙지 않아라  
그대는 푸른 숲 청청한 밀립  
조국의 한모습으로  
언제나 언제나 남아있을것이오니  
그대가 가꿔온 이 높은 산처럼  
그대 삶은 높이 솟아 빛나오리다



이런 땅을 어떻게 부치겠습니까?)

로인이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 아니웬다. 이 땅두 장군님 찾아주신 내 나라 땅인데 어찌 내버릴수 있겠소이까? 우리가 그 대로 가꾸겠소이다.》

이튿날 신로인가정에 토지가 분여되었다.

신로인과 그의 자식들이 저마끔 자기 이름을 새긴 말뚝을 불안고 울 때 정세협도 준하도 함께 눈물을 머금었다.

신로인은 무릎걸음으로 발가운데를 향해 어디까지 가고 기여갔다. 그만에야 불을 땅에 쿡 박고 마구 비볐다.

《장군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의 이 하늘같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

이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역사적인 민주개혁을

실시하던 날에 만백성을 하나같이 아껴주고 보살펴주신 아버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이 낳은 하많은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기도 하였고 우리 공화국의 력사이기도 하였다.

그후 신로인네 생활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가지만 이야기하고싶다.

5년후 평화롭고 행복하던 땅에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을 때였다.

신로인네 집에서는 일가중 남녀 11명이 용약 총을 잡고 전선에 탄원했는데 그가운데서 8명이 조국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 8명 전사자들속에는 공화국영웅도 있었다.

로인은 울지 않았다.

《내 자식들이 장군님 찾아주신 이 땅을 지켜 목숨을 바친게 장하기만 한데 내가 왜 울어!》

# 선군혁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이 나라 녀인들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

—서사시 《금방석》에 대하여—

김 학

눈 감으면... 선하다.

《고립》과 《압살》의 광풍이 뼈까는 민족의 대국상으로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이 땅우에 미친 듯이 몰아치던 때 위대한 장군님따라 한손엔 총을, 다른 한손엔 마치와 낫, 붓을 들고 분연히 일떠선 천만군민의 대오속에 치마끈을 질끈 동이고 선군혁명의 진군길에 나섰던 이 나라 녀인들의 불굴의 군상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고 력사가 일컬은 미증유의 시련은 그 누구보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세포를 무겁게 결머진 우리 녀인들의 손발을 더 차게 얼구었나니. 그래서 그들의 심장이 그 누구보다 더 뜨거웠던가.

우리 이제 서사시 《금방석》(최윤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7~8호)의 형상세계를 더듬으며 선군시대가 새로이 탄생시킨 이 나라 녀인들의 심장을 다시금 안아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모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 1

...

가장 준엄했던 그 나날  
장군님의 짐을 털어드리려  
가장 험한 자리에 남먼저 들어서던  
스스로 짐을 지고 웃으며 걷던  
이 나라 녀인들

...

모진 시련의 찬바람이 대지를 휩쓸며 때 집집에 까지 스며들어 랭기를 풍길 때 누구보다 당황했던 사람들은 우리 녀인들이였다. 자식들이, 남편이, 부모형제들이... 온 가정이 주부의 얼굴을 먼저 쳐다보았다. 허나 우리 녀성들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누이로

서, 형님으로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자각을.

그러면 무엇이, 그 어떤 힘이 남들같으면 백번도 포기해버렸을 이 나라 녀성으로서의 의무를 생명처럼 간직하고 가정을, 조국을 연약한 두어깨에 떠메고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 나가게 했는가.

서사시는 바로 이 심각한 사회적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높은 형상성과 강한 견인력을 가질수 있었다.

서사시는 바로 그 견인불발의 힘, 정신력의 원천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혈연적인 관계, 우리 녀인들의 가슴속깊이에 소중히 간직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있었다는것을 전형적인 생활세부들로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

장군님 한식술로 깊어가는 밤  
누구의 생각인들 다르랴  
며칠간 렬차생활 이처럼 고된데  
얼마나 힘드시랴! 우리 장군님!  
하건만 신문에서 텔레비존에서  
뵈옵는 영상은 환하신 미소  
젊음이 넘치시는 힘있는 걸음  
이밤 그 현신에 머리숙이며  
장군님안녕 바라고바라는  
인민의 마음은 잠들줄 모른다  
렬차는 멎어선지 사흘이나 되여도  
그리움의 천리길 달리여가는  
인민의 생각은 멎어설줄 모른다

...

일신상의 《피롭고 힘든 일》, 《아프고 슬픈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잊고 사는 우리 녀인들이다. 그처럼 힘겨운 렬차행군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장군님곁에 가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참을수 있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다. 하기에 우리의 주인공 인숙은 군인들이 안겨준 식사 한그릇을 놓고 또 집에서 식량구입을 떠난 자기를 안타깝게 기다

릴 아이들이나 남편보다 《인민의 밥그릇을 생각 하시며 손에 드신 야전식사 들지 못하시》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는것이다.

마음속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기에 군 대나간 옆집아들이 장군님을 만나뵈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에는 《인민반의 경사》로 《속보판에 광수사진 큼직이》 내붙여주고 《조국보위초소!/ 그 곳에 최고사령부가 있고/ 이 나라 몇몇한 영웅 들로 키워주는/위대한 령장이 서계신》다고 하면서 아들딸들을 군대로 《기꺼이 웃으며 떠나보 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를 찾으시여 딸 봄이의 노래도 들어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자기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신 소식에 접했을 때 인숙의 마음은 오히려 죄스럽기 그지없 다. 《(더운 식사 한번 지어올리지 못한/두툼한 내의 한벌 떠드리지 못한/이 죄스러움/무엇으로 다 갚을길 없는데...) / 평양하늘 바라보는 인숙의 눈가엔/ 뜨거운 그리움이 흘러내린》다.

정녕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고 하신/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녀인들/그 어떤 난관도 헤쳐온 녀인 들》이다.

...

위대한 장군님 곁에 계시는 한  
누가 감히 탐낼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땅을!  
누가 감히 건드릴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존엄을!

...

바로 이것이 준엄한 시련을 맞받아헤쳐간 이 나 라 녀인들의 심장깊이 새겨진 철석의 신념이며 의 지였다.

가장 준엄했던 그 나날 가장 험한 자리에 남편 처 들어서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웃으 며 걷던 이 나라 녀인들의 높은 정신력의 원천을 《장군님의 집을 덜어드리》는데서 가장 정당하고 명백하게, 진실하고 감동깊게 밝혀낸데 서사시 의 가치가 있고 성과가 있다.

## 2

...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녀인들  
그 어떤 난관도 헤쳐온 녀인들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의 행군》은  
우리 녀인들이 했다고 말한다  
병사들이 조국을 지키었다면  
녀인들은 가정을 지키었나니

...

녀인들이 가정을 지키었다. ... 그 말이 왜 이다 지도 가슴을 치는것인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녀성들의 위치와 임무에 대한 진실과 일반화의 심 도가 그 한마디의 말에 다 집약되어있기때문이다.

《〈고난의 행군〉은/우리 녀인들이 했다고 말》할 정도로 모진 시련과 난관의 광풍속에서 우 리 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위치와 임무를 다하고 가정을 지켜, 조국을 지켰는가에 대하여 서사시는 참으로 눈물겨운 필치로 웨치고있다.

...

언제 한번 나라에 우는소리 한적 없고  
손내민적 없는 이 나라 녀인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엔  
한담이 허리필 순간이 없었다  
안일과 고독이 좀 쓸 곳도 없었다  
멈춰서면 죽는다는 생활철학으로  
비오는 날 눈내리는 날이나  
무더운 날 바람부는 날이나  
진땅 마른 땅 가린적 있었던가  
힘든 일 험한 일 타발한적 있었던가

이런 녀인들이  
자기가 섰던 초소에 자식들을 세웠다  
군인가족예술공연의 무대 펼쳤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우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함께 나눈다!  
이런 녀인들이  
얼음덮인 발전소건설장에서  
뜨거운 웃음을 쌓아가고  
세벌농사 기적을 꽃피웠다  
년간계획 앞당기는 기발 날렸다!

...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인공 오인숙을 보자. 그는 가정주부로서 고달픈 렬차행군으로 《먼 친척집에 서 식량을 가져오》기도 하고 《피복공장에 다니 는 시누이》, 《화학공업대학 학생 시동생》들 도 돌봐주어야 하였으며 《불편한 시어머니》를 위해 《잠곡밥도 덥혀 올려놓고 추울세라 아래목 에 잠자리도 퍼주》어야 하였다. 《혹시나 남편이 부엌일을 도올라면 나무라며 등떠밀며》 자기가 도맡아야 했다.

남편은 제대군관, 영예군인. 군관의 안해때처럼 혁명동지가 되어 남편의 신상을 돌봐야 했다. 《동통의 아픔 함께 나누며.../한손가락 두손가락 약을 떠넣어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선생이 되 어 지휘관이 되어/힘을 주며 떠밀》어 주었다.



...

영예군인의 안해—오인숙!  
 찢고찢어 닳고닳은 약절구가 말해주리  
 약탕관의 손잡이에 다 스며있으리  
 친절처럼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성의 초불 더 밝게 태우던  
 강직하고 굳센 그 정신은  
 군복의 날지 않을 색깔이며  
 계속되는 꽃의 지지 않는 꽃향기!

...

안해가 아니고서는, 혁명동지가 아니고서는 도  
 저히 가질수 없는 사랑이고 헌신이다.

어머니로서 《때로는 엄해》야 하였다. 《미  
 국놈들의 잠꼬대전략!》은 《우리 새 세대들을 변  
 질제로 유혹하려 하》기에 딸 봄이가 《숙제보  
 다》 다른것에 더 신경을 쓸 때 《농촌지원 아프  
 다고 빠지려 할 때면/웅석받이자식이 효자된적 있  
 었던가/눈먼 사랑은 함정으로》 된다며 아픈 때 서  
 슴없이 들기도 하는것이다.

녀인들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만 맴돌지  
 않았다. 하기에 그들의 헌신이 그토록 귀중하고  
 그토록 아름다운것이다.

...

반장이란 대가정의 만며느리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으로  
 인민반을 이끌어  
 일터에선 남편들을 잘 돕도록  
 자녀들교양에도 낮을 돌리게  
 동녀맹사업에도 앞장서도록  
 큰일 작은 일 다 맡아안고  
 기쁜 일 피로운 일 다 듣고 보아주며—

...

가정의 크고작은 일 다 도맡아안고 애쓰면서도  
 사회사업에서도 뒤질세라 아글타글하는것이 우  
 리 녀인들이였다.

그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고 잠시나마 쉬고싶지  
 않으랴. 하여 《오랜만에 친절집에 들려》 《(어  
 머니 나 열흘 폭 잤으면...)》 하고 순간이나마  
 《마음속 긴장이 흠 풀릴》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준건 로동당시대의 가풍이였고  
 백두의 전통이였다.

친정집어머니는 말했다.

...

늘 일깨우는 말

《시부모를 부모보다 높이 모셔라  
 남의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남편의 믿음직한 길동무  
 시동생들 따뜻한 방조자  
 인민반의 진실한 맏딸이 되여라!》

...

《오늘도 귀전에 올려오는》 김정숙어머님말씀.

...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고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시다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다시던

...

봉건시대가 아닌, 바로 선군시대가 물려준 조선  
 녀성들의 가풍과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장군님의  
 뜻대로 가정을 꽃피우고 조국을 믿음직하게 받드  
 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넘친 오늘이 있다는것을 정  
 당하게 보여준 여기에 서사시의 철학적심도가 있  
 고 진실성의 높이가 있다.

### 3

서사시 《금방석》은 서사시의 공인된 성과를  
 더욱 일반화하고 주체시문학이 이루어놓은 귀중한  
 유산과 전통을 적극 발전풍부화시켜나가려는 시인  
 의 의도의 결과일것이다.

실지 서사시는 고전형서사시의 고유한 형태적특  
 성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기식으로 좀더 개척해  
 보려는 흔적이 이모저모에서 엿보인다.

그 하나가 성격적인물들의 설정과 그 발전과정  
 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를 천명해나가는 줄거  
 리전개방식이다.

서사시는 선군시대 우리 녀성들의 사상정신적풍  
 모와 인간애의 세계를 다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과 전형적인 생활들을 선택설정하고  
 심오한 시적분석과 격조높은 주장으로 형상과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서사시가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인숙, 그는 우선  
 군관의 안해였다. 선군의 주력군인 우리 인민군대  
 의 강화발전에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 남편이 쓰  
 러지면 《대신하여 기발 들고 나갈줄 아》는 군관  
 의 안해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땀이 돈는 훈련장마다/신선한  
 고기며 염소젖을 보내줄 때》 병사들은 간격없이  
 인숙을 보고 《우리 누이》, 《우리 중대장 아주  
 머니》로 불렀다.

오인숙, 그는 또한 제대군관, 영예군인의 안해이며 시누이, 시동생, 시어머니를 모신 가정부인이다. 쌍둥이아들들과 딸을 가진 어머니이고 인민반사업을 책임진 인민반장이다. 군관가족이기도 하였고 영예군인가족, 후방가족이기도 하였다. 하여 인숙의 생활은 선군시대 우리 녀인들의 복잡다단한 생활에 대한 축도이고 폭넓은 일반화로 된다.

서사시는 바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성격문학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전형적인 인물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형적인 생활을 주어 선군시대가 나라 녀인들의 사상정신적 및 인간적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어떤 형의 서사시든지 그것이 서사시라고 하면 서사성과 서정성의 유기적결합이 선차적인 미학적요구로 나선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데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논의할수 있다.

서사시 《금방석》은 서사성과 서정성을 기계적으로 대비해보면 서정성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서사시도 시문학의 한 형태인것만큼 서정성이 높은것은 자못 좋은 일이다. 서사시는 정서적양양의 지행점으로 삼은 생활세부들이 간명하게 주어진데다가 그 세부조차 《정서화된 설명》으로 제시되고 그에 따라 인차 분석적인 결론이나 주장으로 넘어가기때문에 감정의 흐름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 편안에서, 행과 행사이에도 나타나지만 한개 장안에서 편과 편사이에에도 이루어지고있다.

서사시가 서정성이 우세하다는것은 벌써 35개 내외의 많은 행으로 한편을 이루고있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런 폐외적인 서정구조는 서사시의 감정밀도가 매우 높다는것을 말해주며 그것은 작품이 벽찬 시대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호흡을 시도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서사시는 호흡의 줄기찬 진행을 위하여 여러가지 문장문체론적수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수사학적물음과 부름과 시킴의 활용률이 크며 대조대비법, 반복법, 어순전도법, 열거법, 점층법, 과장법, 상징법, 환유법, 의인법, 직유법 등의 수법들이 유기적으로 리용되었다.

대화에 운물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도 확연히 엿보인다. 이 점은 이미전에 작가가 발표한 서사시의 부족점을 현저히 극복한것으로 된다.

경계해야 할 점이 부분적으로 있다. 양양된 정서적열정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우리 말 문법체계나 어휘체계와 모순되는 표현이나 문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시인 조기천은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자기의 여러 시들에서 자기 식의 특색있는 표현들을 많이 썼으며 그것은 오늘 그의 개성적인 어투

로 되어 남이 흉내낼수 없게 널리 알려졌고 문화어사전에도 오르게 되었다.

특색있는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영이며 개성적인 반영이다. 정확하고 개성적인 반영은 결코 우리 말 어휘문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시인들은 개성적인 표현을 탐구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 말 어휘문법체계에 어긋나는 난해한 표현은 절대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 어떤 미학상의 문제인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민족성과 관련되는 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시에서 일부 보이는 《사랑이 이겨낸 증오의 날과 날》 등과 같은 표현들은 다시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이 있다》라는 표현은 너무도 고려없이 구사되었다고 본다. 서사시가 바로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고 더 우기는 불과 몇행전에 시집과의 가정륵리에 대하여 읊조린 아름다운 선물의 여운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러나저러나 우리 속담을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추행과 대치시킨것 등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미감이 좋지 않다.

서사시는 총만되고 무르익은 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주관적인 내용서술에 기울여질 때 줄기찬 감정흐름에 무리가 생기면서 다소 운물이 파괴되는 현상도 발로시켰다.

7장의 마지막편에서 《애국의 정열로 그려나간다》와 《운명의 주인으로 인민을 부른다!》 사이, 마감시의 첫번째 편과 두번째 편사이의 감정적련결에 대해 눈여겨보라. 웨침이 공허한감이 없는가.

서사시는 전반적으로 격조가 높는데 비해 총격의 메아리가 그리 크지 못하다. 그것은 아마도 기승전결의 과정에 대한 형상적관심이 다소 홀시된데서 오는 허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지 서사시의 발단이라고 말할수 있는 1장의 총격적인 격조에 비해 절정이라고 볼수 있는 7장의 격조는 오히려 약하다. 마지막무렵에 가서 서사시의 웨침이 다소 공허하게 느껴지는것은 이러한 원인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사시는 광범한 독자의 호평을 받고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생신한 서정흐름으로 노래하려는 정당하고 대담한 창작적시도에 대해 문단은 기뻐하고있다.

시인이여, 리상을 꺾지 말라. 그대의 시를 보면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문단에 들어선 첫걸음을 남다르게 내짚었다. 선군혁명총진군의 선두에서 나아가는 최고사령부와 쉬임없이 종군하면서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걸음새를 더욱 원숙하게 다듬으라! 금후 작품이 기대된다.

# 《 직 포 공 집 》 외 1편

리 정 너

노래 잘 부르고  
춤을 잘 추어  
예술가로 키우고싶었던만  
나는 외동딸을 방직공으로 키웠어라

나의 어머니도 전후  
방직공장 직포공 천리마기수  
나도 오늘은  
방직공장 직포공 3대혁명기수

사람들 직업을 두고  
《지배인네 집》 《박사네 집》 《선생님네 집》  
자랑삼아 존대해 부를 때도  
우리 집은 어제도 오늘도 《직포공집》

사람들 우리 딸 노래 잘 불러  
예술가로 키우라 할 때에도  
나는 굳이 반대했어라  
로동과 생활이 예술인 우리 일터를 생각하며

우리 공장 그 어디에나  
방직공 가슴가슴마다 새겨져있어라  
아버이수령님의 교시  
—방직은 예술입니다

누구든 우리 공장에 와보시라  
아득히 펼쳐진 정방기사이로  
전동차 타고 달리는 처녀들의 모습은  
무대우에 펼친 춤가락!

돌아들 보시라  
빙빙 돌아가는 집채같은 타면기는  
마치 공원에서 아이들이 타고 노는  
회전목마와 무엇 다르랴

폭포치는 날염의 천필은  
공장안에 사철 고운 꽃을 피우고  
온갖 새 날아드는 수립화된 구내는  
대동강반에 《방직공원》이 솟아난듯

우리 장군님 지난해 7월  
삼복더위도 잊으신듯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온 나라의 본보기라 내세워주신 일터

궁전과 공원같은 우리의 일터  
로동이 춤과 노래가 된 우리의 생활은  
우리 장군님 먼 앞날의 모습을  
앞당겨 안겨주신 사랑의 일터

아 예술은 무대우에서만 펼쳐지나요  
예술은 예술가들만 창조하나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며 생활인 수령님의 교시  
—방직은 예술입니다

방직공 우리는 예술가들이여라  
《방직공장집》 우리 집은 예술가가정  
온 나라에 비단필을 수놓아가는  
장군님 아시는 노동자예술가여라

## 감 나 무 앞 에 서

우리 공장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  
그늘 짙은 구내길 걸으시며  
마치 모란봉공원에 온것 같다고  
그리고 그리고 기뻐하셨지

그날 내가 심은 감나무를 보시며  
장군님 반겨웃는 명찰표에서  
나의 이름석자 새겨읽으시며  
정깊은 눈길 잎새가득 없어주신 장군님

서른해전 입직날 기념으로  
영웅반장언니와 함께 심은 감나무  
그날부터 감나무 너와 나  
공장에 영원한 삶의 뿌리 내렸지

서른돌기 년륜속엔 새겨져있으리  
입직날을 방직공의 생일날로 하라고  
십년마다 생일상을 크게 차려주라고 하신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교시

너의 돌기엔 새겨져있으리  
80대의 직포기 말아안고  
하루 180리 순회길을 달려 영웅된  
반장언니처럼 영웅의 꿈을 키우며  
너의 둘레를 돌며 순회길을 익히던 그 밤과

그리고 너의 뿌리에도 간직되어있으리  
걸도 속도 한빛같은 단열매 익히라고  
수리공총각과 함께 거름도 듬뿍 주며  
남몰래 약속된 사랑의 고백도...

그날 아버지장군님 감나무 너를 보시며  
이 공장은 생활문화의 본보기라 하셨지  
그날 아버지장군님께서 나의 이름도 읽으시며  
이 공장은 생산문화의 본보기라 하셨지

아 장군님 보아주신 구내의 감나무야  
너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받은 감나무  
나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받은 방직공  
너와 나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안았구나

## 《 전 기 강 》

김 혜 인

나의 소녀시절은 금진강기슭의 작은 집에서 흘러갔다. 추녀가 건듯 들린 붉은 동기와집, 가을이면 그 기와우에 누런 호박이, 때로는 통통 여문 콩단이며 타는 불같이 빨간 고추가 한벌 쪽 널려있는 그 동기와집 대문을 열고 나서면 곧바로 금진강이 바라보인다. 나는 그 강기슭을 따라 소학교에 다녔고 그 기슭에서 맘껏 덩굴고 물장구치며 앞날의 푸른 꿈을 고이 키웠었다.

어이 잊을수 있으랴. 어둠이 깃드는 강기슭, 다정히 두팔 벌리고 안타까이 저녁밥상으로 부르던 할머니의 애정어린 부름소리며 새파란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반두질하는 사내애들의 꼬리에 줄줄 물어다니느라 어느 하루 마를새 없던 연하늘빛 꽃치마자락...

굽이굽이 뻗어간 런던한 산발들을 량팔에 꼭 끼안고 씹없이 좌좌 흘러내리는 파아란 그 물결이 내가 사는 세계의 전부인줄로만 알고있던 철없던 시절 나는 그 강기슭에서 그리운 아버지와도 반갑게 상봉하였었다. 기술대표단으로 해외출장을 가셨다가 몇해만에 휴가길에 온 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고 강기슭의 너럭바위우에 앉았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끝에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이 금진강이...》

《거긴 강이란게 없나요?》

아버지는 용용히 사품쳐흐르는 금진강물결에 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조용히 말했다.

《있지, 레니다라고 부르는 작은 강이 있단다.

이 금진강에 비하면 겨우 시내물갈다고 할가?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강물이 풍기는 기이한 향기를 맡을수 있어 양골라사람들은 그 강을 〈향기강〉이라고 부른단다. 그것은 물밑에서 사는 식물들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때문이란단다.》

나는 짹짹그르르 박수를 쳤다.

《히야, 그런 멋진 강도 있나요? 정말 신기하네.》

《어디 그뿐인줄 아니? 세계를 둘러보면 희귀한 강이 많지. 어떤 나라에는 강물을 잉크대용으로 쓸수 있는 〈잉크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는 강물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음악강〉도 있단다. 하지만 타향의 그 강들이 아무리 신기하다고 해도 내가 나서자란 이 금진강처럼 그럴듯 소중하게 느껴지진 않더구나. 이제 네가 크면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될거다.》

아버지는 인츰 떠나갔다. 했어도 아버지가 남긴 신기한 강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마음속에 오래

도록 메아리를 일으켰다.

《향기강》, 《잉크강》, 《음악강》...

그후부터 나는 변함없이 흘러가는 금진강물결을 바라보며 류다른 공상에 잠기곤 했다.

(저 강물이 다 달콤한 사랑물이었으면, 아니면 우유! 아니야. 휘발유였으면 자동차들이 썽썽 달릴텐데. ...)

피끗피끗 솟구치는 가지가지의 공상은 그때마다 새라새로운 《강》들을 낳았다.

하지만 철없는 소녀의 엉터리없는 꿈에는 무관한듯 금진강물은 묵묵히 흐르며 세월을 보냈다.

그 세월은 간절한 희망과 소원으로써도 이룰수 없는것이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닫는 나날이기도 하였다.

헌데, 헌데... 철부지소녀의 그 꿈이 변이 난 지난해에 불현듯 이루어질줄이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취재의 길에 올랐던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연깊은 그 강은 몰라보게 달라졌던것이다. 거울같이 맑은 물결우에 찬란히 비친 그림같은 발전소전경이며 웅웅 기세좋게 돌아가는 집채같은 발전기들, 아득한 대인공호수의 푸른 물을 담썩 품어안은 거창한 언제, 규격화된 물길을 따라 용용히 흐르는 물...

파연 이것이 소녀시절 철없이 물장구치며 뛰놀던 그 금진강이란 말인가. 수십년래의 대폭우로 거의다 밀려나갔던 그 발전소란 말인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발전소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 일떠선 우리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쓸모없이 흐르던 금진강이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락원의 강, 〈전기강〉으로 전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새생활을 개척한 정평사람들의 백절불굴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전기강》, 나는 걱정에 사무쳐 입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여보았다.

덧없이 흐르는 강이 쓸모있는 강으로 되기를 바라던 어제날 철부지소녀의 소박한 꿈이었다. 아니,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이었고 소원이었을것이다.

공상속에서만 해매서는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었던 꿈이 아닌 이 현실을 다름아닌 나의 고향사람들이 이루어놓았다.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 이루어주셨다.

## 3.8국제부녀절의 아침에

김 춘 길

동녘창가에 노을이 피어나는  
3.8국제부녀절 이 새벽  
서둘러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니  
가마에선 벌써 끓고있는 맛있는 음식들  
이날의 기쁨을 먼저 주려는 그 마음인가  
뽀얀 김속에 생긋이 웃는 안해여

이날은 녀인들의 명절날이라고  
아침밥은 아버지가 꼭 해야 한다며  
밤새 재잘대던 딸애도 깨나지 않은 아침  
무슨 말로 축하를 먼저 안겨주랴  
물기어린 작은 그 두손을 꼭 잡으니  
따스한 정 가슴가득 흘러들어라

우리 사는 거리 그 어느 집에서나  
이렇게 시작되리 이 아침은  
함께 나란히 걷는 출근길  
마주오는 사람들의 끝없는 물결  
주고받는 다정한 축하의 인사말에도  
가슴마다 안겨주는 고운 꽃송이에도  
뜨거운 마음이 어리거니

안해여 그대들이 아니더냐  
정든 일터를 사랑하며  
하루일을 넘쳐 수행한 기쁨으로  
가정의 향기 웃음꽃 활짝 피운 그대들이

불뛼는 창가 하루일을 돌이키며  
넘쳐한 자기 일은 수집어 말 못때며  
오히려 남편들이 더 큰일을 하는듯  
축하의 미소를 한껏 뿌려주던 그대

어찌 모르랴 그 가슴속엔  
새 혁신 새 기술의 구상이 나래침을

우리 사랑 뜨거워라  
조국의 어려움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일터를 지켜오던 그 마음이  
오늘의 한껏 무르익은 행복으로 넘치거니

정녕 우리의 세월 사회주의 이 땅은  
녀인들 그대 있어 더 밝고 환하여라  
홍성이는 백화점 화려한 옷매대  
문양고운 새옷을 마음껏 골라입으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높이 내세워주고싶은  
우리 마음이다

우리의 이 마음 이 소원 모두 합쳐  
천만사랑 가득 안겨주신 장군님  
그대들 얼굴에 기쁨만이 넘쳐있으라고  
어려운 그 나날 보내주신  
은정길은 《불향기》화장품으로 곱게 단장한  
복받은 녀인들 행복한 녀인들이여

아, 3.8국제부녀절 이 아침  
우리 장군님 남편저 축복을 보내주신다  
안해여 그대들을 선군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평범한 삶을 애국의 큰삶으로 빛내주신다  
장군님 사랑속에 사는 그대들은  
이 세상 제일 행복한 녀인들  
불타는 마음 아낌없이 바쳐 사랑하고싶은  
이 나라 녀인들 복받은 녀인들이여

《향기강》, 《잉크강》은 자연의 우연이 베  
핀 헤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전기강》  
은 평도자의 구상을 남먼저 꽃피우는 길에서 보  
람과 행복을 찾는 내 고향 사람들의 무한대한 정  
신력이 낳은 변종에도 큰 변이다.

인민이 품었던 리상이 실현되어 나라의 자랑스  
러운 《전기강》으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  
린 금진강물결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눈시울이 뜨  
거워진다.

전기문제해결을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돌과  
구로 보시고 이 땅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더 많  
이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오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선견지명과 지칠줄 모르는 강행군천리

를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나는 눈 들어 바라본다.

아득한 산중의 바다, 무한대한 대인공호수의 푸  
른 물결이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춤추며 흘  
러간다.

이 땅우에 수풀처럼 솟아날 수많은 《전기강》  
들의 자랑찬 모습이 황홀히 보여온다. 강성대  
국의 대문이 열리는 력사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참 좋은 세월, 변  
이 변을 낳고 품었던 리상이 실현되는 기적의 세  
월속에 산다는것은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 일인가!

아! 긍지높은 선군시대의 세월이여!

## 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전진을...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선에서 만나자》를 두고—

최 언 경

우리 나라는 류달리 노래가 많은 나라, 노래중의 노래인 명곡이 많은 음악의 나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로 나라가 흥하고 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져 이 땅 어디서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투쟁이 있는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곳에는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지기 마련이다.》

생활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투쟁이 있다.

노래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친근한 예술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나라가 흥하고 모든 일이 잘되면 노래소리가 더 높기 마련이다.

이 땅을 둘러보면 그 어디서나 보이는것은 선군 절경이고 들리는것은 우렁찬 선군의 노래, 강성부흥의 노래소리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일대 새로운 혁명적전환기에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기간 년대와 년대를 넘고넘어 미제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그리고 사상최악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야 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부터 강성대국건설에로 전환, 참으로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어놓은 경이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다.

세상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에는 경탄하였으며 원썩들은 아연실색하여 아우성을 쳤다.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어려운 나날에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 높이 위용떨치게 하시였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제강국의 문어구에 확고히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뜻깊은 주체101(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단호한 결심을 하시고 전체 군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결심은 곧 위대한 실천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또다시 지구를 박차고 우주에로 치달아올랐을 때 세계는 조선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오늘 태양조선은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인 우리 식 CNC기술이 첨단을 돌파하고 주체철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세계로 하여금 조선을 알게 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이 벅찬 현실과 천지개벽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민족의 자존으로 한껏 부풀게 하였으며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돌진해나가도록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오늘 온 나라는 새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날에날마다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이 좋은 시대에 어찌 긍지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하늘땅을 진동치 않을수 있겠는가.

오늘 내 나라, 내 조국에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노래와 명작들이 련이어 태어나고있다.

그중에도 지난해 뜻깊은 10월음악회를 빛나게 장식한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과 함께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전선에서 만나자》는 선군시대 또 하나의 성과작들이다.

우리는 이 작품들의 사상에술적성과를 되새겨보면서 그에 토대하여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 성과작창작의 비결을 말해주는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

시와 노래는 심장으로 한다. 하다면 우리 시인,

작곡가들의 심장은 어떻게 무엇으로 맥박쳐야 하는가?

우리는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작사, 작곡 황진영)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 한다.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 삶의 좌지를 정하고 순간순간 그이의 심장의 박동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추라고, 하여 그이의 사상과 감정, 신념과 의지를 통채로 자기 심장에 받아안는것을 수령결사옹위의 목표로 내세우라고.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한 창작가의 창조물이기 전에 위인의 심장속에 충만되어있는 그 위대한 세계의 분출이다.

원췌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이 계속되던 그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강행군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는지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상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시기 숨죽은 공장들과 불꺼진 마을과 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터지는 그 아픔을 씹어삼키시며 어찌하여 CNC기계기술의 개발을 위해 그처럼 단호한 결심을 하시었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원췌적멸의 붉은 화살표가 그어진 그이의 작전도결에 어찌하여 그리도 많은 기술문건들이 그득히 쌓여있는것인지 수행일군들도 알지 못했다.

도대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CNC기계기술이 있다는것조차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창작가도 그때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식 기계공업의 자랑인 CNC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실 때, 그것을 자기 머리,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청년지식인들과 로동계급이 하도 기뻐하고 대견하시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도 크시여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참지 못하실 때 작곡가는 그 심장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뜨겁게,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자기의 피끓는 심장에 그대로 통채로 받아안았다.

우리의 창창한 두뇌진과 로동계급이 하도 고맙고 자랑스러워 기계결을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오래도록 쓸어보시고 또 쓸어보실 때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강철의 령장의 안광에 흐르는 그 거룩한 눈물의 천군무계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안았다.

우리 식 최첨단 기계공업의 자랑인 CNC야말로 그이의 심장과 뿔수없이 련결되어있는 그처럼 귀중하고 궁지로운 그이의 사랑이었음을 온몸으로 통감하였다.

이 북받쳐오르는 심장의 걱정을 그는 그대로 시

결과 선물속에 한껏 터쳐놓았다.

...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갱생의 본때

장군님 가리키는 길 따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아 아리랑 아리랑 민족의 자존심높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가요에는 첨단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식 CNC기술에 대한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세차게 설레이고있으며 선군으로 백배해진 무한한 힘으로 모든것에 패권을 쥐려는 조선의 본때가 자신만만하게 울리고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에는 우리 장군님께 못 잊을 추억을 불러주는 그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가슴뜨겁게 비껴있는것인가.

명작은 바로 이렇게 되여야 한다.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새로운 작품창작에서 장훈을 부른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 가요는 CNC첨단기술의 돌파, 그것은 위대한 령장의 가리킴따라 다지고다져온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나라의 기술력, 그 총력의 총체이고 결정체임을 빛나게 확인하였다.

가요는 CNC 우리 식 기계기술의 개발, 그것은 하자고 결심하면 이 세상에 돌파 못할 첨단은 없다는 위대한 령장의 넋을 닮은 조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궁지로운 승리임을 힘있게 노래하였다.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더 높이 더 빨리》와 함께 그 선물에 있어서도 완벽을 이루고 있다.

가사는 가요에 종자를 주고 그 사상예술적기초로 되지만 좋은 선물과 결합되지 않고는 좋은 노래로 될수 없다.

두편의 가요는 한 창작가에 의하여 창작되여서인지 가사와 선물이 뿔수없이 조화롭게 밀착되어있고 가사 그것처럼 선물도 완벽의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가요들에는 창작가의 남다른 얼굴을 뚜렷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작품마다 고유한 독창성도 잘 나타나고있다.

두 가요는 다같이 4분의 4박자에 민족적인 안팎장단을 바탕으로 깔고 밝고 흥취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선물이 흐르고있다.

가요의 선물들은 다같이 도약과 음역이 심하게 오르내리지 않고 지어 감정이 고조되는 후렴구에

서조차 공허한 웨침이 없다. 그러면서도 풍만한 정서로 하여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게 매우 유순하고 통속적이다.

두 노래는 다같이 그 첫부분에서는 이야기하듯한 사실조의 선율로 선율주제를 제시하고있다.

두 노래는 이러한 공통성과 함께 가요 《더 높이 더 빨리》가 보다 활달하고 기백있는 행진곡풍의 노래라면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일반적인 행진곡들과는 달리 민족적인 기쁨과 환희, 긍지와 자랑이 차넘치는 다분히 경축적인 성격의 노래로 되고있다.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처음 앞부분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에서와 같이 큰 굴곡이 없이 사실조로 선율주제를 제시하면서도 그와는 달리 중간부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최첨단을 돌파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한껏 터치고있다.

특히 《아 아리랑 아리랑》으로 시작되는 가요의 마지막부분은 마치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열광에 넘친 환희의 춤판을 련상케 하는 특색있는 민족적선율로 엮여지고있다.

이처럼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의 선율은 선율주제의 제시로부터 긍지와 자랑, 열광에 넘치는 전인민적환희 등 3단계의 감정발전의 론리에 맞게 경축적성격이 강한 한편의 노래로 완벽하게 완성되고있다. 이러한 선율의 예술적완벽성, 가사와 선율의 조화로운 통일은 이 작곡가만이 발휘할수 있는 특기이기도 하다.

###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부르는 가요 《더 높이 더 빨리》

가요 《더 높이 더 빨리》(작사, 작곡 황진영)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도록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성대국건설대전가와도 같은 노래이다.

가요는 기어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그것을 피뿌는 가슴에 받아안고 천만군민이 하나로 뭉쳐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과 혁명적기상을 격동적인 시구속에 잘 반영함으로써 시대정신이 훌륭히 구현된 명작으로, 강성대국건설에로 시대를 이끄는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랑만, 조선식락관주의가 맥맥히 흐르고있는 선군시대의 명작이다.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는 필승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이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한대하며 지난 시기 승리한 그 기세로 다시한번 비약하면 반드시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랑만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세상을 통채로 들었다놓으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심은 커질대로 커지고 강해질대로 강해졌다.

조선고유의 이 특유한 혁명적락관주의는 특히 앞소절들과 선율적대조를 이루면서 노래를 고조시키고있는 후렴구에서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

더 높이 오르자 더 빨리 달리자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이렇듯 약동하는 혁명적락관주의로 하여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붉은기를 추켜들고 혁명의 노래높이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의 영웅적 모습, 그것은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면서 세기를 앞당겨 조선혁명을 승리에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는 강철의 의지와 신념의 분출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이 세상에 불가능을 모르며 역경도 순경으로, 광풍도 순풍으로 길들이며 전진 또 전진하시는 공격형의 령장이시다.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또한 위인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되어있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 민족제일주의정신과 우리 식에 대한 신념의 빛나는 정화이다.

위인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는 애국, 애족, 애민과 민족자존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받아안았기에 가요는 애국충정으로 것처럼 뜨겁고 민족존엄으로 것처럼 긍지높으며 우리 식에 대한 신념으로 이처럼 억센것이다.

가사에는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이 대하처럼 즐기차게 굽이쳐흐르고있으며 우리 식의 위대성에 대한 존엄과 긍지로 가슴들먹이게 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으로, 강성대국건설도 우리의 식으로,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모시지 못한 가장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웨칠수 있는 서정의



토로이며 궁지높은 민족적자부의 분출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그것도 오직 자기 힘과 자기 기술로, 자기 식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 민족이나 엄두를 낼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고 투쟁하며 전진하고 승리하는 이 땅에서는 우리 식이 아닌 남의것, 남의 식이 발붙일 한치의 틈도 없다.

가요에는 남의 힘, 남의 기술, 남의 두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민족자존의 조선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퍼덕이는 붉은 기폭처럼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가요가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공장을 건설해도 토지를 정리해도 우리의 식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조선의 영원한 녀이고 신념이며 꺾을수 없는 조선의 의지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눌지 않는 이 신념, 이 의지도 우리 장군님의것이다.

우리의 식,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식이며 위대한 장군님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하는 그 가슴저린 순간 그 무슨 《변화》에 대하여 떠벌이는 원쑤들에게 모든것을 수령님식으로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것, 정치방식도, 군사도, 경제와 문화도 오직 수령님식, 우리 식이 있을뿐이다.

개인의 선택은 한사람과 한가정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령도자의 선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환희와 기쁨, 슬픔과 우여곡절도 많았던 20세기도 저물어가던무렵 온 인류가 대정치지진속에서 진통을 겪고있던 때, 더욱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 과연 조선이 이 행성우에 살아남을수 있겠는가고 세계가 우려하고있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선군정치를 펼쳐나가시였다.

선군정치, 이것은 우리 식의 정치방식,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기약하는 위대한 수령님식 정치방식, 위대한 장군님식 정치방식이다.

이 위대한 정치방식이 사회주의조선에 있어서,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였는가를 력사가 증명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한 결심과 완강한 실천으로 이 선택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만천하에 증언하신것이다.

참으로 우리 식, 이것은 우리모두를 가슴벅차게

하는 민족의 자존, 조선민족제일주의이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인류의 영원한 리상이고 유일하게 정당한 생존방식이다.

참으로 가요에서 이처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는 《우리 식》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의지, 궁지와 자부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솟구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생명파도 같이 소중하고 위대한것이다.

가요 《더 높이 더 빨리》에는 가사 《과학과 기술의 목표를 점령해도 최첨단수준으로》에서 뚜렷이 볼수 있는바와 같이 강성대국을 건설해도 세계최상의 리상향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과 철의 의지가 뜨겁게 구현되어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의 한복판에 높이 세우고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사무치게 한가슴에 안고계시는 애족, 애민의 뜨거운 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분수령을 이룬 지난해의 기적적인 승리에 대하여 궁지높이 돌이켜보시면서 하신 뜻깊은 말씀 우리의 가슴을 친다.

조선은 세계에로!

세계는 조선을 쳐다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념원이고 배짱이며 담력이고 의지이다.

세상에 령도자는 많아도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정을 안으시고 민족자존의 녀으로 심신을 불태우시는 령도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이 세상의 오직 한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갈 일편단심에 불타고 있는것이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천만군민의 무적의 힘이 있어 우리는 강성대국에 기어이 승리의 문패를 달것임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이리하여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그 한편으로 강성대국건설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치로 되였다.

이처럼 가요 《더 높이 더 빨리》의 구절구절과 자자구구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인적인 심장의 박동소리가 세차게 울리고있다.

바로 여기에 한편의 노래로 웅근 한시대를 얻은 가요의 자기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선군혁명문학과 음악이 높은 수준을 돌파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가리킨 가요의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 혁명적락관주의의 구현인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작사 김정훈, 작곡 우정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인생관을 담은 조선고유의 혁명적락만과 락관주의정신이 전형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선군시대의 또 한편의 명작이다.

우리의 노래는 락관으로 비판을 이기고 랑만으로 절망을 짓부셔버리는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며 핵탄보다 더 위력한 인간정신력의 정화이다.

우리 식 혁명적락관주의,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을 일관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품과도 같이 체현하고 계시는 숭고한 혁명적기질이며 그것을 그대로 닮은 조선민족의 혁명적기상이며 기백이다.

조선고유의 이 특유한 혁명적락관주의는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의 첫절에서부터 선명하게 안겨온다.

즐거워 이 저녁 다정한 동무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 행복 몸바쳐 지킬 때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날 곳을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

여기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돌격대인 우리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이 승리, 이 기적을 미래에로 이어 일단 이 행복을 지켜 몸바쳐싸울 때가 온다면 전선으로 달려나갈 열렬한 결의가 비껴있다.

여기에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혁명을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과 행복을 누릴줄만 아는 향유자가 아니라 그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가 되려는 조선청년들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참전자들인 우리 청년들은 저들이 건설한 락원에서 행복을 누릴 꿈을 꿀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복, 그 락원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기에 조국을 지켜싸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것이다. 이것은 진정 돈과 재물, 개인향락의 진창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물질생활에서 기형화되고 정신생활에서 빈궁화되었으며 정치생활에서 반동화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혁명적인 정신세계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라는것이 우리 조선청년들의 긍지높은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다.

숭고한 청년중시사상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키우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있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은 민족의 꽃이고 미래이며 그 꽃이 시들고 밟히고 썩으면 민족은 아름다운 향기도 미래도 없고 혁명은 무의미하고 삶 그자체도 무의미하다고 보신다.

바로 여기에 세상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 그 물음, 불길속에서도 폭풍속에서도 마를줄 모르는 조선청년들의 그 깨끗한 마음과 혁명적락관주의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그것은 조국이며, 인민이며, 그대의 청년들을 자랑하라는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장군님만을 그리며 따른 그 순결하고 소박하며 아름다운 그 마음, 그 위훈을 자랑하라고.

정녕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귀중한 조국을 위해 한몸 바칠 때가 온다면 서슴없이 전선으로 달려나갈 고결한 정신을 낳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선청년들에게만 고유한 이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확인한데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가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있게 반영한 사상미학적근거가 있다.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에서의 혁명적락관주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우리 영웅전사들이 조국을 지켜 그렇게 싸웠듯이 오늘에 부르던 행복의 노래를 군용차에 싣고 가며 그날에 만나서 마라초 나누고 화선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함께 들리라는 2절과 3절에서 더욱 뜨겁게 울리고있다.

여기에는 혁명적락관주의는 필승의 신념을 지닌 승리자에게만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라는 심오한 인생의 철리가 새겨져있다.

가요에는 영웅전사들이 그러했듯이 노래와 아름다운 추억으로 싸움을 이기고 화선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들리는 확고한 승리의 신심이 차넘치고 있다.

가요에 일관되고있는 이러한 혁명적락관주의는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의 후렴구에서 더 높이 고조되고있으며

# 동 봉 사 람 들

최 정 용

창가에 새벽빛도 어리기 전에  
서둘러 집집마다 문이 열린다  
어둠속에 다그치는 발걸음소리  
포전에 울리는 두런두런 말소리  
이렇게 시작된다 동봉의 아침은  
농장원들 스스로 정한 량심의 일과표따라

오시고 오시고 또 오시여  
사랑을 주시고 민음을 주신  
어버이장군님 앞에  
다진 맹세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머리 들고 살랴  
가슴 뚫이며 불같이 사는 동봉사람들

살점같은 한줌한줌의 흙에  
귀한 자식같은 포기포기에  
봄내 여름내 온 가을내  
벌에 살며 온갖 정성 기울여왔어도  
다함이 없더라 그들의 마음엔

우리 장군님 그 가르치심대로  
지대에 맞는 우량종자에  
논밭이도 깊이 하고  
앞그루 뒤그루 따져가며  
포전마다 두엄도 듬뿍 내어  
그들은 이겨냈다  
랭해로 지난해에도 다닥친

그 모진 자연의 광란을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불같은 그 정성  
동봉땅에 흐뭇한 가을을 마련했거니  
동해안농사는 어쩔수 없다는  
지난날 돌같이 굳어진 관점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은 동봉사람들

동해안농사의 표본농장이 되라고  
무한한 헌신으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아, 우리 장군님  
그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결사관철한 그들의 수고를  
시대앞에 높이높이 내세워주시며

알곡생산의 첨단을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 한마음으로  
이 아침도 서둘러 살거니  
그 무한한 정신력으로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동봉사람들은

사회주의본태를  
변함없이 지키고 빛내이며  
강성대국령마루에  
궁지높이 올라설 동봉사람들은  
아, 참으로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전선에서 만나자》라는 3절의 후렴구에서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이 후렴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와 같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준엄한 시각에도 최전선에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리라는 확고한 신념,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강하게 울리고있다.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에 고유한 것처럼 강렬한 혁명적락관주의는 추억에 남는 잊을수 없는 승리의 축배를 들자는 노래의 무곡풍의 선율(왈츠곡)과 조화롭게 결합됨으로써 더욱 강렬한 음악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처럼 가요 《전선에서 만나자》는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 높이 더 빨리》와 함께 선군시대의 특출한 명작으로서 그 높은 사상예술

성을 유감없이 과시하고있다.

선군시대의 명작인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과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전선에서 만나자》는 우리 작가들에게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당신들이 한편의 시와 소설, 노래, 그것으로 위대한 시대의 전진을 능히 추동하는 기수가 되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려거든, 하여 명작창작에서 높은 수준을 돌파하려거든 위인의 심장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추라.

한편한편의 시와 소설, 노래, 그것으로 위인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그 위대한 세계를 시와 문장, 선율에 담아 분출시킬줄 아는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라.

그대들의 심장이 수령결사옹위의 일편단심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명작창작에서 능히 새로운 성과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련 시

## 영원한 어머니 대동강

박 철

### 손녀와 대동강

기다리던 봄이 왔구나  
얼음 풀린 대동강으로  
나는 나왔다  
겨우내 걸음마를 익힌  
세살잡이손녀를 데리고

강도 우리를 반기는가  
기슭에 달려오고달려오는 물결  
나의 인생이 비껴있는 강에  
나는 손녀를 세운다  
—미연아, 대동강이다

야— 환성을 터치는 손녀  
그도 그려왔더냐  
넘어질듯 달려가  
고사리같은 손으로 강을 휘저으며  
깎깎 고운 웃음 물우에 띄운다

이제 손녀는 꽃처럼 피리라  
낮이나 밤이나  
주체사상탑봉화아래  
불타며 굽이치며

장엄히 흐르는 그 붉은 물에  
나처럼 생의 뿌리 내리고

수도의 벅찬 숨결로  
정깊게 불러주는 노래  
삶의 갈피갈피에 새기며  
자라나리라  
조국의 딸로 굳세고 대바르게

내 머리 희도록 안고살아온  
애국의 피줄기  
푸른 대하에서  
보아라, 두손에 넘쳐나게  
맑은 물 떠올리며 정을 맺는  
사랑스러운 저 모습

가슴에 뜨겁게 흐르리라  
일생 애국으로 피땀겨 살리라  
손녀는  
대동강이라는 조국이라는  
어머니 품에서 웃음짓누나

### 젓 줄 기

나는 예순나이  
손녀는 이제 세살

내 태어나 이 강물로 몸을 씻고  
이 기슭에서 살아 60년

손녀는 태어나 이 강물로 몸을 씻고  
이 강반에 살아 3년

나와 손녀는

한대를 건너 몇십년 차이던가

허나 강물우에 비긴  
우리의 모습은 자식들 모습

그렇더라 나처럼 손녀도  
달디단 이 강물 마시며 살려니

대동강은 한어머니여라  
나를 먹여준 젓줄기로 손녀도 키워줄!

### 유 램 선 이 떠 있 다

나의 손녀를 기다려  
태우고 떠나갈 배인듯  
새봄을 맞아 새옷으로 단장한  
하얀 유람선 유람선

이제 강가에 버들이 움트고  
개나리꽃 만발한 4월이 오면  
돛을 올리고 떠나갈 배  
손녀는 저 유람선을 타리라

바다에 갑문을 막아  
풍랑이 없는 강물

정교하게 돌을 쌓아올려 화려한 강반  
그 강으로 손녀는 타고가리라

저 배처럼 조국은 태우고 가리라  
유치원으로 소학교로...  
이 강물의 흐름 끝이 없듯  
끝없이 끝없이 아름다운 미래로

눈오나 비오나 어머니조국이  
힘차게 노를 저어저어  
나를 싣고 달려온 행복의 배  
손녀의 한생을 태우고 가리라

## 갈 매 기

나는 지금 강가에 서서  
손녀와 함께 바라본다  
저기 양각도쪽에서 날아오는  
한마리 하얀 갈매기

바다새가 어떻게  
여기 평양까지 날아왔는가  
훨훨 젖는 나래에  
손녀는 터치는 기쁨을 싣고  
나는 마음을 엮는다

말해다오 너 갈매기야  
내 손녀의 꽃같은 얼굴  
품에 안아 쓸어주고싶어  
서해의 해병들 두손으로  
높이 띄워 날려보낸것 아닌지

귀여운 아이들아  
대동강이 출렁이게 크게 웃어라  
불구름을 맞받아나가며  
해병들 지은 미소  
날개우에 싣고 오진 않았는가

손녀야 말한들 어이 알랴  
평양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장군님의 용감한 해병들  
바다를 지켜 싸우고있는줄

차디찬 바다물에 젖고  
전투의 붉은 피로 젖는  
그들의 가슴에  
대동강이 굽이치고있음을!  
저들의 삶이 안겨있음을!

갈매기의 흰나래에  
손녀는 그냥그냥 손을 젖고  
나의 가슴엔  
서해의 파도가 일고이나니

손녀와 대동강 우리 평양이  
귀엽고 유정하고 귀중할수록  
눈앞에 가득한 해병들 모습  
아, 내 마음의 하늘에 날아에는  
갈매기 서해의 갈매기!

## 대 동 강 가 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듯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손녀는 나에게 조른다  
대동강에 가자고

제 어머니 제 아버지도 휴식해  
그 살뜰한 품에서  
어리광부리며 놀아도 되련만  
강이 더 좋은듯 대동강 가자고

그 무슨 정인가  
어느새 철없는 작은 가슴에도

대동강이 자리잡고  
즐겁게 흐르며 손짓하는가

내 심중에 차넘치는  
사랑과야 같으랴만  
기쁘다 대동강에 가자는  
손녀의 그 떼질 그 동심

하루라도 어머니와 헤어지면  
어서 엄마한테 가자고  
손을 끌며 조르는 그 심정 아닌가  
—할아버지 대동강 가자

## 마 음 은 봄 계 절

간밤에 비가 내렸던가  
이 아침  
대동강유보도 계단우에  
내려 황홀하게 깔렸구나  
살구나무의 노란 락엽이

그 정갈한 잎새우를  
나는 손녀의 손잡고 걷는다  
내 머리로 인생의 단풍  
하건만 봄계절인듯  
이리도 마음 마냥 즐거우나

평생 밝고 살아온 기슭이  
하 깨끗하고 아름다워  
내 정을 다해 사랑해온

대동강의 맑은 물이  
이처럼 줄어들줄 모르고 풍만해

저기 보라 내 젊은 날  
땀흘리며 놓은 공원의자에 앉아  
꿈을 나누는 대학생들  
나의 보람찬 청춘시절이  
미래를 받들어 오늘도 불타거니

아낌없이 후덥게 바친  
우리 세대의 낮과 밤  
후손들의 날과 달이 되어  
이 강반에 넘치게  
행복의 노래 엮고엮으리

손녀는 좋아라 깨끼뽀 한다  
천만년 강성할 평양  
무궁토록 번영할 대동강

락엽우를 걸어도 나는 흥겹다  
햇순같은 새 주인 함께 있어라

## 부 디 바 라 건 대

세살잡이  
강이 좋다는것밖에 무엇을 알랴만  
손녀야 이 할아버지 바라건대  
너 커서 이 기슭에  
네 손으로 나무 한그루라도 심어라

그날에 비가 억수로 내려도  
그날에 눈보라가 불어쳐도  
그 눈비를 가리지 말고  
바라건대 구슬땀 뿌리며  
기슭에 돌 하나라도 정히 쌓거라

강가에 물오리가 내려앉았다고  
룽삼아 돌 하나 던지지 말아라  
물이 맑고 깨끗하다고  
저도 몰래 손수건 하나라도 헤워  
비누거품 강물에 흘려보내지 말아라

대동강을 잇고 살면  
어머니의 자장이 잇는것이다  
대동강을 안고 살면  
먹여주고 배워주고 키워준  
조국의 고마움 안고 사는것이다

인생의 머나먼 길  
너 돌격대나 군대에 나가도  
부디 바라건대 손녀야  
이 맑은 물 떠가지고 가거라  
떠가지고 가 마음을 적시며 살아라

그러면 그러면 아  
어머니대동강은 안겨주리라  
평양의 딸 선군시대의 공민  
너의 삶에 위훈과 영광을  
강물처럼 넘치게 강물처럼 영원히

## 동 봉, 그 이 름 은

서 진 명

농사차비로 들끓는 금야벌에도  
후치령기슭의 외진 밭머리에서도  
힘이 넘치는 선동구호가 되어  
진군의 북소리가 되어  
높이 울린다 동봉, 그 이름은

서해안농장과 배심 좋게 경쟁을 걸고  
정당 열론이 넘는 호숫한 풍작으로  
통장훈을 불러  
장군님께 기쁨드린 동봉땅사람들처럼  
뜻깊은 올해를 풍작으로 빛내이자  
불같이 달아오른 심장들에서  
불같은 맹세의 말이 울려나온다

동봉, 그 말은  
랭해가 심한 동해안 농촌들에서는  
풍년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는  
오랜 세월 굳어졌던 그 판념을  
말끔히 털어버렸다는것을 의미하거니

산같이 쌓아올렸던 거름무지들  
포전이 꺼지도록 두툼히 퍼며  
더운 땀을 아낌없이 흘리고있는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동봉사람들의 그 심장의 박동으로 고동치고

깊이갈이도 우량품종도  
주체농법대로 해가고있는  
농장원들의 밝은 눈들은  
동봉벌처럼 제 고향에도 목직이 떠실린  
금나락의 물결 알찬 열매를 보고있다

온 나라 사람들 다 알았어라  
동해안의 모든 농장원들이  
동봉처럼 서해안농장과 경쟁을 걸고  
어떻게 알찬 나락들을  
포전마다 무르익히고있는가를

땅을 기름지워도 동봉사람들처럼  
열매를 주렁지워도 동봉의 포전들처럼  
공동시설의 구절구절로 뉘뛰는 심장들은  
신심도 드높이 기세도 백배해  
날과 날을 위훈으로 위훈으로 빛내가고있거니

위대한 우리 장군님  
동해안의 그 어느 농장을 찾으셔도  
잘 익은 이삭들을 안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실 그날까지  
동봉, 그 이름은 울리고울리리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 불을 지퍼주며  
농장원들의 걸음마다 날개를 달아주며

# 후대들에게 황금산, 보물산을 물려주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평론

## 시인의 《눈》은 무엇을 보았는가

김영순

…한 녀인이 산을 오르고있다. 무성한 수림, 거친 돌밭투성이길, 가파로운 산벼랑… 나이도 지숙한 연약한 녀인이건만 기쁨에 겨워, 활기에 넘쳐 성큼성큼 산을 오르고있다. 그를 반기는듯 나무도 설레이고 자주꽃자리, 큰조아재비 등 풀판의 풀잎새가 새벽이슬을 머금고 반짝인다. 가벼운 미풍에도 어리광치듯 뒤설레며 체법 《좌- 좌》 소리를 지르는 산의 음향에 귀기울이며 다정히 애모뿐 미소를 보내는 녀인.

산의 여기저기를 다심하고도 섬세한 눈빛으로 굽어보며 흐뭇한 웃음을 떠올리는 그 녀인은 누구인가.

앞산의 염소무리와 양무리를 소리쳐불러도 보며 올봄에도 더 늘어난 《식구수》를 기쁨속에 헤어보며 산에 끌어들, 산에 매혹되어 또 산에 났을 빼앗기여 오르고오르는 녀인, 그는 바로 이 산의 주인, 이 산을 가꾼 녀인이며 영웅관리위원장이다.

척박한 돌밭뿐인 이 산을 보물산으로 걸구어온 한 녀인의 한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처럼 안겨오는 생동한 화폭.

소설인가?

아니다. 시이다, 소설같은 시. 《산- 녀인》(리연희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3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또한 같은 대상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일으키며 그에 대한 체험정도도 서로 다르다.》

조용히 읊어내려갈수록 녀인의 한생을 감동깊이 그린 시의 세계에 가슴이 뭉클 젖어내린다.

산을 가꾼 녀인, 산과 녀인… 오로지 조국의 산을 가꾸며 온넋과 사랑을 산속에 묻으며 살아온 녀인의 모습이 눈앞에 살아움직이듯 생동하게 안겨온다.

소설의 줄거리같은 한 녀인의 이야기.

이것을 시적화폭으로 형상한 시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시는 처음부터 회화적구체성을 띠고 녀인과 산의 모습을 생동한 정서적화폭으로 감동깊은 필치로 그려나가고있다.

산이 무섭지 않던가고, 힘들지 않던가고 묻는 말에 빙그레 미소만 지을뿐인 한 녀인.

왜 무섭지 않았으랴.

《걸음걸음 바위돌을 들어내며/ 억척같은 뿌리들과 싸워야》했고 《캄캄 깊은 밤에도/ 횃불을 앞세우고 한치한치/ 한겨울 미끄러운 눈속에도/ 불도젤을 떠밀며 한굽이 또 한굽이/ 방목길을 다져가던 15리》 길이었다.

…

그는 혼자 말하지 않았습디다

…

우우- 설레며 화답하며 메아리치며  
녀인의 품에 달려와 안기는 산… 산

…

그렇다, 녀인은 혼자가 아니였다.

그러면 누구인가? 바로 말없는 산, 녀인이 가꾼 산이었다.

어찌하여 한 녀인의 모습속에 또 다른 산의 모습이 가슴을 두드리며 안겨오는것인가.

그러면 시인의 《눈》으로 본 산과 녀인은 무엇이었는가.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창작동기는 한 녀성관리위원장을 취재하면서 얻은 충격때문이었다.

연약한 녀성의 힘으로 거대하고도 거치른 산을 가꾸어 보물산으로 전변시킨 이야기는 시인의 심장을 달구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의 형상으로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조국의 산을 가꾸는 이야기, 소설의 글감은 될 수도 있었지만 시의 생명인 서정으로 감정이 승화되지 않았다.

녀성관리위원장은 산을 어떻게 보물산으로 가꾸

었는가? 어떤 힘이 그 녀인으로 하여금 비내리고 우뢰치는 날이면 잠 못들고 산으로 달려나가게 하였으며 사시절 그 산과 함께 사는 불같은 녀인으로 만들었는가. 시인은 바로 그 힘을 낳은 비결을 시인의 《눈》으로 찾아냈으며 정서적체험으로 심장을 뚫어냈다.

녀인과 산, 산과 녀인.

시인의 《눈》은 이 두 대상을 하나의 《혈연관계》로 보았다. 즉 자식과 어머니,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바로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에도 녀인은 몸부림치는 산의 음향을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었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깃든 산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어 큰비에 산이 패일세라 정성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녀인과 산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본 시인의 남다른 《눈》, 산을 가꾼 이야기를 자식을 키운 이야기로 뜨겁게 감수한 시인의 심장이 이 시를 서정의 평마루로 올라서게 한 비결이다.

정녕 이 산을 위해 녀인이 있는것이 아니었던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이었기에 녀인은 《힘겨워도 진할줄 모르는》 힘이 샘솟았으며 《고생이여도 고생인줄 모르는 행복이》 가슴을 불태웠다.

그래서 《기울인 그 정보다 바쳐야 할 그 정은 그 얼마인지/ 따로 헤아릴줄 모르는 녀인의 사랑이》 그의 온 심장을 짊어졌던 것이다.

시인은 한 녀인의 하많은 수고를 《허리띠세부》와 《손세부》를 통하여 함축된 화폭으로 감동깊이 펼쳐보이고 있다.

...

연두봉 구름봉...

녀인과 함께 올라선 굽이굽이

내 벅찬 숨을 뚫으며 돌아보니

첩첩 산마다 휘여감은 저 길들은

그날에 풀새 없던 녀인의 허리띠가 아님니까

...

그랬다. 녀인이 산을 가꾸어가던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산나물죽으로 끼니를 예워가면서도 녀인은 더 역세게 허리띠를 조여매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산을 가꾸었다. 배고픔도 피로움도 그 허리띠로 이겨내며 래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불덩이같이 살아온 녀인.

바로 녀인이 가꾸어온 첩첩 산마다 휘여감은 저 길들이 그날에 풀새없던 녀인의 허리띠가 아닌가고 노래한 시줄속에서 독자들은 그 《허리띠》가 어려운 나날 풀수 없었던, 짝 조여매야 했던 우

리 인민의 《허리띠》, 의지의 《허리띠》로 안겨온다. 또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해 오르던 투쟁과 랑만의 허리띠로 안겨온다.

녀인의 손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던가.

힘한 바위에 굽히우고 찢기우며 거칠지고 산줄기모양으로 가로세로 터갈라진 손, 《드세찬 장난군아들》을 《매》를 들며 키워가는 역센 녀인의 모습이 그 손에 다 어려온다.

조국의 산을 아름답게 가꾼 녀인의 손! 그래서 그 손은 거치른 손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하기에 시인은 산허리를 휘여감은 길들을 녀인의 허리띠로 안아보기도 하고 녀인의 손길로 여겨보기도 하며 모성애를 기울여 키워온 산과 그 어머니를 하나로 융합시켜 뜨겁게,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정녕 영웅관리위원장에게 있어서 명실공히 산은 자기의 살붙이였다.

산도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

아

녀인의 품에 안기여

태연히 웃고있는 산

나는 산의 표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녀인의 품에 안긴 산.

억지가 아닐가? 산이 녀인을 안았다고 할수 있어도 그 덩치 큰 산이 녀인의 작은 가슴에 안겼다고 하는것은 무리가 아닐가. 아니다, 그것은 억지스럽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게, 뜨겁게 독자대중을 납득시킨다.

시의 마지막련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시의 련과 행들이 독자들의 심장속에서 끊임없이 고래치고 있다.

시가 남겨준 철학적여운때문이다.

이 마지막련이 없었더라면 이 작품은...

이 련으로 하여 시는 자기의 박동을 가질수 있었고 맥박이 뛰는, 살아숨쉬는 시로 될수 있었다.

산은 녀인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말없이 웃고 있다. ...

산도 웃고 녀인도 웃는다. 어머니품에 안겨 웃는 아기, 이것이 시인이 새롭게 찾아낸 종자이고 시적발견이다.

시인의 감각적인 눈에는 녀인이 가꾼 푸른 산의 설레이는 모습이 마치도 웃는 얼굴로, 웃는 아기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겨왔다.

시는 제목도 매우 인상적이다.

《산과 녀인》도 아니고 《산— 녀인》이다.



산과 녀인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모습으로 보았기에 즉 산이자 녀인이고 녀인이자 산이었기에 이렇게 제목을 독특하게 달았으리라. 이를 통하여서도 작가의 깊은 사색의 결실을 다시금 보게 한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시인의 생신한 얼굴이 엿보이고 새로운 철학적발견이 느껴진다.

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것을 감수하고 인식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시인의 감각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것에서 새롭고 철학적인 것을 발견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인의 뒤흔들음이 있다.

시인의 남다른 정서적인 《눈》! 이것은 시인의 심장을 불태우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라고 본다.

그 《눈》으로 감수된 생활만이 시인의 심장을 끓일수 있고 독자—인민의 심장을 불태울수 있다. 그래서 시인의 《눈》은 곧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 《산—녀인》을 쓴 이 시인이 지닌 그 녀성 특유의 정서적인 《눈》으로 펼친 서정은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남기고있다.

그것은 녀성관리위원장의 감정세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다 펼쳐보여주기때문에 감정이 처지고 씹을 맛이 적어진것이다.

큼직큼직하게 함축비약의 수법으로 생활을 그려

도 다 안겨오겠는데...

혹 시인의 로파심은 아닌지?

다른 한가지는 시인의 심장과 독자들의 심장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무지개다리처럼 아름답게 정서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좀 딱딱하게 뒤틀려있는 감이 느껴지는것이다.

시에서는 시인이 느끼는 그 시적감정이 보다 정서적인 시어로 접근하지 못하고 소설적인 묘사로 펼쳐지다보니 시가 내포하고있는 뜨거운 서정이 독자들의 심장에 더 뜨겁게 전달되지 못하는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가 거둔 성과에 비해볼 때 옥에 티와도 같은 자그마한 결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시를 다시 보고나면 산을 오르는 녀인, 산을 한 품에 안은 산의 어머니—영웅관리위원장과 그 품에 안겨 웃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의 눈앞에 다가든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는, 날마다 좋은 변이 나고 리상이 실현되며 흥하는 세월에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영웅관리위원장과 같은 주인공들이 태어날것인가.

선군시대의 애국자들을 시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데서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인들은 보다 뜨겁게, 보다 새롭게 오늘을 인간을 보아야 할것이다.

## 벽 시

## 합 격 외 1편

### 조 영 사

분기생산계획을 결속하는 날  
나는 검사도장을 들고 현장에 나갔네  
인상좋은 압연직장장 나에게 말했네  
질과 량을 높이느라 품을 들였다고

어찌 질과 량에 만족이 있었던가  
100번째의 통구리철근

길이가 약간 모자랐네  
그것은 규정상 허용수치였네

검사증에 합격도장을 찍으려는데  
직장장은 자기의 량심을 호소했네  
자신의 가슴에 불합격도장을 찍으라고  
나는 찍었네 그의 량심에 《합격》도장을

## 합 격 과 불 합 격

나에겐 쌍둥이 두 딸이 있다오  
애지중지 키워온 맏시군 두 딸  
아침마다 나에게 《검사》를 받소  
—아버지 우리들 옷차림 어때요?

치마저고리 윤기 흐르는 외태머리  
첫째의 옷차림은 《합격》이다

둘째도 나에게 《검사》를 받소  
긴머리 짧은 치마 《불합격》이다

생각되여라 가정에서 《합격》 《불합격》은  
사회생활에서도 《합격》 《불합격》 되거니  
내 제품검사에서도 이처럼 엄격했던가  
자식의 앞날을 책임진 부모처럼



김정희

교수강습을 끝내고 며칠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두통의 편지가 해연을 기다리고있었다.

손에 잡히는대로 들고보니 뜻밖에도 발신인주소란에 《설림에서 수연》이라고 써여있었다.

(어마나, 수연이가 편질 다 쓰다니?)

정말 반가웠다. 둘도 없는 친구인 수연은 대학 동창으로서 지금 외진 산골군인 설림에서 교원생활을 하고있다.

서둘러 속지를 꺼내들었다. 허나 만장같은 사연을 기대했던바와는 달리 종이장엔 덩돌하니 두줄짜리 문장뿐이었다.

《결혼식초대장. 날자 1월 20일. 장소 설림.》

(아니, 애가 날 놀리는게 아니야? 오늘이 며칠이길래?)

해연이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월력을 쳐다보니 결혼식날자는 래일이다.

이렇듯 빠듯하게 날자를 알려주는 수연이가 앞에 있는듯 땡땡이, 답답이... 속으로 별 욕을 다 하면서도 해연은 이제 오후차를 잡아타고 설림에 갈 궁리를 하였다.

하많은 사연으로 얹혀진 수연의 결혼식은 만사를 져쳐놓고라도 꼭 보고싶었다. 그달음으로 해연은 학교로 달려나갔다.

학교에서 교수강습참가정형도 보고하고 또 설림에 다녀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그는 곧장 역으로 향했다.

때마침 기다리고있기라도 한듯 며칠째 찌프리고 있던 하늘에서 갓난아기 주먹같은 눈송이들이 펄펄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여느때같으면 천진한 아이들마냥 내리는 눈송이들을 두손바닥에 받아도 보고 눈을 뜬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뿐 얼굴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재미도 맛보았으련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목적지인 설림까지 가자면 기차로 세시간, 빠스

로 그만큼 가야만 한다.

정작 길을 떠나고보니 온통 근심뿐이다. 기차가 제시간에 떠나겠는지, 빠스가 눈길에 말뚝을 부리지나 않겠는지. 이왕 떠난김에 상을 물리기 전에 가당으면 좋으련만...

렬차는 조금해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듯 정시에 역을 떠났다. 그제서야 해연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더더욱 세차게 쏟아져내리는 눈송이들을 헤치며 거침없이 내닫는 렬차의 고르로운 동음은 즐거운 려행길에 오른 해연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해주었다.

(수연이가 정말 결혼을 한단 말이지. 그와 한생을 약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가?)

해연은 궁금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제멋대로 그의 신랑감을 그려보았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미끈한 청년, 체대군인이며 대학공부까지 한 의젓한 청년이 그를 마주보며 빙글서 웃는다.

《어떻습니까? 수연동무와 짝이 될만 합니까?》

해연은 저도 몰래 상상속의 그 청년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보았다.

(정말 그랬으면...)

해연은 달콤한 생각에서 깨어날가 두려워 조용히 두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쿵쿵 레루를 두드리는 진동소리와 함께 생각은 끝없는 과거의 나날에로 떠밀려갔다.

...수연과 해연은 한낱한시에 산원에서 태어난 아기적동무이다. 체대배낭을 한합숙방에 풀어놓았던 아버지들의 인연때문인지 아니면 앞뒤집에 살면서 음식그릇들을 자주 바꾸곤 하던 어머니들의 친절때문인지 그들사이엔 철들기 전부터 정말 각별했다. 이름도 하나는 수연, 하나는 해연, 생김만 비슷했다면 영낙없는 쌍

동인줄로 알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곱게 생긴 수연이, 잘생긴 해연이라고 불렀다. 다 자란 후에도 생김새만은 변함이 없이 더 곱게, 더 활짝 피어 수연인 역시 곱게 생긴 처녀로, 해연은 잘생긴 처녀로 불리웠다.

하긴 그들은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격 또한 달랐다. 끝없이 고지식하면서도 밝고 명랑한 수연이가 언제나 못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만을 안겨주었다면 반대로 해연인 더퍼리였다. 아무 일이나 엉뚱뚱 뒤흔들기 잘하고 분별없고 게다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솟아날 구멍이야 있겠지 하는 늘큰한 성격...

《수연이가 큰 배의 기관장이라면 우리 해연인 꼭 그 배에 끌려다니는 고기그물이라니깐.》

늘 함께 붙어는 다니지만 언제 봐야 수연이가 하자는대로 따라하는 그를 보고 아버지는 섭섭한 나머지 이 말을 중이 넘볼외듯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해연은 수연이가 좋았다. 왜냐면 수연은 마음이 착하여 그 무슨 놀음을 하든 상대방을 섭섭하게 할줄을 몰랐고 대바르고 아량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수연과 해연이가 더더욱 친한 동무로 될수 있는 것은 소학교시절의 따뜻한 어느 봄날부터였다.

손목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들은 휴식일인 다음날 아침 공원으로 나가 나비랑 잠자리랑 잡으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약속하였었다.

그런데 덜통스러운 해연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것은 때마침 집에 와있던 사촌언니와 재미있게 놀다못해 해연이가 그를 따라가 그의 집에서 다음날까지 보내고 왔던것이다.

그날 가지고 온 첫물딸기를 수연이와 나누어먹고 싶어 오는 걸음으로 찾아갔던 해연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글썽 토방에 오도카니 앉아있던 수연이가 그를 보고 반갑게 소리치며 달려올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못 본척 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혹시나 하여 여러번 찾았으나 대답조차 없었다. 영문을 알수 없어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간 해연은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연이가 키 낮은 책상에 엎드린채 슬피 울고있었던것이다.

《수연아, 왜 그러니? 누가 뭐라던?...》

그의 물음에 수연은 대답대신 더 크게 울었다.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넌 내 동무가 아니야.》

《아니, 뭐라구? 수연아, 너 왜 그러니. 응?》

《넌 나쁜 애야. 약속도 지킬줄 모르는 멍멍이. 아니, 꿀꿀돼지. 다신 너와 안 놀래야.》

해연은 그제서야 전전날에 한 약속이 생각났다. 공원에 나가 나비랑 잠자리랑 잡으며 재미있게 놀자던 그 일이...

《수연아, 너 그때문에 성났니? 그렇다면 날 때려줘. 난 정말 나쁜 애야. 하지만 우정 그런건 아니었어. 새까맣게 잊어먹었됐어. 미안해.》

그만에야 해연의 코마루가 시큰해나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손등에 떨어진 눈물방울을 보니 더더욱 서러워졌다. 그만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서로 마주보며 한참 울고나니 이상스레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참후엔 수연이가 오히려 해연을 달랬다.

《울지 마, 해연아. 실은 나도 나쁜 애야. 널 미워했거든. 우리 더 친하자.》

《그래그래, 다신 약속을 안 어길테야.》

그때부터 해연은 수연이와 허투로 약속하지 않았고 일단 말이 난 다음엔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 애썼다. ...

그렇게 자라오던 둘사이에 처음으로 의견상이가 생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문제를 론할 때였다.

《교육부에선 사범대학적으로 소문난 실력가인 해연동무를 도1중학교 컴퓨터교원으로 배치할것을 내정하고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담당부원이 해연에게 물었다.

순간 해연의 가슴은 기쁨으로 하여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희망하던대로 도1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무슨 의견이 또 있겠는가. 해연은 기쁨의 걱정을 억누르며 겨우 말했다.

《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나가보십시오.》

담당부원이 실무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하지만 해연은 수연의 배치문제가 몹시 궁금하였다. 그래서 문가에서 머뭇거리다 물었다.

《저... 하나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수연동문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힐끗 쳐다보는 담당부원의 엄해보이는 눈길에 해연은 그만 기가 질려 서둘러 말꼬리를 이었다.

《우린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

담당부원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꼬리를 길게 끌며 잇달았다.

《그 동무는 산골군인 설림에 보내달라고 제했습니다.》

《예?》

해연은 뜻밖이었다. 너무도 놀라왔다.

해연은 담당부원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고 방문을 나섰는지 그리고 밖에서 수연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자신의 감정을 분간키 어려웠다.

단지 동무와 한마디 토론도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인생문제를 (그렇다, 이것은 중대한 인생문제다.) 결단해버린 수연의 처사가 막 미웠다.

해연은 너무도 분하여 그의 두어깨를 마구 잡아

흔들었다.

《수연아, 너 지금 제정신인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뭐 1중학교를 마다하고 설립엘 가겠지구?》

《미안해, 해연아. 나도 너랑 함께 부모님들이 계시는 이 고향도시에서 살고싶다. 하지만 나야 이미 림철분대장과 약속하지 않았니.》

《뭐라구? 아니 그럼 넌 그때 그 공병분대장과 한 약속때문에?...》

아이참, 넌 언제 가야 그 고지식한 성밀 고치겠니. 그 약속이야 그저 통삼아 한것인데 여태 속에 품고있다니... 아마 그 분대장은 잊은지도 오랄게다. 그때 일을 말아야.》

《그렇수도 있겠지. 하지만 외면하자니 마음이 편안치 않구나. 너는 내 결심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사실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지 오래였어. ...》

(그러니 그 약속때문에 수연인...)

수연의 말은 해연으로 하여금 자연히 지난해 겨울방학때 일을 추억속에 되새겨보게 하였다.

...대학적으로 조직한 예술선동대에 망라되어 수연이네가 스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간것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겨울방학때였다.

건설자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목적지에 도착한 처녀대학생들은 그길로 공연의 막을 올렸다. 건설장을 들었다놓는 북소리와 노래소리, 그에 화답하는 환호소리와 우렁찬 박수갈채...

바뀌는 종목마다 다 이채를 띠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를 끈것은 수연이가 출연하는 독창이며 독주들이었다. 이름처럼 날씬하면서도 볼수록 예쁘게 생긴 수연이가 은방울을 굴리는듯 한 목소리로 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을 때면 《재청!》 소리가 그칠줄 몰랐고 그가 타는 손풍금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혁명가요런곡소리는 온 건설장이 대합창을 부르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타는 물론 크고작은 북과 징을 두드리고 울리는 멋진 모습앞에 모두들 입을 딱 벌리고말았다. 멋있다! 훌륭하다! 전문음악가도 아닌 대학생이 어쩌면 저렇게 만능일수 있는가, 저 처녀야말로 진짜팔방미인이다. ...

공연이 끝나자 맨 선참으로 무대우로 뛰어오른 사람은 다름아닌 인민군대 사관이였다. 빨간 꽃뭉음을 한아름이나 안고온 그 청년은 수연이의 가슴에 그 많은 꽃뭉음을 전부 안겨주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꽃은 우리 분대동무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순간 관람석에서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 바람에 빨갳게 달아오른 수연의 얼굴은 어

쁜 꽃송이들과 더불어 더더욱 아름답게 안겨왔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건설장에서의 첫날밤은 류달리도 맵찔다. 하늘과 땅을 한데 뭉그러놓을듯 사정없이 태질하며 불어치는 칼바람, 그때마다 쏟아져내리는 눈사태...

《처녀동무들, 일은 우리가 다 하겠으니 동무들은 우등불결에서 노래나 부르시오.》

만나는 돌격대원들마다 모두 같은 소리뿐이다. 마치도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라도 한듯.

손에 삽자루를 철세라 빼앗는 사람들, 맞들이를 들세라 제 먼저 들고 달리는 청년들... 그럴수록 대학생들도 흠 한삼, 돌 한개라도 더 나르 고싶어 뛰고 또 뛰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을 에이는 맵짠 눈보라속에서도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더더욱 높아졌고 그것은 그대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얼음을 녹이고 언제의 키를 자래웠다.

《우리 알고지냅시다. 전 공병분대장 림철입니다.》

해연이가 맞들이를 들고 짝패를 찾아 두리번거리고있을 때 키가 늘씬하고 잔등이 떡판같은 한름름한 군인이 앞채를 쥐며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전 해연입니다.》

해연은 김이 문문 나는 그의 짝 벌어진 어깨며 넓직한 잔등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까 독창을 한 녀동무가 수연이라던데 쌍둥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생김새는 분명 다른데 흑시...》

《쌍둥이야 생김새부터가 같은 법이지요.》

《아, 그렇던가요.》

능청스러운 대답과 함께 맞들이의 흠을 와르르 쏟아버렸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달리게 되었을 때 다시금 말을 이었다.

《정말 그 동문 재간등이던데요. 노래도 잘 부르고 못 다루는 악기도 없던데 어디서 다 배웠을가요?》

이제 보니 수연이에 대한 호기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이 재미있어 해연은 신나게 주어섬겼다.

《수연동문 학교때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이였답니다. 천성적으로 음악적재능을 타고난데다가 불같은 정열가이다보니 남들은 소조기간에 한가지 재간밖에 못 배웠는데 그는 모든 악기에 정통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현대 음악대학엔 왜 못 갔습니까?》

《못 간게 아니라 안 갔지요 뭐. 글썄 다과목교원이 된다면서 사범대학 수학부를 지망했거든요.》

그 말에 앞서달리던 청년이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해연을 뒤돌아보았다. 그 순간 해연은 깜짝

놀랐다. 아니 글썽 그 청년이 다름아닌 수연이에게 꽃뭉음을 한아름이나 안겨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이제 보니 동무였군요.》

해연이가 반갑게 소리쳤으나 그는 상관없었다. 땀방울이 번들거리는 너부죽한 얼굴에서 부리부리한 두눈이 의문을 담고 해연을 주시했다. 날이 선 코날아래 무겁게 다물린 입이 경련이 인듯 가볍게 떨렸다.

《아니, 수학부라니? 그건 어째서입니까?》

마치 수연이가 방향전환을 한것이 내탓이기라도 한듯 좀전과는 달리 통명스레 울리는 말소리에 해연은 그만 어이없어 웃고말았다.

《아니, 그야 본인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때 마침 저쪽에서 《휴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에 둘의 대화는 그만 끊어지고말았다.

얼마후 즐거운 춤판이 벌어졌다. 저저마다 손에 손을 잡고 빙빙 원을 지어 돌아갔다. 해연은 그때 무슨 말인가를 즐겁게 나누며 함께 춤을 추는 수연과 공병분대장을 볼수 있었다.

밤이 펴 깊어 작업이 끝난 후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다음날 일정계획을 짜고있는 대학생들 곁으로 공병분대장이 찾아왔다.

《저어, 수연동무 좀 만나고싶어 왔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겠는지...》

차렷자세로 선채 시원스레 말을 건네는 그를 보며 처녀들이 키득거렸다.

(함께 춤추며 말을 하고도 성차지 않는가부지?)

해연이도 이렇게 생각하며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하지만 수연은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절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다르게 아니라 사실은...》

림철은 말쑥지를 떼다말고 불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연기만 몰몰 피워올리는 나무쥬다리를 집어 이글이글 타번지는 불속에 던져넣으며 말을 이었다.

《실은 한가지 부탁이 있어 그러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아이참, 무슨 부탁인지 어서 얘기하세요.》

수연은 정색하여 그를 마주보았다. 심각해진 처녀의 눈빛이 얼굴에 와닿는 순간 림철은 그만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아니, 그만두겠습니다. 생각은 그럴듯한데 실현될 가망이 보이질 않아놔서...》

《호호 참, 이제 보니 분대장동무 줄장부군요. 꺼냈던 말을 삼키다니... 혹시 제가 있어 그러는건 아니예요?》

해연이가 설레발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바람에 바빠난것은 림철이보다 수연이쪽이 더했다.

《해연아, 그러면 내가 따분하지 않니.》

수연은 해연을 꼭 눌러앉히고나서 이번에는 림철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어서 말씀하세요. 병사는 조국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성의껏 들어주겠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좋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림철은 자못 만족해하며 두손을 썩썩 소리가 나게 맞비볐다.

《다르게 아니라 수연동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네에?! 그건 저...》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수연은 물론 호기심속에 귀를 강구던 해연이까지 아연해지고말았다.

《...다과목교원이 되어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지식을 배워주고싶다는 동무의 말을 듣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동무의 그 훌륭한 꿈을 우리 고향 교단에서 활짝 꽃피우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내 고향의 아이들을 동무처럼 모두 팔방미인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줄수 없겠는지요.》

《어마나, 제가 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기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전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동무의 재간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림철의 숨김없는 칭찬에 수연은 그만 귀뿌리까지 빨갛게 익어버렸다.

《아이참, 통담두... 그런데 고향이 어디예요?》

《자강도에서도 마지막산골인 설림입니다.》

거침없는 그의 대답에 수연과 해연은 동시에 두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그런 엉뚱한 부탁이 서슴없이 쏟아질줄이야.

한참후에야 해연은 슬며시 수연을 넘겨다보았다. 당사자인 그는 고개를 수긋한채 손가락끝으로 눈석이물이 질적한 땅에 《설림》이란 두 글자만 포박포박 새길뿐이다. 아마도 억이 막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하는것 같았다. 이런 땀 지원포가 필요한것이다. 그래서 해연은 얼른 말쑥지를 뺐다.

《분대장동무의 욕심이 보통이 아닌데요. 노래나 악기 같은걸 배워달라면 몰라도 어떻게 그런 산골로 가달라고...》

그러자 림철은 단박에 얼굴이 벌개지며 한손으로 뒤머리를 긁었다.

《아참, 내가 지나친 부탁을 했는가.》

그는 별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안합니다. 제 생각만 하다가니 그만...》

멋지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그를 수연이가 막아섰다.

《그런게 아니예요. 분대장동무, 하나 묻자요. 왜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수연의 표정은 진지했다.

림철은 수연을 바라보더니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진중한 표정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주시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나서자란 설림은 너무도 작은 산골이어서 지도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합니다.

군대에 나와보니 오락회시간마다 벌어지는 고향 자랑때면 우리 고향의 이름을 모르는 병사들이 수다합니다.

처음엔 전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땅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가슴에 결의가 끓고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태를 묻고 자라나 한생토록 땀을 묻고 정을 물어오며 가꿔오는 땅, 이 아들을 길러낸 그 고향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번듯하게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제가 철없을적에 담임선생님께 이렇게 물은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도 지도에 이름이 새겨질수 있습니까?〉

그날 선생님은 철없는 저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학생들속에서 나라를 빛내이는 영웅도 나오고 박사도 나온다면,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놓는다면,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그런 마을과 학교로 된다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거예요. 그날을 위해 뜨겁게 살고 열심히 배우며 땀 흘려 일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선생님께 〈예!〉 하고 목청껏 대답했습니다.

수연동무! 바로 그래서 제가 초면이나 다름없는 동무에게 그런 께치없는 부탁을 하게 된겁니다.

수연동무와 같은 교원이 우리 고향의 아이들을 나라의 인재로 키워내고 제가 있는 힘과 정열을 다 바쳐 고향땅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수 있는 선경으로 꾸려놓는다면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몫씩 당당히 말아제길 때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더 빨리 달음쳐갈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림철의 말은 여기서 끝났다. 했으나 수연과 해연은 감동이 커서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병사의 마음속에 그토록 크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는줄 그들은 정말 몰랐던것이다.

《제 괜한 부탁을 해서...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부탁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림철은 돌아섰다. 그리고 뚜벅뚜벅 어둠속으로 멀어져갔다. 그제서야 고개를 번쩍 든 수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잠깐만!》

그다음엔 서둘러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어쩌면 말본전도 찾지 않고 그냥 가세요?》

《제 부탁이 너무 지나친것 같아서...》

《그런게 아니예요. 제 이미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동의한단 말입니까?》

탄성에 가까운 림철의 높은 말소리, 그다음엔 수연의 두손을 덥석 잡고 힘껏 흔든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 애가?)

해연은 보다못해 수연을 소리쳐불렀다. 림철과 헤어진 그가 우등불결으로 돌아오기 바쁘게 닦아세웠다.

《너 정신있니? 그게 무슨 애들 놀음이라고 그런 약속을 하니. 뭐 설림으로 가겠다고? 그건 절대 안돼.》

해연은 너무도 어이없어 야단을 쳤다. 했으나 수연은 여전히 밝게 웃을뿐이었다.

《그럼 어쩌겠니. 다른 사람도 아닌 병사가 하는 부탁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란 말이야. 어느 도시라면 몰라도 하늘땅이 맞붙은 곳으로 가라니 될 말이니?》

해연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등이 달아난 수연이가 해연의 어깨를 눌러 우등불결에 앉혔다. 그리고 자기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점점 사그라져가는 불속에 타다남은 콩다리를 집어넣으며 조용조용 설복을 시작했다.

《해연아, 그 동물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마. 그가 말하지 않았니. 이건 강요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 동문 진심으로 량심에 대고 호소했을뿐이야. 난 정말이지 그의 말을 듣고 감동되었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니. 그래서지 그의 마음을 내가 대신해주고싶구나.》

《넌 참, 마음이 헤뽀게 략이야. 하지만 꿈과 현실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것도 고려해야 할게 아니니.》

《그렇긴 하지만 난 그의 부탁을 거절할수 없구나.》

수연은 《호-》하고 가는 숨을 내쉬었다.

해연이가 그러는 그를 더욱 다그어댔다.

《어쨌든 립장이야 명백해야지 오늘 어쩔수 없다고 양보하면 래일엔 후회하게 된다는걸 모르니? 하지만 그때는 늦어. 그러니 지금 당장 찾아가 취소해. 이자 한 말은 룡담이었다고...》

《아이참, 그렇게야 어떻게...》

《정 못 가겠다면 대신 내가 가마.》  
 해연은 당장 달려갈 자세를 취했다.  
 《그만해, 해연아. 절대로 그렇겐 못해.》  
 수연은 좀전과는 달리 딱 잘라 말했다. 그의 낮  
 으나 조용한 어조엔 감히 어찌지 못할 결단과 고  
 집이 스며있었다.

그후 수연은 설림으로 떠나갔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흘렀다. 했으나 수연은 그  
 처럼 즐겨하던 극장구경도, 동창생들과의 상봉  
 도 다 잊었는지 단 한번도 오지를 않았다.

외동딸이 하도 보고싶어 그의 어머니가 설림을  
 다녀왔다. 우연히 해연을 만난 그의 어머니가 그  
 를 붙어잡고 수연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우리 수연인 그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네  
 소리뿐이더라. 보고싶다, 그림다, 이곳에 함께 오  
 지 못한게 후회된다.》

그다음엔 또 시간타령뿐이더라. 마음껏 날아  
 야했는데 시간이 모자란다나. 낮에는 수업을 하면  
 서 음악소조를 운영하고 밤에는 또 농장치녀총각  
 들에게 악기를 배워주느라 통 짬을 내지 못하더구  
 나. 헤어질 땐 너더러 산골구경하러 꼭 오란다고  
 신신당부하더라.》

그때 해연은 저도 몰래 눈앞이 뿌옇게 흐려  
 졌다. 생소한 고장에 홀로 간 수연의 심정이 아  
 릇하게 안겨왔다. 미안스러웠다. 아니, 죄스러웠  
 다. 예로부터 동무따라 강남엘 간다고 했는데 응  
 당 나도 그와 함께 갔어야 했을걸... 해연의 생각  
 이었다.

(이제라도 가자. 처녀 한시절 동무삼아 설림  
 에서 살고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해연이 밤새워 힘들게 이런 결심을 내렸으나 자  
 고 깨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사이 무척도 정든 교  
 단이다. 해연은 현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있었다.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진 컴퓨터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넘겨짚는 도적으로 손꼽히는 컴퓨  
 터명수들과의 재미있는 수업...

해연은 설림으로 가길 단념했다.

×

해연이 열차에서 내려 다시금 설림행 버스에 오  
 른것은 늦은 아침이었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편안  
 히 앉고보니 저도 몰래 안도의 숨이 길게 나갔다.

(이젠 결혼식상을 물리기 전에 가당게 되겠구  
 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다. 길고도 짧은것이  
 사람의 한생이라더니 정말 그런가보다. 서로 손목  
 잡고 학교길을 오가던 쫘지머리소녀시절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변함없는 동무가 되자고 새끼손가락들  
 을 걸고 약속하던 일이 어찌만 같은데 이제는 둘

다 가정의 주부들로 되었구나. ...

해연에게는 문득 처녀시절을 마감짓던 그때 일  
 이 떠올랐다.

오직 학교일밖에 몰랐던 해연은 부모님들이 좋  
 은 때가 다 지나간다고 불같이 독촉도 하고 또 오  
 래전부터 한교단에서 서로 도우며 지내던 물리교  
 원이 뜻밖에도 정식으로 청혼하는 통에 이 문제를  
 더이상 끝수 없게 되었다. 하긴 교사리도 제철에  
 꺾는다는데 이왕이면 학교에서 일인자로 떠받들리  
 우는 때에 리상문제를 락착짓는것도 여러모로 좋  
 을듯싶었다.

정작 결심이 서고보니 수연이가 마음에 걸렸다.  
 유년시절부터 함께 자라 꿈도 희망도 함께 나누고  
 재능도 마음껏 키워온 수연이는 먼 산골에 가있는  
 데 저만 훌쩍 먼저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그에  
 대한 미안함이 발목을 잡았다.

이 미안함이 수연이에게 결혼식초청장을 날리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그런데 해연의 미안한 마음이 수연의 마음에 가  
 닿았는지 글썽 수연이가 알아맞추기경연참가자  
 들과 함께 결혼식날에 도에 올라오게 될줄이야.

《해연아, 축하한다. 영원히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달려온 그는 해연의 두손  
 을 잡아흔들며 제 일처럼 기뻐해주었다.

《미안해, 수연아. 먼저 가는 날 리해해줘. 참,  
 인츰 제대된다던 립철동문 어떻게 됐니?》

《글썽... 이제 제대되겠지 뭐.》

《?!》

왜서인지 그의 대답에 풀기가 없었다. 혹시 립  
 철이가 오지 못할것 같았던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 해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수연의 얼굴을 자  
 세히 들여다보았다. 쌍까풀이 아니라 세까풀도 넘  
 는 수심이 비낀 두눈, 살이 쏙 빠지고 창백해진 얼  
 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싶었다.

《아니 수연아, 너 어디 아픈게 아니니. 왜 그  
 렇게 얼굴이 상했니?》

《아프긴, 그저 좀 피곤해그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잠이 모자라는구나.》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듯 우정 밝게 웃어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해연의 마음을 더욱 알찌근하게  
 해주었다.

《솔직히 말해. 분대장동무한테서 좋지 못한 소  
 식이 왔지?》

《너도 알고있었니?... 실은 얼마전에 이런 편지  
 를 받았단다.》

수연은 나직이 긴숨을 내쉬며 편지를 꺼냈다.

《...수연동무,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병사의 어려운 부탁을 성실히 들어준 동무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제는 나이도 있는만큼 부모님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수연동무의 수고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렵니다. ...》

해연은 그 내용이 너무도 믿어지질 않아 몇번이나 꼭꼭어 읽었다. 읽을수록 아리송한게 뭐가 뭔지 통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저 섭섭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나중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게 내가 뭐라던, 이런 일은 애들 놀음이나 아니라고... 고지식한 너만 약속을 지킨다구 그 외진 산골에다 처녀시절을 고스란히 바쳤지...》

그러던 해연은 자기의 말이 수연의 마음을 아프게 건드릴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중등무이하고말았다.

수연은 창녀머만 바라보고있었다.

해연은 조심스레 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그래, 이젠 어쩔셈이니? 짐을 싸야지. 당장 아주 올라오도록 하자. 반대없지? 수연아.》

그래도 그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었다. 한참만에야 나직이 속삭이듯 말을 했다.

《해연아, 그만해. 난 설림에서 아주 살련다. 영원히 그곳을 뜨지 않겠어.》

해연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아주 살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똥판지같은 말이람,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립철이에 대한 원망을 그런 식으로 하려는게 아닐가?

문득 소학교시절에 있는 그 일이 생각났다. 그때 수연은 약속을 어긴 해연에 대해 얼마나 속이 앵돌아지고 야속하게 생각하였던가. 다 자란 오늘에 와서도 고집불통같은 그 성질 못 고쳤는가 보다.

《수연아, 그래야 너 하나 손해야. 립철동무야 어떻게든 너 하나 약속을 지켰으면 그만이지 아니니.》

해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그를 달래기 시작했다.

《고맙다, 해연아. 하지만 내가 설림을 못 떠나는데 립철동무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란다.》

《아니, 그럼 도대체 설림을 뜨지 못할 리유란 뭐란 말이지?》

수연은 대답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결이 정답게 그의 얼굴을 애무한다. 그 부드러움에 온몸을 맡긴채 울긋불긋한 도시의 밤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해연아, 난 요즘 약속이란 두 글자를 놓고 생각이 많아진다. 솔직한 말로 인간생활은 크고작은 하많은 약속으로 시작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률리의 세계라고만 생각했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의리의 아름다운 세계인가는 다 모르고 살아왔구나.

난 설림에서 살면서 많은걸 배우고 많은걸 생각하게 됐어.

약속이란 단순히 사람들 호상간에 오고가는 언약뿐이 아니야. 조국이라는 크나큰것에 자기의 사소한것도 깡그리 바칠줄 알 때, 조국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합칠줄 알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약속에 성실한 사람으로 참되게 산다고 말할수 있어.

난 이젠 설림을 제 고향처럼 느끼게 됐어. 그 산천과 그곳 사람들에게 무척 정이 깊어졌어.

산천도 유정하고 설림천을 가운데 끼고 오봇이 들어앉은 립산마을이 얼마나 아담하게 꾸려졌는지 아니? 설림폭포에서 떨어져내리는 물로 그아래에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단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순박하고 친근한지... 내가 어쩌다 감기로 앓아눕기라도 하면 몸에 좋다는 갖가지 보약을 저마다 만들어오고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들고오고... 애들은 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앞으로 큰 수학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있는 동명이, 문학가가 되겠다는 순별이... 내 지식을 한껏 바쳐 키워가고있는 이 애들과 어떻게 헤어질수 있단 말이지나. ...》

시내물처럼 도란도란 울리는 수연의 말은 그대로 해연의 가슴속에 차분히 젖어들었다.

해연은 까딱 앓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수연은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난 립철동무를 믿고싶어.

해연아, 설사 립철동무가 여기에 오지 못한다 해도 난 이 고장을 떠나지 않겠어.

그 동무가 꿈꾸던것은 어느 한 개인의 리상이고 포부가 아니야.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을 리상촌으로, 선경으로 꾸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리상을 꽃피우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하지 않을까?

난 립철동무의 포부를 우리 동시대인들의 리상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현실로 만들어놓겠어. 난 이걸 영원토록 조국과 한 약속으로 마음속에 무겁게 안고살련다.》

그때 해연은 가슴을 짝 채우는듯 한 걱정애 몸돌바를 몰랐었다.

나와 한시절에 자란 수연이!

공부도 한책상에서 하고 혜택도 똑같이 받으며 자란 너의 마음속엔 조국이 결코 자기의 생활과 동떨어진 특별한 개념으로 자리잡힌것이 아니였구나. 몸은 작아도 마음속엔 크나큰 조국을 안고사는 수연이! 너와 나의 세계는 어쩌면 이다지도 판이할수 있단 말이지나.

해연의 가슴속에선 이런 걱정과 회오의 파도가



쉽없이 일고있었다.

×

《손님, 여기가 종점입니다.》

차장처녀의 친절 한 목소리에 해연은 감고있던 두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황황히 뺄스안을 둘러보았다. 덩실한 차안엔 유독 해연이 혼자만이였다.

《여기가 설림인가요?》

해연의 물음에 복스럽게 생긴 차장처녀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제서야 기차와 뺄스를 갈아타며 드디어 목적지에 와닿았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든 해연은 서둘러 트렁크를 찾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밖엔 이미 눈도 멎었고 바람도 잦았다. 마치 기다리고있기라도 한듯 갑자기 질게 드리웠던 구름장들이 쭉 갈라지며 한줄기의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히야, 수연이네 날이 참 기막힌데.》

해연은 뺄스에서 내린 길손들이 사방으로 바뻐 흩어져가고 새 사람들이 갈아탄 뺄스가 떠나는것도 아랑곳없이 산천구경에만 정신을 팔았다. 여기도 산, 저기도 산, 높고낮은 산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앉은 틈바구니속에 오목하게 자리잡은 접시마을, 한눈에 전부 안겨오는 여기가 바로 수연이가 영원히 살겠다는 바로 그 설림이란 말인가.

《별이야!》

해연은 별안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한그루의 잣나무가 방금 내린 함박눈으로 소복단장을 하고 선 아래에서 한 처녀가 손을 흔든다. 수연이였다.

《수연아!》

해연은 아이들마냥 환성을 올렸다.

《해연아.》

둘은 한참동안이나 천진한 애들마냥 불안고 돌아갔다.

《참, 수연아! 오늘이야 네 날이 아니니. 그때, 상은 받았니?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야?...》

해연은 지금껏 묻고싶었던것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난 네가 꼭 오리라 믿었다. 그래서 지금껏 기다리는중이야. 그리구 남자는...》

왜서인지 수연은 뒤말을 삼켰다.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진다.

《왜 그러니? 어서 말해. 너의 길동문?》

《수연동무의 길동문 바로 접니다.》

뜻밖에도 등뒤에서 울리는 웅글진 남자의 목소리에 해연은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그 순간 늘씬한 키에 어깨가 짙 벌어진 림름한 체구의 청년

이 시야에 안겨왔다. 초면이면서도 어디선가 꼭 본듯 한 청년이 해연을 굽어보고있었다. 아니, 웃고있었다. 첫눈에도 서글서글한 성격의 미남자임이 알려졌다.

《반갑습니다.》

해연은 열결에 이렇게 말하며 약간 고개를 숙였다.

《하하, 오래간만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청년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마나, 분대장동무!》

해연은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불렀다. 그렇다. 그는 분명 그 공병분대장이였다. 군복이 제끼것양 복으로 바뀌고 짧던 머리를 길러 넘긴데다 가슴엔 금빛영웅메달까지 달고있으니 해연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것이 당연하였다.

《어마나, 그럼 혹시 뜻밖의 정황에서 동지들을 구원했다던 그 영웅이 바로...》

해연은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언제인가 조선인민군 사관 림철동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보도를 출근길에서 듣고도 세상엔 같은 이름도 많구나 하고 스쳐지나간 해연이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 영웅이 다름아닌 공병분대장이였으며 필경 그때 입은 부상때문에 고향길이 늦어졌음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전 동무를...》

《하하, 새삼스럽게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침대에 누웠을 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고향땅을 밟있게 가꿔보자던 리상의 날개를 이렇게 접는단 말인가 하는 절망감이 앞섰지요.》

하지만 다잡았습니다. 수연동무가 고향의 교단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는 믿음이 병치료를 전투로 여기고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아이참, 그만하세요. 먼길을 온 손님을 세워놓고 무슨 강의를 하세요.》

수연이가 그를 밀막으며 해연을 잡아끌었다. 멋지게 웃으며 닝큼 트렁크를 받아들고 성큼성큼 앞서가는 림철을 보고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눈가루가 흩날린다. 마치 조국에 다진 약속을 지켜가는 길에 이루어진 그들의 사랑을 축하해주듯.

해연은 기뻐다. 아니, 그들이 무척 부러웠다. 이제 그들은 억센 뿌리가 되고 푸르른 잎이 되어 하늘아래 첫 동네인 이 설림땅에 자기들의 리상을 아름답게 꽃피워갈것이다.

이튿날 해연은 설림을 떠났다.

먼길의 피로도 풀고 하많은 얘기도 나눈 다음 떠나라고 수연이네와 친혈육처럼 다정하고 살뜰한 이웃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끄당겼으나 기어코 뺄스에 오르코야말았다. 한것은 다름아닌 제자와의 약속때문이었다.

며칠전에 온 그의 편지내용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선생님, 제가 담당한 소조원들이 이번에 시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컴퓨터경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고나니 기쁨보다 죄스러움이 더 컸다. 찾아가 도와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아직 떠날 생각도 못하는데 그래도 옥인 스승을 원망할 대신 오히려 편지까지 써보냈으니…

(가자. 수연이와의 즐거운 하루를 옥이를 위해 바치면 이걸 보다 보람있는 일로 될거야. 나

도 이제 사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되자.)

빠스는 다정한 사람들을 멀리 뒤에 남기고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손을 흔들며 따라오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의 작은 점이 되었다가 영영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해연의 마음속엔 수연이네의 모습이 더욱 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겨졌다.

더불어 조국땅의 크나큰 화원속에 또 하나의 선군시대 선경으로 태어날 설립땅의 태일의 모습도 바야흐로 속속 다가오고있었다.

## 외국작가일화

### 의리를 지켜 쓴 인물전기 《페기전》

생존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생애》, 《폴스도이의 생애》, 《미켈란젤로의 생애》와 같은 명인전기를 쓴 로맹 툴랑(프랑스 작가, 1866~1944)에게는 이런 일화도 있다.

작가는 죽음을 눈앞에 둔 여든살 가까운 로년기에 도이칠란트강점하의 베즐레땅에서 두권에 달하는 인물전기 《페기전》을 썼다. 이 책은 그가 생존중에 출판한 마지막저작으로 된다.

그러면 어찌하여 툴랑이 생의 마무리에 평범한 출판업자에 지나지 않는 페기의 전기를 쓰게 되었는가.

샤를 페기(1873~1914)는 툴랑이 문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단에 섰을 때 그의 강의를 받은 학생중의 한사람이었다.

페기는 그후 루이지레의 소개를 받아 툴랑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페기는 한때 심취되었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버리고 사회주의운동에 들어서게 되었고 《드레이푸스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드레이푸스를 옹호하여 뛰여다나기도 하였다.

페기는 1898년에는 사회당을 위하여 출판소를 설치했고 이해에 툴랑과의 교우관계가 시작되었다. 주전이 강한 페기는 사회당 일꾼들과의 견해가 잘 맞지 않아 1900년에 자기가 발간한 《반월간수첩》잡지발행을 거의 혼자 도맡아하였는데 여기에 툴랑이 창작한 희곡 《당퐁》(1901)을 실어주었다. 페기는 또한 툴랑이 쓴 인물전기 《베토벤의 생애》를 1903년에 《반월간수첩》에 실어주었는데 이것은 툴랑에게 예견치 않았던 비상한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베토벤의 생애》가 실린 이 잡지의 해당호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페기는 7년후에 자기가 쓴 《우리의 청춘》이라

는 책에서 당시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로맹 툴랑의 〈베토벤의 생애〉가 금시 나왔을 때였다. 그 책이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던지, 얼마나 갑작스러운 파도와 같이, 바다밑 물흐름같이 한순간에 전파되었던지 우리의 구독자들은 그때 일을 회상하지 않을수 없다.》

《베토벤의 생애》의 출판은 툴랑이 작가적명성을 떨치는 시초로 되었다. 툴랑은 후에 자기의 《회상록》에서 이렇게 추억하였다.

《…뜻밖에도 1903년에 녀의 부르짖음이었던 나의 〈베토벤의 생애〉가 나에게 광명여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

페기는 툴랑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장 끄리스토프》역시 9년동안 17회에 나누어 《반월간수첩》에 실어주었다. 이 작품으로 하여 툴랑은 191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벽두에 페기가 41살의 나이로 일찌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동지적관계속에서 살았다.

첫 성공작과 함께 대표작을 잡지에 실어 작가로 내세워준 출판업자 페기는 툴랑에게 있어서 더없는 은인이었다. 하기에 그는 생애가 끝나가던 시기에 한 출판업자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페기전》을 쓰기 시작한것이다. 이것은 툴랑의 의리심의 분출이었으며 오랜 창작생활에서 남은 마지막빛을 청산하려는 순결한 량심의 발현이었다.

툴랑은 사망을 앞둔 한해전인 1943년 1월에 《페기전》의 원고를 끝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까지 《페기전》의 인쇄교정지에 교열을 가했고 교열을 끝내자 인생의 빛을 다 갚은 안도감을 가지고 세상을 하직한것이다.

《페기전》은 2권으로 된 총 686페지의 큰 인물전기이다.

# 영원한 보금자리

## 리 일 섭

세상에 이런 거리 이런 집이 그 얼마일까  
마치도 꿈을 꾸는듯  
너무도 꿈같은 현실이어서  
자욱자욱 절로 터져나오는 감탄속에  
돌아보고 또 보는 만수대거리여

어느 호동 그 어느 집에 들어서보라  
따스한 문손잡이 해빛 눈부신 벽무늬  
갖가지 고급가구며 더운 김 피는 욕실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  
구석구석 눈물겹도록 차고넘치는 집

행복의 창문 열면 귀전에 들려오누나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인민을 위해선 아까울것이 없다고  
전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자고...  
오늘도 이 심장 울리는 아버비 그 음성

못 잊어 바라보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이 집에 살 주인들보다 더 원심쓰시며  
현신의 자욱자욱 이 거리에 새겨오신 그이  
그 미소 비껴 타일들은 저리도 눈부신것 아닌가

자본의 세계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시장경제를 밀뿌리채 뒤흔들고있을 때  
억만금 들어 지은 이처럼 화려한 집을

무상으로 평범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주는  
이것이 우리 안겨사는 선군의 내 조국이거니

토성랑의 전변의 역사를 추억깊이 새겨주는  
이 거리 이 집의 기초밑에 놓여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우리 당 활동의 그 근본초석이

입사증과 함께 고이 받쳐준  
저 금빛열쇠에 새겨져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이 신념으로 간직한 그 좌우명이

이 반석위에 주춧돌을 놓고  
이 기둥위에 들보를 얹은  
존엄높은 사회주의 우리의 이 집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림없고  
그 어떤 불바람에도 끄떡없으려니

오, 인민이여 마음껏 꿈을 꾸라  
아버지장군님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  
강성대국 찬란한 태일의 모습 비껴담은 집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어있는 이 집이  
바로 우리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여라

## 작가일화

### 《필요없는것을 왜 글로 썼나이까?》

대표작으로 시 《물질을 읊노라》, 《글을 읽으며 느낀바 있어》, 《칼새소리 들으며》, 《시내 물소리》, 《옷을 준 두 서생에게》를 내놓은 시인이었던 서경덕(1489~1546)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날 서경덕을 가르치던 선생이 글을 배워주다가 《서경》의 《기삼백》이라는 장에 이르러 읽는것만 가르쳐주고 그 뜻을 풀이해주지 않았다. 그도 그렇것이 그 글은 매우 어려워 선생자신도 잘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서경덕이 선생을 뵈히 올려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이 장은 왜 뜻을 풀지 않고 넘기나이까?》

대답이 궁해진 선생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말했다.

《진 알 필요가 없다. 그닥 필요한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것을 왜 글로 썼나이까?》

서경덕의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맑은 눈동자앞에서 선생은 사실그대로 말해주지 않을수 없

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알수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잘 연구해보아라.》

선생의 말을 심중히 들은 서경덕은 자기가 이미 알고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에게 물어가며 익힌 지식에 기초하여 이 부분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자자구구 따져가며 연구를 깊이한 결과 그는 15일만에 그 장의 내용을 완전히 터득할수 있게 되었다.

그길로 선생을 찾아간 서경덕은 자기가 풀이한 책의 내용을 말하였다.

서경덕을 기특하게 여긴 선생은 무릎을 치면서 거듭 칭찬해마지 않았다.

《넌 앞으로 나보다 열곱절은 앞설수 있겠구나. 나도 학문을 탐구하느라고 했다만 너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파고들지는 못했다. 넌 앞으로 큰사람이 될수 있다.》

선생의 말대로 그후 서경덕은 20대에 이르면서 벌써 당당한 일가견을 가진 작가로, 학자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 《병불염사》와 고구려문학에 반영된 탐정적형상

《병불염사》란 고대와 중세에 있었던 전법의 하나로서 군사상에서 기만을 꺼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51(1962)년 9월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 전쟁과 정탐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병불염사》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 병서에 《병불염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군사상에서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하여 적을 기만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싸움에서 이기자면 적을 정확히 알며 적에게 착각과 혼란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머리를 써서 적을 감쪽같이 속여넘겨야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의에 타격을 안길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마련할수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병불염사》의 전법을 적용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세상에 크게 떨쳤다.

고구려사람들은 력량상 우세한 적을 피로써 물리치고 대중적투쟁으로써 정의의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는데 《병불염사》의 전법을 활용한 전투로써는 위나암성방어전투를 들수 있다.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을두지를 비롯한 고구려군의 지휘관들은 침략군의 심리를 리용하여 역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펄펄 뛰는 잉어와 맛있는 술, 싱싱한 풀 등을 받아든 침략군의 피수는 위나암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퇴각명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612년 고구려를 침범한 다른 외래침략군도 을지문덕장군의 유인기만전과 청야수성전술에 의해 무리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을지문덕장군은 싸움에서 여러번 져주어 침략군으로 하여금 《승리》에 도취하여 계속 승패를 다투게 하였으며 그로 하여 긴장을 늦추게 한 다음 적을 불의에 들이쳐 살수(소자하)의 물고기밥이 되게 하였다.

《병불염사》의 전법을 적용한 전투승리의 경험은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서도 찾아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건국초기 선비족을 종속시킨 사실을 들수 있다.

고구려의 장수 부분노는 선비족이 웅거하고있는 성안에 사람을 파견하여 고구려는 지역이 좁고 군사가 약하므로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헛소문을 내게 하고 때를 기다려 선비족의 군사들을 성밖으로 유인해낸 다음 불의에 들이쳐 쉽

게 항복을 받아냈다.

반침략조국방위를 위한 투쟁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과정에 《병불염사》의 전법에 기초하여 벌어진 탐정활동을 반영하여 고구려문학에는 필연적으로 탐정적형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외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령토완정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인물들의 탐정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인민들속에서 창조전승되고 그것이 후세 문인들에 의해 서사화되면서 탐정적형상이 창조발전하였다고 보는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일련의 책들에서는 탐정문학의 발생을 19세기 미국의 포우(1809—1849)의 단편소설 《모르그거리의 살인사건》(1841), 추리소설 《황금벌레》(1843)로 쓰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근대탐정소설의 시작을 리해조(1869—1927)의 정탐소설 《쌍옥적》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탐정문학이 근대에 와서 독자적인 분야로 개척되었다는것을 념두에 둔것이지 탐정적형상창조가 이때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것은 아니다.

다 아는것처럼 문학의 형태는 과거로 거슬러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분화되지 않은것이 일반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의 력사는 그 내용의 변화발전과정인 동시에 형태를 비롯한 형식들의 변혁과정이었다.》

소설형태 하나만 놓고보아도 중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분화되어있지 않았으며 소설이라는 표현자체가 오늘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어있지 않았다. 그 때에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들을 패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던것이 계몽기작가인 박은식이 《소설로써 독립, 자유의 사상을 배양하여 시대의 경종》을 올리는것이라고 하고 또 1906년에 리인직이 신문 《만세보》에 《혈의루》를 발표한 때부터 소설이라는 말이 오늘과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그 양식들도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안국선이 주체3(1914)년에 단편소설집 《공진회》를 내놓았는데 이때 근대단편소설이라는 개념이 문학의 한 형태로 고착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 시대에 소설의 특성을 갖춘 작품들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탐정문학을 계몽기소설인 《쌍옥적》에서 시작되었다고 규정해버리면 앞선 시기 반침략조국방위전쟁들에서 나라의 자주권

을 수호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세운 실재한 인물들의 탐정활동과 그것을 반영한 탐정적형상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된다.

문학은 해당한 역사적시대를 반영하는것만큼 탐정적형상의 출현은 반침략조국방위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고구려인민이 지닌 높은 애국심과 불타는 적개심, 대담무쌍한 자기희생정신에 의해 천년강대국의 역사가 창조된 고구려와 고구려인민들의 지혜의 산물인 구전문학에서부터 고찰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병불염사》의 전법을 구체적인 정황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나라를 지켜내고 민족의 안전을 담보한 반침략조국방위의 승리의 역사들을 반영한 설화작품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고구려인민이 창조한 문학에 탐정적형상이 있다고 보는것이다.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전설》에는 비류국의 송양왕이 건국자더러 나라를 세운 선후차에 따라 속국을 결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국자가 나무로 기둥을 세워 그 역사가 천년이 되는듯한 느낌을 주도록 한것이라든가 신하 부분노가 비류국의 복과 나팔을 탈취해오고 거기에 검은색을 칠하여 상대편으로 하여금 알아볼수 없게 한것들은 《병불염사》가 반침략조국방위전쟁뿐 아니라 국토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요한 전법으로 리용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애국설화들인 《부분노이야기》와 《을두지의 기지》에서 그러한 형상을 찾아보게 된다.

《부분노이야기》에서는 적의 내부를 와해시키고 유리한 기회를 마련하는것으로 형상되었다면 《을두지의 기지》에서는 위나암성을 함락시키려고 꾀하는 침략군의 피수에게 물고기를 잡아 풀에 싸고 술과 함께 보냄으로써 성안에는 아직도 먹을것, 마실것이 넉넉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병불염사》를 반영한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을지문덕전》에서 을지문덕이 침략군을 계속 피로케 하기 위해 싸움에서 저주는것이라든가, 《칠불사전설》에서 도망치는 침략군을 살수(소자하)의 깊은 곳으로 유인하는것이라든가 하는것들은 다 이 시기 외래침략자들을 상대로 하여

고구려군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전투정황과 실정에 맞게 대담한 군사정탐활동을 벌렸다는것을 알게 한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병불염사》의 전법이 적극 리용되었는데 475년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사건을 반영한 《도림이야기》(《어리석은 개로》)를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수 있다.

《도림이야기》에서는 고구려의 중 도림이 백제에 들어가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죄를 지은자》로 정체를 가리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위장술과 도림이 백제왕과 바둑을 두면서 그에게서 환심을 사며 조용한 기회에 《리익》이 뒤집힌 의견을 내놓아 백제의 국력을 쇠퇴시키는 활동은 다 상대방에 대한 기만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따라서 도림의 형상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실현에 이바지한 전략정탐가의 형상으로 보는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구전문학, 구체적으로는 설화작품들에 반침략조국방위를 위한 투쟁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탐정활동으로 인민들의 찬양을 받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인물들의 탐정적위훈에 대한 형상이 미숙하게나마 반영되어있다.

고구려사람들이 《병불염사》의 전법을 리용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대담하게 벌린 군사정탐활동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내는데 크게 이바지된것으로 하여 그를 반영한 탐정적형상에 대한 연구는 중세문학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서술하는데서는 물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새 세대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문학유산을 계승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날의 문학작품들가운데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작품들을 찾아내서 널리 소개선전하며 민족문학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세상에 자랑하여야 한다. 하여 찬란한 민족문학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들이 땅위에 활짝 꽃피워가야 한다.

김복실

## 상 식

### 심 한 출 혈 께

① 장갑(소독된)을 끼고 상처(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를 꼭 눌러준다.

② 손상된 부위를 우로 들어주고 받쳐준다.

③ 상처에 소독된 약천을 놓고 그 부위를 일

정하게 피가 통할수 있게 하면서 붕대로 든든히 감아준다.

④ 구급차를 부른다.

⑤ 쇼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환자의 상태를 감시한다.

## 웰 남의 신 화에 대 하 여

신화는 원래 원시인류가 창조한 집체적인 창작품으로서 원시사회를 경과한 나라와 민족들이 다 같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구전문학형태이다.

신화의 창조계승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으로 되면서도 해당 지역과 매개 나라, 민족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일찍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웰남도 예외로 될수 없다.

웰남에서는 벌써 인류사회의 유년기에 미분화적 성격을 가진 소박하고 원시적인 집단적성격의 문학예술이 오랜 기간을 걸쳐 창조발전하여왔다.

당시 웰남사람들은 노동활동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 교훈, 념원 등을 소박한 구전작품들인 신화와 전설, 민요들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구전작품들은 그후 웰남인민들의 고유한 민족문학의 시원으로 되었으며 웰남문학예술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었다.

이러한 구전문학유산가운데서 신화는 고대 웰남사람들의 고유한 생활과 사고방식, 당시 그들의 지향과 념원, 웰남문학의 유구성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인류의 유년기라고 할수 있는 아득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주위세계에 대한 원시적표상과 함께 자연을 정복하려는 그들의 지혜와 념원이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해당 나라와 민족의 력사와 태고적 인간들의 창조적로동생활과 지향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원시사회의 구석기시대로부터 자기의 역사를 시작한 웰남에서는 예로부터 신화적형태의 구전작품들이 널리 창작되었다.

웰남에서 신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월전유령집》(1392년, 웰남지방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적은 책), 《령남척피》(1492년, 웰남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다.

웰남에서 신화가 널리 창조보급된것은 자연현상의 비밀과 주위세계를 파악하려는 당시 인간들의 탐구심과 함께 자연현상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할수 없었던 그들의 낮은 의식상태와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식이 부족했던 원시사회에서 웰남사람들은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소박한 견해와 리해관계를 초자연적인 신과 결부시켜 신화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웰남의 신화에서 주목되는것은 자연현상 즉 하늘과 태양, 번개와 우뢰, 비, 바람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며 다른 나라의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적인 성격이 함께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웰남의 신화에는 크게 우주와 만물의 창조 등 자연현상과 관련된 이야기와 인간생활과 결부된 이야기들이 있다.

웰남의 신화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신비한 모습과 힘을 통해 웰남사람들의 소박한 우주에 대한 관념을 보여준것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성격도 함께 부여하여 자연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수 있다는 소박한 로동에 대한 태도를 엿보게 한것이다.

실례로 하늘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수 있다.

《처음에 우주는 출고 어두운 혼돈의 세계였다. 그때 하늘에서 신이 나타나 머리로 하늘을 받들고 발로는 땅을 밀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

그런데 하늘과 땅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늘신은 다시 땅을 파고 기둥을 만들어세워 하늘을 높이 떠받쳐 올렸다. 하늘이 높아진 다음 신은 그 기둥을 허물었다. 본래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한 네모꼴모양이었는데 신이 기둥을 세울 때 땅을 판 자리는 그후에 강으로 되었고 허물어진 기둥은 산으로 되었다.》

우주의 발생과 관련한 이 신화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인공이 신비한 힘을 지닌 거인적존재이나 그 어떤 특별한 재주로 우주를 만든것이 아니라 열심히 땅을 파서 기둥을 만들어세웠다는것을 통해 자연도 인간의 의사와 로동에 의하여 변화시킬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준것이다.

고대웰남사람들은 우주는 하늘과 땅, 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았으며 이것들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각각 있으며 또 자기들의 주위세계와 자연현상들에도 그와 관련된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

이로부터 하늘과 땅과 관련한 신화뿐아니라 비와 구름, 번개, 우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자연현상과 결부된 신화들을 적지 않게 창조하였으며 자기들의 로동생활과정에 체험한 지식과 경험들을 신화적형상속에 체현시켜 제나름대로 설득력있게 설명하고있다.

《하늘의 여러 신들가운데는 비를 맡은 우신도 있었다. 룡의 모습을 하고있는 우신의 임무는 하늘에서 땅우의 물을 빨아올려 다시 땅의 모든 곳에 그 물을 끌고루 뿌려주는것이였다. 그런데 우신은 기억력이 나빠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여 언제인가는 아홉달동안이나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비를 뿌리지 않아 땅에 크게 가물이 들게 하였다. 두꺼비가 이 일을 옥황상제에게 제소하였다. 옥황상제는 당장 우신을 불러들여 호되게 꾸짖었다. 이 사건이 있는 후부터 우신은 두꺼비가 올기만 하면 자기의 임무를 깨닫고 인츰 비를 뿌려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비와 관련한 신화이다.

농사에서 물은 해빛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것이다. 더우기 농업을 기본생산방식으로 해온 월남에서는 지난 시기 농사에 필요한 물보장을 많은 경우 하늘에 의탁하였다.

비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 월남사람들이 천원경제로 이행하던 시기에 이 신화가 창작되었으며 다른 한편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물의 순환과 강우량변화에 따르는 일기, 개구리가 올면 비가 온다는것을 일찍부터 리해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월남의 신화에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신화뿐 아니라 인류발생과 관련한 신화, 자연정복과 관련한 신화들도 있다.

인류발생과 관련한 대표적인 신화로는 《락룡건과 어우거신화》가 있다.

신화의 내용은 월남사람들은 바다신의 아들인 락룡건과 산신의 딸인 어우거가 결혼하여 태어났다는것으로 되어있다. 락룡건과 어우거는 결혼한 후 백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백명의 자식들이 나왔다. 그후 태어난 자식들은 50명씩 갈라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바다로 나갔다는것이다.

이 신화를 통해서 월남은 고대시기 조상이 같은

여러 종족으로 갈라져있었고 자연지리적조건으로부터 룡지와 바다에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음을 알수 있다.

월남사람들의 자연정복을 위한 투쟁과 관련된 신화로는 홍하 (월남의 북부에 있는 큰 강)의 치수를 취급한 《산신과 물신의 싸움》도 있다.

월남최초의 국가였던 반랑국의 왕에게 옥화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산신과 물신이 저마다 옥화와 결혼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왕은 두 신들에게 제일먼저 진귀한 보물을 가져오는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선포하였다. 산신은 즉시 다음날 아침에 보물을 바치었고 옥화를 안해로 맞이하였다. 뒤늦게 보물을 가지고왔다가 이것을 알게 된 물신은 대노하여 번개와 우뢰, 비바람을 동원하여 산신을 공격하였다. 산신은 물이 범람하면 할수록 산을 더 높여 제방을 쌓으며 물신을 공격하였다. 결국 물신은 산신에게 패하고말았다.

이 이야기는 그후 월남사람들속에 널리 퍼져 오늘도 월남사람들은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물신이 옥화공주를 빼앗으려고 공격해온다고 말하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월남의 신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자기 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창조계승되었다.

신화가 월남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었는가는 그들이 자기들을 룡과 신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신화의 주인공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가는 곳마다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것을 의례화하였다는 사실을 놓고 잘 알수 있다.

월남문학의 시원으로 된 신화는 그후 월남의 각이한 문학형태들에 침투하여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월남민족 고유의 문학예술창조와 연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안 룡 준

## 조선속담

### 사랑(벗, 가족친척, 남녀)

- 술은 초(첫) 물에 취하고 사람은 후물에 취한다
- 십년 찾지 않으면 벗과 우의가 끊어진다
- 의가 좋으면 친하도 나누어가진다
- 같은 떡도 만며느리 주는것이 더 크다
-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 도리깨와 사위는 먹어도 안 먹는다고 한다
- 자식 둔 끝에는 호랑이도 두남을 둔다
- 자식이 부모의 맘 반이면 효자된다

- 첫 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꺼꾸로 신고 나간다
- 여든에 낳은 아들인가
- 열사람의 작은어머니보다 한사람의 어머니가 더 크다
-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 정이 있으면 꿈에도 보인다
- 꽃 본 나비 불을 헤아리랴

## 정태제와 심성의인소설 《천군연의》

정태제(1612-1669)는 우리 나라 고전의인 소설가운데서 손꼽히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인 심성의인소설 《천군연의》를 창작한 재능있는 문인이다.

어려서 왕의 어전에까지 불리워가 문학적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23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의 벼슬에 올랐으나 병술년 옥사사건에 관계되어 6년간 정배살이를 한 후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있다가 57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집으로는 《국당배어》가 있다.

현재 전하는 《천군연의》의 서문에는 이 소설을 누가 지은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서술되어있으나 발문에 그의 5대손인 정교익의 《〈천군연의〉는 정태제가 지은것인데 그 저자임을 스스로 감춘것이다》라는 글이 있으므로 《천군연의》를 정태제의 작품으로 취급하고있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같은 미학적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한 창작가들의 창작경향은 하나의 공통된 문예사조를 이루며 그에 기초하여 창작방법이 생겨난다.**》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후 봉건적학정이 심해지고 무신집권자들의 무단통치와 그로부터 빚어진 사회적혼란이 한층 격화되던 시기에 우화문학파 전기문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새롭게 출현한 의인전기체문학은 15~16세기에 이르러 심성의인소설이라는 새로운 소설형식을 낳았다.

심성의인소설이란 사람의 마음과 성정을 의인화한 소설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느끼게 되는 사상감과 정서를 실지 살아움직이는 또 하나의 사람에 비유하여 그의 성격적특징을 보여주는 의인소설을 심성의인소설이라고 한다.

심성의인소설은 추상적개념을 실지 살아움직이는 사람으로 비겨 그의 성격적특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는데 소설의 특성이 있다.

《천군연의》가 바로 그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인간이 주색에 빠졌다가 제정신을 차리는 이야기에 기초하여 임금이 간신들의 아첨에 속아넘어가면 나라를 망칠수 있고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먼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간신들과 탐관오리들을 멸시하고 충신에 의거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인체기관의 눈, 코, 입, 귀와 여러 내장기관들, 몸집, 머리 등을 인격화하였을뿐만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성정을 회(기쁨), 노(노여움), 애(사랑), 락(즐거움), 애(슬픔), 오(추악심), 욕(욕심)과 인(어짐), 의(신의), 례(례절), 지(깨달음), 신(믿음)을 비롯하여 씩씩함, 성실성, 뉘, 정신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와 상반되는 청렴결백한 마음 등이 인격화되어 긍정 또는 부정인물계열을 이루고있다.

그외에 녀색과 술은 왜적으로, 감언(달콤한 말), 온갖 교태, 아름다움, 애교편 웃음, 아양과 같은것들은 녀색의 심복부하로, 백타, 룡서, 고건강, 석동춘, 추로(유명한 좋은 술의 이름들), 도로와 금구라, 옥섬이(이름난 술그릇들)는 환백의 부하장수로 그렸을뿐만아니라 문방사우(붓, 먹, 종이, 벼루), 문예(글재주), 돈, 잠, 꿈, 가위, 놀림 등들도 모두 인격화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60여종의 다양한 사물현상, 추상적인 개념들에 인간처럼 말하고 사유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인체기관을 비롯한 인간의 마음, 성정 및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인격화한것은 형상의 심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전제로 되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때문에 동식물을 비롯한 사물현상을 의인화한 다른 의인소설들의 형상에 비하여 의인화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수 있다.

《천군연의》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의 성질, 특성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인간의 마음에 자리잡을수 있는 그릇된 감정은 간신으로 비유하고 인간본래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들, 쉽게 저버릴수 있으나 버려서는 안될 귀중한것을 충신으로 비유하여 인간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소설에서는 긍정인물들인 성성웅, 주일대장(장엄하고 엄숙한것을 의인화한것) 등을 한편으로 하고 부정인물들인 욕생, 월백, 환백 등을 다른편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명백히 설정하고 그들 호상간의 일관하고 심각한 갈등을 통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면서까지 제 배만 불리우는 악질관료들을 단호히 처단하고 청렴결백하고 대바른 신하들에 의거하여 나라의 정사를 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공부정인물집단의 호상관계를 시종 일관하게 발전시켜나가면서 이야기를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으며 다양한 사건과 세부를 통하여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여러모로 개성적으로 그리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천군연의》는 앞선 시기의 《재판받는 쥐》, 《꽃력사》, 《수성지》에 비해보면 구성이 비교적 짜여있고 이야기가 산만하지 않으며 소설형식으로서의 예술적품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작품은 장회체소설형식의 31회에 달하는 비교적 큰 형식의 의인소설로서 등장인물들의 수에 비해서나 이야기의 극적구성과 조직에 있어서 다른 장편소설형식에 짝지지 않는 우수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정태제의 심성의인소설 《천군연의》가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신성화되고 우상화된 봉건군주인 왕의 부패타락성을 의인인물형상에 의거하여 적나라하게 폭로하고있다는것이다.

당시 왕의 잘못과 폐정을 비판하는 허다한 작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판의 도수에 있어서 《천군연의》에 비할만 한 작품이 드물다.

정태제는 새로운 의인형상수법의 창조로 사람의 마음과 성정을 의인대상으로 삼고 정치를 잘못하

는 국왕과 봉건통치배들을 재치있게 비판함으로써 의인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천군연의》는 일련의 부족점도 드러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유교성리학을 사상리론적 기초로 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여러가지 감정을 다루었다는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고사를 많이 끌어들이고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씌으로써 언어형상속에서 통속성을 보장하지 못한것 등의 일련의 결함도 내포하고있다. 이러한 부족점은 작가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사상적견해의 미숙성에서 오는 결함으로서 당대 봉건사회의 시대적제한성이 낳은 옹당한 결과이다.

이처럼 심성의인소설 《천군연의》는 우리 인민의 뛰어난 문학적재능과 의인소설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서 대표적작품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훌륭한 중세시기 의인소설작품의 하나이다.

우리는 심성의인소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지난 시기 창작된 의인소설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더 많이 발굴하고 윤색하여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야 할것이다.

리 성 국